

Contents

2011 수능 D-100 자료집

➤ 2011 수능 대비 영역별 필수점검 문제	1
- 언어	
- 수리가, 수리나	
- 외국어(영어)	
- 사회탐구 : 윤리, 국사, 한국지리, 근현대사, 사회문화	
- 과학탐구 :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 EBS와 6.10 평가원 모의 수능	93
➤ 수능 영역별 학습전략	114
➤ 수준별 학습전략	121
➤ 성적대별 학습 전략 포인트	123
➤ 2011 정시 모집군 변동사항, 분할모집 대학	127
➤ 2011 주요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130
➤ 2011 수시전형일자 수능 전·후별 구분	154
➤ 2011 대입전형 일정	173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센터



2011 수능 대비 영역별 필수점검 문제

평가원에서 시행한 6월 모의평가는 이전에 치른 어떤 모의고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3월과 4월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재학생들은 금년 입시에서 함께 경쟁할 졸업생과 진정한 실력을 겨루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6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인 만큼 금년 수능 시험의 전체 난이도와 출제 경향, EBS와의 연계성 등 수능 출제 전반의 큰 흐름을 짚어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아울러 수험생들에게는 실제 수능을 대비해 영역별 학습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남은 기간 무슨 영역(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각 영역(과목)별로 난도가 있는 문제, EBS와의 연계성, 눈여겨 보아야 할 신유형, 원리나 개념 정립을 위해 확인해야 할 문항을 선별하여 살펴봄으로써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역(과목)별 분석 문항

영역	분석 문항
언어	6월 모의수능 27번, 40번, 42번, 48번, 50번
수리가	6월 모의수능 10번, 23번, 25번, 28번, 30번
수리나	6월 모의수능 17번, 21번, 23번, 24번, 25번, 30번
외국어	6월 모의수능 5번, 21번, 27번, 29번, 45번
윤리	6월 모의수능 5번, 6번, 17번
국사	6월 모의수능 2번, 6번, 7번, 16번
한국지리	6월 모의수능 2번, 4번, 12번
한국근현대사	6월 모의수능 6번, 10번, 13번, 18번
사회문화	6월 모의수능 5번, 11번, 14번, 20번
물리 I	6월 모의수능 6번, 13번, 16번, 20번
화학 I	6월 모의수능 18번, 20번
생물 I	6월 모의수능 7번, 16번, 19번
지구과학 I	6월 모의수능 9번, 10번, 16번, 18번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27번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체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체에 더 다가감으로써 ①연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둘러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

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고프리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가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27. 문맥상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 ① 습득(習得)하게 ② 체득(體得)하게
 ③ 취득(取得)하게 ④ 터득(攄得)하게
 ⑤ 획득(獲得)하게

[정답] ⑤

[제재 및 주제] 읽기(비문학) 자료. 예술

[영역] 어휘의 문맥적 이해

[출제 의도]

-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국어능력의 핵심인 어휘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및 오답 피하기]

- ⑤ 획득(獲得) : 얻어 내거나 얻어 가짐.
- ① 습득(習得) :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 ② 체득(體得) :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 ③ 취득(取得) :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 ④ 터득(攄得) :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

[분석 및 학습 대책]

-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기출 문제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의 대부분은 비문학 독해 지문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우리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비문학 지문에 나온 한자어의 뜻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언 어] - 2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40번, 42번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딛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처라 날래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패라.

- 작자미상, 사설시조 -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아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랴
 집은 내 지오마 ㉠움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쪼개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니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타)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장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랄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썩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헤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는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漁賦)」 -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④

[제재 및 주제] 읽기(문학) 자료

[영역] 시어의 문맥적 의미

[출제 의도]

- 문학작품에서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및 오답 피하기]

- 용은 왕을 의미하고, 큰 고기는 왕 밑의 신하를, 그보다 작은 고기는 아전을, 그보다 더 작은 고기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비가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자.
-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용(왕)이 그 나라를 경영할 때, 국가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물고기(백성)가 살 수 있도록 비를 제공하는 것, 즉 이는 왕이 백성에게 내려주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나)에서 ㉣은 주인이 고공에게 먹여 주는 것이므로 '비'와 가까운 의미인 것이다.

[분석 및 학습 대책]

- 어휘력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읽기 지문의 문제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약방의 감초처럼 거의 매 지문마다 어휘와 관련된 문제가 끼여 들고 있다. 순수한 어휘력을 평가하는 문제에서부터 한자 성어에 관한 문제, 어구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크게 보면 다 어휘력에 속하는 문제들이다. 어휘력을 뒷받침해 두지 않으면 3년 농사 헛짓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웃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정답] ②

[제재 및 주제] 읽기(문학) 자료

[영역]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

[출제 의도]

- 문학작품에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창작의도의 제시를 통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및 오답 피하기]

- (나)의 제시문에는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제시문을 살펴보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와 ‘너희 재주를 내 짐작 하였노라’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고공의 능력을 인정한 부분이므로 ②가 잘못된 답이다.

[분석 및 학습 대책]

- 외적 준거란 언어 사용의 외적 국면에 관련된 비판적 사고이므로 타당성과 효용성이 기준이 된다.
- 글의 주제나 목적에 비추어 내용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판단하며 읽는다.
- 건전한 상식과 사회 통념, 윤리적 가치, 미적 가치 등에 비추어 내용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비판하며 읽는다.
- 독서의 목적과 독자의 입장에 비추어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의 효용성을 파악하며 읽는다.



[언어] - 3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48번, 50번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변왕 남곽을 평정하기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칭한데,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찍 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며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온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어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푸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오직 빈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데,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제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급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졸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을 못내 감보하더라.

- 작자미상, 「낙성비룡(落城飛龍)」-

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 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①

[제재 및 주제] 읽기(문학) 자료. 고전소설, 「낙성비룡」

[영역] 사실적 사고 - 구체적 사실 확인

[출제 의도]

- 구체적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및 오답 피하기]

- 이 문제는 ㉠~㉣까지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배경지식이나 추리를 동원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자.
- ㉠은 가장 마지막 줄인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남에 못내 감복하더라?’에서 알 수 있고, ㉡은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에서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분석 및 학습 대책]

- 1) 전체의 구조적 이해, 2) 전개상의 유기성(전후의 상호 관계 등), 3) 어려운 어휘, 어구 등의 순으로 좁혀 나가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고전소설의 생소한 어휘를 넘어서서 정형화된 구조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 어휘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대충 이해하면서 반복의 횟수가 거듭되면 저절로 그 뜻이 머리에 확연하게 자리잡게 된다.

50. 위 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이야.

[답] ②

[제재 및 주제] 읽기(문학) 자료. 고전소설, 「낙성비룡」

[영역] 상황에 적합한 한자 성어 이해

[출제 의도]

- 글 전체의 내용 이해를 통해 한자 성어와 연관시키는 문제이다.

[해설 및 오답 피하기]

- 설 태수는 십일 년 전 술하게 잠을 자고 둔하게 많이 먹던 경모가 현재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관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이에 적합한 한자 성어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인데,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이라는 의미이다.
- 수구초심(首丘初心) :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분석 및 학습 대책]

- 이러한 문제는 암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이므로, 문제를 보는 눈을 기르거나 독해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 일일이 모든 사자성어를 외우고 있는 것은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므로, 소설을 읽을 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자성어들을 작품을 대할 때마다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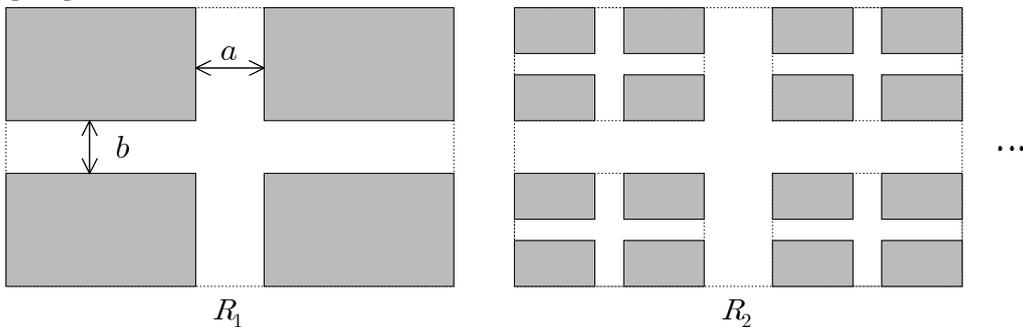


[수리 가] - 1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10번

10. 가로 길이가 5이고 세로 길이가 4인 직사각형에서 그림과 같이 가로 폭 a 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의 $\frac{1}{4}$, 세로 폭의 b 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의 $\frac{1}{5}$ 인 \oplus 모양의 도형을 잘라내어 얻은 4개의 직사각형을 R_1 이라 하고, 그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_1 이라 하자. R_1 의 각 직사각형에서 가로 폭이 각 직사각형의 $\frac{1}{4}$, 세로 폭이 각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의 $\frac{1}{5}$ 인 \oplus 모양의 도형을 잘라내어 얻은 16개의 직사각형을 R_2 라 하고, 그 1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_2 라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 번째 얻은 R_n 의 4^n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_n 이라 할 때, $\sum_{n=1}^{\infty} S_n$ 의 값은?

[4점]



[정답] 30

[해결 길라잡이]

주어진 그림과 규칙에서 처음 도형을 R_0 의 면적은 20이다.

이 때 잘라내는 \oplus 부분의 면적은 가로 a , 세로 4인 직사각형의 면적 $4a$ 와 가로 5, 세로 b 인 직사각형의 면적 $5b$ 를 합하고 겹치는 부분인 가로 a , 세로 b 의 직사각형의 면적 ab 을 빼면 된다. 즉, $4a + 5b - ab$ 이다.

그런데, a 는 가로 길이가 5의 $\frac{1}{4}$ 인 $\frac{5}{4}$, b 는 세로 길이가 4의 $\frac{1}{5}$ 인 $\frac{4}{5}$ 이므로 \oplus 모양의 면적은 $4 \times \frac{5}{4} + 5 \times \frac{4}{5} - \frac{5}{4} \times \frac{4}{5} = 8$ 이다.

그러므로 $R_1 = 20 - 8 = 12$ 이다.

즉, 원래 직사각형의 면적이 20이므로 면적이 $\frac{12}{20} = \frac{3}{5}$ 의 비율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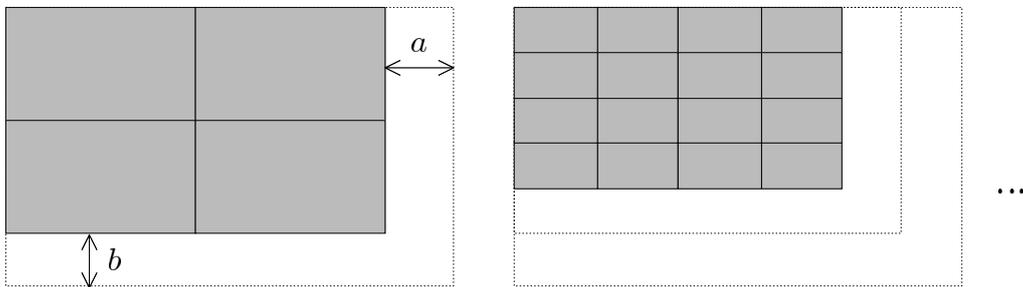
마찬가지 이유로 R_2 의 면적도 R_1 의 $\frac{3}{5}$ 로 줄어들게 된다.

$\therefore S_n$ 은 초항이 12, 공비가 $\frac{3}{5}$ 인 등비수열이 된다.

$$\text{그러므로 } \sum_{n=1}^{\infty} S_n = \frac{12}{1 - \frac{3}{5}} = 30 \text{ 이다.}$$

[별해]

주어진 직사각형에서 잘라내는 부분의 모양이 \oplus 모양이라고 되어있지만 \oplus 모양의 정확한 형태는 없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만 제시되어있다. 이러한 조건은 아래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잘라내어도 무방하다는 뜻이 된다.



R_1

R_2

$$\text{그러므로 } S_1 = 20 \times \frac{4}{5} \times \frac{3}{4} = 12 \text{ 이고 } S_2 = S_1 \times \frac{4}{5} \times \frac{3}{4} = 12 \times \frac{4}{5} \times \frac{3}{4} = 12 \times \frac{3}{5} \text{ 이다.}$$

$\therefore S_n$ 은 초항이 12, 공비가 $\frac{3}{5}$ 인 등비수열이 된다.

$$\text{그러므로 } \sum_{n=1}^{\infty} S_n = \frac{12}{1 - \frac{3}{5}} = 30 \text{ 이다.}$$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주어진 조건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형을 잘라내어 보면 도형의 모양이 다양해지고 개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더욱 조건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면 굳이 십자가의 모양을 규격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좀 더 계산이 편리한 모습으로 주어진 도형을 변형하여 계산을 한다면 편리하게 이해하기 쉬운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여 등비수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학습대책]

도형과 관계되는 모양의 계속되는 반복은 대개의 경우 등비수열이 됨을 인식하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양을 변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23번

23.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 의 값을 구하시오. [4점]

(가) $\lim_{x \rightarrow \infty} \frac{\{f(x)\}^2 - f(x^2)}{x^3 f(x)} = 4$

(나) $\lim_{x \rightarrow 0} \frac{f'(x)}{x} = 4$

[정답률] 31.37%

[정답] 19

[해결 길라잡이]

조건 (가)와 같이 무한대로 가는 분수식의 극한 문제는 가장 먼저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찾아내어야 한다.

$f(x) = ax^n + \dots$ 라 두면

(1) 분자 : $\{f(x)\}^2 - f(x^2) = \{a^2 x^{2n} + \dots\} - \{ax^{2n} + \dots\} = (a^2 - a)x^{2n} + \dots$

(2) 분모 : $x^3 \times f(x) = x^3 \times \{ax^n + \dots\} = ax^{n+3} + \dots$

조건 (가)에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수렴하므로 $n = 3$ 이고 그 계수를 비교

하면 $\frac{a^2 - a}{a} = 4$ 이므로 $a = 5$ 이다.

즉, $f(x) = 5x^3 + bx^2 + cx + d$ 가 된다.

그러므로 $f'(x) = 15x^2 + 2bx + c$ 이다.

조건 (나)에서

$$\lim_{x \rightarrow 0} \frac{f'(x)}{x} = \lim_{x \rightarrow 0} \frac{15x^2 + 2bx + c}{x} = 4 \text{에서}$$

$x \rightarrow 0$ 이면 분모 $\rightarrow 0$ 이므로, $x \rightarrow 0$ 이면 분자 $\rightarrow 0$ 이어야 한다. $\therefore c = 0$

그러면

$$\lim_{x \rightarrow 0} \frac{f'(x)}{x} = \lim_{x \rightarrow 0} \frac{15x^2 + 2bx}{x} = \lim_{x \rightarrow 0} \frac{x(15x + 2b)}{x} = \lim_{x \rightarrow 0} (15x + 2b) = 2b = 4$$

$$\therefore b = 2$$

따라서, $f'(x) = 15x^2 + 4x$

$$\therefore f'(1) = 19$$

[오답원인 및 오답피하기]

다항함수의 합성함수에서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이문제의 시작이 어려웠을 것이다. 분수식의 극한 문제에서 $\frac{\infty}{\infty}$ 문제는 가장 먼저 다항함수의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를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frac{0}{0}$ 꼴 문항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 성질을 이용하여 $\frac{0}{0}$ 에서는 두 가지의 정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수리 가] - 3****[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25번**

25.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2^{\frac{1}{10}}$ 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log a_n$ 의 가수를 b_n 이라 하자.

$$b_1, b_2, b_3, \dots, b_{k-1}, b_k, b_{k+1} + 1$$

이 주어진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k 의 값을 구하시오.(단, $\log 2 = 0.301$ 로 계산한다.) [4점]

[정답률] 14.91%

[정답] 27

[해결 길라잡이]

수열 $\{a_n\}$ 은 첫 번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2^{\frac{1}{10}}$ 인 등비수열이므로 $a_n = 2^4 \left(2^{\frac{1}{10}}\right)^{n-1}$ 이다.

또한 $\log a_n$ 의 가수인 b_n 는 등차수열이므로 b_1 과 b_2 를 구하여 b_n 의 일반항을 구하기로 한다.

$$b_1 = \log \left(16 \times 2^{\frac{0}{10}}\right) \text{의 가수} = 1.204 \text{의 가수} = 0.204$$

$$b_2 = \log \left(16 \times 2^{\frac{1}{10}}\right) \text{의 가수} = 1.2341 \text{의 가수} = 0.2341$$

그러므로 b_n 은 첫 번째 항이 0.204이고 공차가 0.0301인 등차수열이다.

$$\text{즉, } b_k = 0.204 + (k-1)0.0301$$

주어진 조건에서 $0 \leq b_k < 1$ 이고 $b_{k+1} > 1$ 이므로 $b_k < 1$ 인 최대의 정수 k 를 구한다.

$$b_k = 0.204 + (k-1)0.0301 < 1 \text{를 정리하면}$$

$$k < 27. \dots \text{이다.}$$

$$\text{즉, } k = 27$$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이번 시험에서 비교적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로서 학생들이 문제를 접하였을 때 로그문제와 수열문제가 혼합되어있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로그의 가수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더욱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가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을 충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수의 범위에 관한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했던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라면 주어진 조건의 마지막 항인 $b_{k+1} + 1$ 의 범위를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습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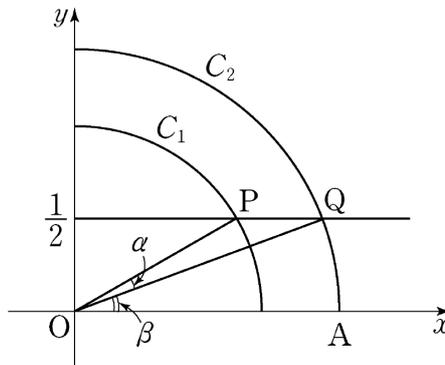
무엇보다도 수학이라는 학문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단순히 머리에 암기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정의와 성질을 활용한 문제를 많이 접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등비수열, 등차수열을 거쳐서 로그의 가수에 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그 흐름에 필요한 내용으로 세분화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리 가] - 4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28번

28. (미분과 적분) 좌표평면에서 원점 O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sqrt{2}$ 인 두 원 C_1, C_2 가 있다. 직선 $y = \frac{1}{2}$ 이 원 C_1, C_2 와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 Q 라고 하자. 점 $A(\sqrt{2}, 0)$ 에 대하여 $\angle QOP = \alpha, \angle AOQ = \beta$ 라고 할 때, $\sin(\alpha - \beta)$ 의 값은? [3점]



[정답률] 30.56%

[정답] $\frac{3 - \sqrt{21}}{8}$

[해결 길라잡이]

주어진 조건과 그림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면,

$y = \frac{1}{2}$ 과 $\overline{OP} = 1$, $\overline{OQ} = \sqrt{2}$ 에서 점 P 의 좌표는 $\left(\frac{\sqrt{3}}{2}, \frac{1}{2}\right)$ 이고, 점 Q 의 좌표는 $\left(\frac{\sqrt{7}}{2}, \frac{1}{2}\right)$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in \beta = \frac{\sqrt{2}}{4}$, $\cos \beta = \frac{\sqrt{14}}{4}$ 이고, $\sin(\alpha + \beta) = \frac{1}{2}$, $\cos(\alpha + \beta) = \frac{\sqrt{3}}{2}$ 이다.

그러므로,

$$\begin{aligned} \sin \alpha &= \sin(\{\alpha + \beta\} - \beta) \\ &= \sin(\alpha + \beta)\cos \beta - \cos(\alpha + \beta)\sin \beta \\ &= \frac{1}{2} \cdot \frac{\sqrt{14}}{4} - \frac{\sqrt{3}}{2} \cdot \frac{\sqrt{2}}{4} \\ &= \frac{\sqrt{14} - \sqrt{6}}{8} \end{aligned}$$

$$\begin{aligned} \cos \alpha &= \cos(\{\alpha + \beta\} - \beta) \\ &= \cos(\alpha + \beta)\cos \beta + \sin(\alpha + \beta)\sin \beta \\ &= \frac{\sqrt{3}}{2} \cdot \frac{\sqrt{14}}{4} + \frac{1}{2} \cdot \frac{\sqrt{2}}{4} \\ &= \frac{\sqrt{42} + \sqrt{2}}{8} \end{aligned}$$

그러므로

$$\begin{aligned} \sin(\alpha - \beta) &= \sin \alpha \cos \beta - \cos \alpha \sin \beta \\ &= \frac{\sqrt{14} - \sqrt{6}}{8} \cdot \frac{\sqrt{14}}{4} - \frac{\sqrt{42} + \sqrt{2}}{8} \cdot \frac{\sqrt{2}}{4} \\ &= \frac{(14 - 2\sqrt{21}) - (2\sqrt{21} + 2)}{32} \\ &= \frac{12 - 4\sqrt{21}}{32} \\ &= \frac{3 - \sqrt{21}}{8} \end{aligned}$$

[별해]

주어진 조건과 그림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면,

$y = \frac{1}{2}$ 과 $\overline{OP} = 1$, $\overline{OQ} = \sqrt{2}$ 에서 점 P 의 좌표는 $\left(\frac{\sqrt{3}}{2}, \frac{1}{2}\right)$ 이고, 점 Q 의 좌표는 $\left(\frac{\sqrt{7}}{2}, \frac{1}{2}\right)$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theta = \alpha + \beta$ 라 두면

$$\text{즉, } \sin\beta = \frac{\sqrt{2}}{4}, \cos\beta = \frac{\sqrt{14}}{4} \text{ 이고, } \sin\theta = \frac{1}{2}, \cos\theta = \frac{\sqrt{3}}{2} \text{ 이다.}$$

또한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에 의해

$$\sin 2\beta = 2\sin\beta\cos\beta = 2 \cdot \frac{\sqrt{2}}{4} \cdot \frac{\sqrt{14}}{4} = \frac{\sqrt{28}}{8}$$

$$\cos 2\beta = 1 - 2\sin^2\beta = 1 - 2 \cdot \frac{1}{8} = \frac{3}{4}$$

그러므로,

$$\begin{aligned} \sin(\alpha - \beta) &= \sin((\alpha + \beta) - 2\beta) = \sin(\theta - 2\beta) = \sin\theta\cos 2\beta - \cos\theta\sin 2\beta \\ &= \frac{1}{2} \cdot \frac{3}{4} - \frac{\sqrt{3}}{2} \cdot \frac{\sqrt{28}}{8} \\ &= \frac{3 - \sqrt{21}}{8} \end{aligned}$$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수 I, II 등의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거부감과 주어진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이 필요한 문제이다.

[학습대책]

우선적으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질을 다루는 문제를 자주 점검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2배각 공식뿐만 아니라 3배각 공식이나 합·차를 곱으로 고치는 공식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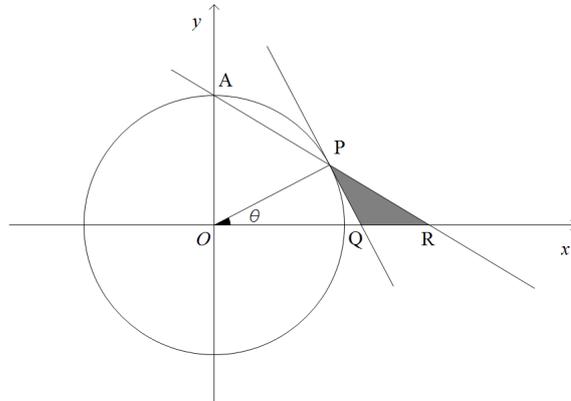
[수리 가] - 5

[분석 문항] 6월 모의수능 30번

30. (미분과 적분)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O 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 P 에서 접선이 x 축과 만나는 점을 Q , 점 $A(1, 0)$ 와 점 P 를 지나는 직선이 x 과 만나는 점을 R 라 하자. $\angle QOP = \theta$ 라 하고 삼각형 PQR 의 넓이를 $S(\theta)$ 라고 하자.

$\lim_{\theta \rightarrow +0} \frac{S(\theta)}{\theta^2} = \alpha$ 일 때, 100α 의 값을 구하시오. (단, 점 P 는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4점]



[정답률] 30.08%

[정답] 50

[해결 길라잡이]

점 P 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이므로 $P(\cos\theta, \sin\theta)$ 라 둘 수 있다.

$\triangle OPQ$ 에서 직선 PQ 는 원의 접선이므로 $\overline{OP} \perp \overline{PQ}$ 이다.

$$\text{그러므로 } \cos\theta = \frac{\overline{OP}}{\overline{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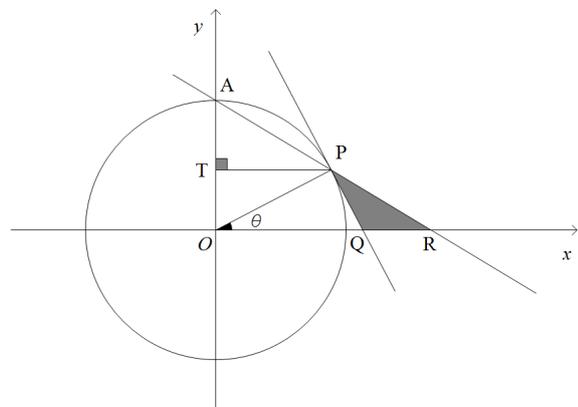
$$\text{즉 } \overline{OQ} = \frac{1}{\cos\theta} \text{이다.}$$

점 P 에서 y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T 라 하면 두 삼각형 $\triangle ATP$, $\triangle AOR$ 은 닮은 삼각형이고,

$$\overline{AT} = 1 - \overline{TO} = 1 - \sin\theta$$

$$\overline{TP} = \cos\theta \text{이다.}$$

두 삼각형 $\triangle ATP$, $\triangle AOR$ 은 닮음을 이



용하면, $\frac{\overline{AT}}{TP} = \frac{\overline{AO}}{OR}$ 이다.

$$\text{그러므로 } \overline{OR} = \frac{\overline{TP} \cdot \overline{AO}}{\overline{AT}} = \frac{\cos \theta}{1 - \sin \theta}$$

$$\therefore \overline{QR} = \overline{OR} - \overline{OQ} = \frac{\cos \theta}{1 - \sin \theta} - \frac{1}{\cos \theta} = \frac{\cos^2 \theta - (1 - \sin \theta)}{(1 - \sin \theta) \cos \theta} = \tan \theta$$

$$\therefore S(\theta) = \frac{1}{2} \tan \theta \cdot \sin \theta$$

$$\therefore \lim_{\theta \rightarrow +0} \frac{S(\theta)}{\theta^2} = \frac{1}{2} = \alpha$$

그러므로 $100\alpha = 50$

[별해]

점 $P(x_1, y_1)$ 는 원 $x^2 + y^2 = 1$ 위의 점이므로 $x_1^2 + y_1^2 = 1$ 이다.

즉, $x_1 = \cos \theta, y_1 = \sin \theta$ 이다.

또한 원 $x^2 + y^2 = 1$ 위의 점 $P(x_1, y_1)$ 에서의 접선 PQ 의 방정식은 $xx_1 + yy_1 = 1$ 이고 x 절편인

Q 의 좌표는 $\left(\frac{1}{x_1}, 0\right)$ 이다.

즉, $Q\left(\frac{1}{\cos \theta}, 0\right)$ 이다.

점 $A(0, 1)$ 과 점 $P(x_1, y_1)$ 을 지나는 직선 AP 의 방정식은 $y = \frac{y_1 - 1}{x_1}x + 1$ 이고 x 절편인 R 의

좌표는 $\left(\frac{x_1}{1 - y_1}, 0\right)$ 이다.

즉, $R\left(\frac{\cos \theta}{1 - \sin \theta}, 0\right)$ 이다.

$$\therefore \overline{QR} = \overline{OR} - \overline{OQ} = \frac{\cos \theta}{1 - \sin \theta} - \frac{1}{\cos \theta} = \frac{\cos^2 \theta - (1 - \sin \theta)}{(1 - \sin \theta) \cos \theta} = \tan \theta$$

$$\therefore S(\theta) = \frac{1}{2} \tan \theta \cdot \sin \theta$$

$$\therefore \lim_{\theta \rightarrow +0} \frac{S(\theta)}{\theta^2} = \frac{1}{2} = \alpha$$

그러므로 $100\alpha = 50$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일반적인 도형에서도 그 도형 위의 한 점이라는 조건은 하나의 식을 제공하여 준다. 즉, 그 점을 주어진 도형의 식에 대입하면 그 식이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원 위의 한 점인 경우에는 θ 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문제에서는 점선의 기본적인 방정식과 점선의 성질 등을 이용한다면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대책]

삼각함수를 이용한 매개변수 방정식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루어 보아야 할 것이다.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에 충실하다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수리 가] - 6

[분석 문항] 6월 모의 수능 30번

30. (확률과 통계) A, B 두 사람이 탁구시합을 할 때, 한 사람이 먼저 이기거나 연속하여 두 세트를 이기면 승리하기로 한다. 각 세트에서 A 가 이길 확률은 $\frac{1}{3}$ 이고, B 가 이길 확률은 $\frac{2}{3}$ 이다. 첫 세트에서 A 가 이겼을 때, 이 시합에서 A 가 승리할 확률은 $\frac{q}{p}$ 이다. $p+q$ 의 값을 구하시오. (단, p 와 q 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4점]

[정답률] 12.67%

[정답] 118

[해결 길라잡이]

첫 세트에서 이긴 A 가 이 시합에서 승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세트		1	2	3	4	5	비고
A의 승리여부	CASE 1	○	○				두 번 연속 승리
	CASE 2	○	×	○	○		두 번 연속 승리
	CASE 3	○	×	○	×	○	세 번 승리

첫 번째 경기를 A 가 이긴 상태에서 각 CASE별로 승리할 확률을 계산하면
CASE 1)

A 가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기면 된다. : $\left(\frac{1}{3}\right)$

CASE 2)

A 가 두 번째 경기에서 지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경기를 이기면 된다. :

$$\left(\frac{2}{3}\right) \cdot \left(\frac{1}{3}\right) \cdot \left(\frac{1}{3}\right) = \frac{2}{3^3}$$

CASE 3)

A가 두 번째 경기에서 지고 세 번째를 이긴 뒤 네 번째 경기에서 지고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면 된다. :

$$\left(\frac{2}{3}\right) \cdot \left(\frac{1}{3}\right) \cdot \left(\frac{2}{3}\right) \cdot \left(\frac{1}{3}\right) = \frac{2^2}{3^4}$$

$$\frac{1}{3} + \frac{2}{3^3} + \frac{2^2}{3^4} = \frac{3^3 + 2 \times 3 + 2^2}{3^4} = \frac{37}{81} = \frac{q}{p}$$

$$\therefore p + q = 118$$

[오답원인 및 오답피하기]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가 승리할 수 있는 각 경우를 빠짐없이 열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평소에 많은 연습과 사고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어떤 문제 상황을 각 조 종류별로 빠짐없이 나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하는 것은 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학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각각의 경우를 모두 나열하고 분류하여 빠짐없이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대책]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체계적으로 분류 연습을 하여야 한다. 확률과 통계뿐만 아니라 정수의 분류와 같은 대수학에서부터 Case by Case 문제를 자주 연습하여야 한다.



[수리 가] 6월 모의 평가와 EBS와의 연계

1. $\frac{1}{\sqrt[3]{8}} \times \log_3 81$ 의 값은? [2점]

.....관련 교재 : 수능특강 수학 I 22쪽 문제1번

2. 행렬 $A = \begin{pmatrix} 1 & 2 \\ -2 & 3 \end{pmatrix}$ 에 대하여 행렬 B가 $A + B = 2E$ 를 만족시킬 때, 행렬 $A - B$ 의 값은? [2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8쪽 문제 4번

3. 두 상수 a, b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3} \frac{x^2 + ax + b}{x - 3} = 14$ 일 때, $a + b$ 의 값은? [2점]

.....관련 교재 : 수능특강 수학II 21쪽 예제 3번

4. x 에 대한 부등식 $x(x - a)(x - 1)^2 < 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가 4일 때, 실수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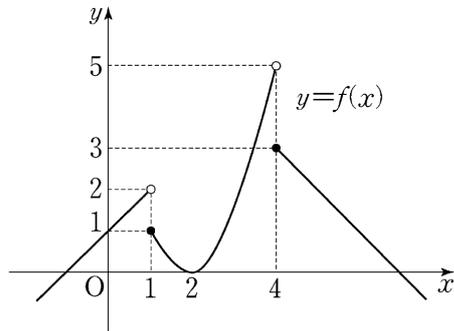
의 최댓값은? [2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I 22쪽 문제 3번

6. 분수방정식 $\frac{x}{x-1} + \frac{x-2}{x+1} = \frac{ax+5}{x^2-1}$ 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의 값의 곱은? [3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9쪽 문제 6번

7.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 = f(x)$ 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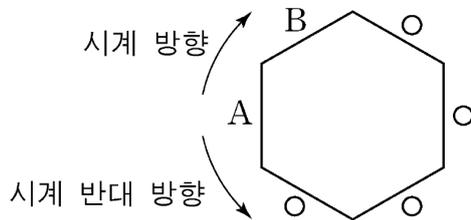


$\lim_{t \rightarrow \infty} f\left(\frac{t-1}{t+1}\right) + \lim_{t \rightarrow -\infty} f\left(\frac{4t-1}{t+1}\right)$ 의 값은? [3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수학II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12쪽 문제 1번

14. A, B 를 포함한 6명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그림과 같이 둘러 앉아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을 따르는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시계방향으로,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웃한 사람에게 주사위를 준다.



A 부터 시작하여 이 시행을 5번 한 후 B 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4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확률과 통계 43쪽 문제 14번

18. 함수 $f(x) = 2x^4 - 3x + 1$ 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n \left\{ f\left(1 + \frac{3}{n}\right) - f\left(1 - \frac{2}{n}\right) \right\}$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 22쪽 문제 2번

21.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_n\}$ 에 대하여 $\sum_{n=1}^{\infty} (3^n a_n - 2)$ 가 수렴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6a_n + 5 \cdot 4^{-n}}{a_n + 3^{-n}}$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수학 I 78쪽 예제 2번

22. 실수 $a(1 < a < 2)$ 에 대하여 폐구간 $[0, 2]$ 에서 정의된 연속확률변수 X 의 확률밀도함수 $f(x)$ 가

$$f(x) = \begin{cases} \frac{x}{a} & (0 \leq x \leq a) \\ \frac{x-2}{a-2} & (a < x \leq 2) \end{cases}$$

이다. $P(1 \leq X \leq 2) = \frac{3}{5}$ 일 때, $100a$ 의 값을 구하시오. [2점]

.....관련 교재 : 인터넷 수능 확률과 통계 67쪽 문제 1번



[수리 나] - 1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5번

25. 첫째항이 16이고 공비가 $2^{\frac{1}{10}}$ 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log a_n$ 의 가수를 b_n 이라 하자. $b_1, b_2, b_3, \dots, b_{k-1}, b_k, b_{k+1} + 1$ 이 주어진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k 의 값을 구하시오. (단, $\log 2 = 0.301$ 로 계산한다.) [4점]

[정답률] 22%

[정답] 27

[해결 길라잡이]

$$a_n = 2^4 \cdot \left(2^{\frac{1}{10}}\right)^{n-1} = 2^{\frac{n+39}{10}} \text{ 이므로}$$

$$\log a_n = \log 2^{\frac{n+39}{10}} = \frac{n+39}{10} \cdot \log 2 = (n+39) \cdot 0.0301 = 0.0301n + 1.1739$$

즉, 수열 $\{\log a_n\}$ 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0.0301n + 1.1739 < 2 \text{ 에서 } 0.0301n < 0.8261$$

$$\therefore n < 27.4 \times \times \times$$

즉, $1 \leq n \leq 27$ 일 때, $\log a_n$ 의 지표는 1 이고 가수 b_n 은 $b_n = \log a_n - 1$ 이다.

즉, $1 \leq n \leq 27$ 일 때, 수열 $\{b_n\}$ 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때, $n = 28$ 이면 $\log a_{28}$ 은 지표가 2 이므로

$$b_{28} = \log a_{28} - 2$$

즉, $b_{26}, b_{27}, b_{28} + 1$ 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therefore k = 27$$

[다른 풀이]

$\{a_n\}$ 이 양의 등비수열이므로 $\{\log a_n\}$ 은 등차수열이다.

가수인 $b_n = \log a_n - (\text{지표})$ 으로 이루어진 수열 $\{b_n\}$ 도 일부는 등차수열이 되는데 a_n 의 자릿수가 바뀌는 순간 1 을 더해 주어야 등차수열이 된다.

즉, a_{k+1} 이 a_1 과는 다른 자릿수가 되는 최초의 항이다.

$$a_n = 16 \cdot 2^{\frac{1}{10}(n-1)} = 2^{4 + \frac{n-1}{10}}$$

$$1 \leq \log a_1 < 2 \text{ 이므로}$$

$$\log a_{k+1}$$

$$= \left(4 + \frac{k}{10}\right) \log 2 = \left(4 + \frac{k}{10}\right) 0.3010 \geq 2$$

$$\therefore k \geq 10 \left(\frac{2}{0.3010} - 4\right) = 26.4 \times \times \times$$

$$\therefore k = 27$$

[오답원인 및 오답피하기]

이 문항은 상용로그와 수열이 통합된 문항이다. 가수들로 이루어진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수열 $\{b_n\}$ 의 일반항 b_n 을 구해 보아야 한다. 문항에서는 항수를 묻고 있으므로 지표가 1 자리 늘어나는 순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학습대책]

이 문항은 수열 단원에서 출제되었던 유형과는 다른 신유형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문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모의평가에서는 신유형 문항이 한 두 문항정도 출제되므로 이러한 유형은 풀이를 참고하여 꼭 다시 풀어 보고 이해해 두어야 한다.

[유사문제] 인터넷 수능 수열/수열의 극한 13쪽 4번

1. 수열 $\{a_n\}$ 은 공비가 $^4\sqrt{10}$ 인 등비수열이고, $\log a_1$ 의 지표는 1, 가수는 $\frac{1}{4}$ 이다. 자연 수 n 에 대하여 $\log a_n$ 의 가수를 $f(n)$ 이라 할 때, $f(1)+f(2)+f(3)+\dots+f(100)$ 의 값은?

- ① 25 ② $\frac{75}{2}$ ③ 50 ④ $\frac{125}{2}$ ⑤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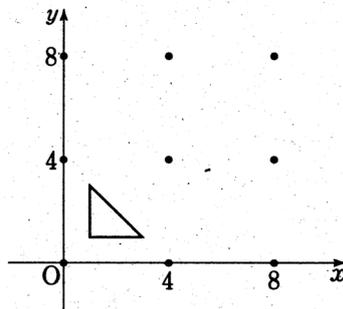
1) 정답 ②



[수리 나] - 2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17번

17. 좌표평면 위에 9개의 점 (i, j) ($i=0, 4, 8, j=0, 4, 8$) 이 있다. 이 9개의 점 중 네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 중에서 내부에 세 점 $(1, 1), (3, 1), (1, 3)$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4점]



- ① 13 ② 15 ③ 17 ④ 19 ⑤ 21

[정답률] 44%

[정답] ②

[해결 길라잡이]

(i) 세 점 $(0,0), (0,4), (4,0)$ 또는 세 점 $(0,0), (0,8), (4,0)$ 또는 세 점 $(0,0), (0,4), (8,0)$ 을 꼭짓점으로 하는 3 가지 경우, 나머지 한 꼭짓점으로 가능한 점은 $(4,8), (4,4), (8,8), (8,4)$ 로 각각 4 개씩이다.

(ii) 세 점 $(0,0), (0,8), (8,0)$ 을 꼭짓점으로 하는 경우, 나머지 한 꼭짓점으로 가능한 점은 $(4,8), (8,8), (8,4)$ 의 3 개이다.

(i), (ii)에서 구하는 사각형의 개수는 $3 \times 4 + 3 = 15$ (개)

[다른 풀이]

원점O 와 (0, 4), (0, 8) 중에 한 점, (4, 0), (8, 0) 중에 한 점, (4, 4), (4, 8), (8, 4), (8, 8) 중에 한 점을 각각 선택하여 사각형을 만든 다음 (0, 0), (0, 8), (4, 4), (8, 0) 은 삼각형이 되므로 제외한다.

$${}_1C_1 \times {}_2C_1 \times {}_2C_1 \times {}_4C_1 - 1 = 15 \text{ (개)}$$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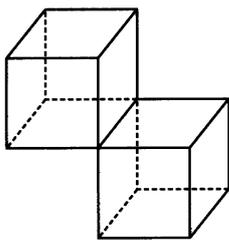
이 문항은 문항을 처음 접했을 때, 문항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다. 좌표평면에서의 도형의 끝점의 배치 조건을 분석적으로 잘 분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으로 단순히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이므로 네 점을 (0, 0), (0, 4), (4, 0), (4, 4) 을 꼭짓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직선 $y=x$ 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으며, [다른 풀이]처럼 그룹을 지어 사각형을 만든 다음 사각형이 아닌 도형을 제외할 수도 있다.

[학습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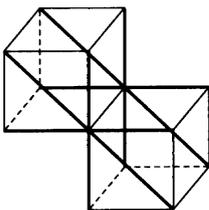
이 문항은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출제되었던 유형과는 다른 신유형이라 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것을 설정하여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한 문제이다.

[유사문제]

1. 아래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를 공유하고 밑면이 바닥과 평행한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다. 이 도형의 꼭짓점 중 3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 1) 정답 358
- 2) 해결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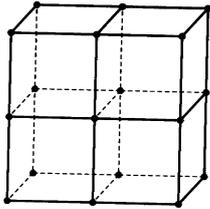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 개의 점은 삼각형을 이룬다.

위쪽 그림의 6 가지 경우에 세 개의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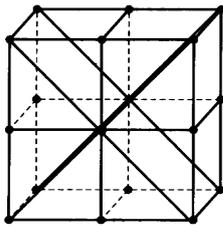
$${}_{14}C_3 - 6 \times {}_3C_3 = 358 \text{ (개)}$$

2. 아래쪽 그림과 같이 4 개의 정육면체가 겹쳐 있는 입체도형에서 각 정육면체의 꼭짓점 위치에 18 개의 점이 있다. 이 18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1) 정답 800

2) 해결 길라잡이



어느 세 점도 같은 직선 위에 있지 않는 18 개의 점에서 임의로 세 점을 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므로

$${}_{18}C_3 = \frac{18 \times 17 \times 16}{3 \times 2 \times 1} = 816 \text{ (개)}$$

그런데 위쪽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놓여 있는 16 가지의 경우에는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는 $816 - 16 = 800$ (개)



[수리 나] - 3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4번

24. $\log n$ 의 가수가 $\log \frac{1}{2}$ 의 가수보다 작은 두 자리 자연수 n 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

[정답률] 59%

[정답] 40

[해결 길라잡이]

$\log \frac{1}{2} = -\log 2 = -1 + (1 - \log 2)$ 에서

$\log \frac{1}{2}$ 의 가수는 $1 - \log 2$ 이다.

n 이 두 자리의 자연수이므로 $\log n$ 의 가수는 $\log n - 1$ 이다.

$\therefore \log n - 1 < 1 - \log 2$

$\log n + \log 2 < 2$

$\log 2n < 2$

$2n < 10^2$

$n < 50$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는 10, 11, ..., 49 이므로
구하는 개수는 40 (개)이다.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지표와 가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 성질을 활용한 보기선택형 문제와 활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한다.

[학습대책]

매년 출제되어온 계산 문제는 어김없이 출제될 것이며, 지표와 가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항 또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문제]

1. 양의 실수 x 에 대하여 $f(x) = \log_3 x - [\log_3 x]$ 라 할 때, 집합

$A = \{ n \mid f(n) > f(80), 100 \leq n \leq 242 \}$ 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단, $[x]$ 는 x 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

1) 정답 ①

2) 해결 길라잡이

$3^3 = 27, 3^4 = 81, 3^5 = 243$ 이므로

$f(80) = \log_3 80 - [\log_3 80] = \log_3 80 - 3$

$100 \leq n \leq 242$ 일 때, $f(n) = \log_3 n - [\log_3 n] = \log_3 n - 4$

이때, 집합 A 의 원소는 $f(n) > f(80)$ 을 만족하므로

$$\log_3 n - 4 > \log_3 80 - 3$$

$$\log_3 n > 1 + \log_3 80 = \log_3 240$$

$$\therefore 240 < n \leq 242$$

따라서 A의 원소 중 자연수인 것은 241, 242로 2개다.

2. 집합 $A = \{n \mid \log n \text{의 지표는 } 1 \text{이고, } n \text{은 자연수}\}$ 의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집합 B의 임의의 두 원소 x, y 에 대하여 $\log xy$ 의 지표는 2이고 가수는 $\frac{1}{2}$ 보다 크다.

이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단, $\sqrt{10} = 3.16$ 으로 계산한다.)

1) 정답 14

2) 해결 길라잡이

$x \in B, y \in B$ 일 때 $1 \leq x < 2, 1 \leq y < 2$ 이다.

$\log xy$ 의 지표가 2이고 가수가 $\frac{1}{2}$ 보다 크므로 $2.5 < \log xy < 3$

따라서 $10^{2.5} < xy < 10^3$ 이므로 $100\sqrt{10} < xy < 1000$

$$\therefore 316 < xy < 1000 \quad \text{--- ㉠}$$

이때, $17^2 < 316 < 18^2, 31^2 < 1000 < 32^2$ 이고

$x = y$ 일 때도 ㉠이 성립해야 하므로

$$18 \leq x \leq 31, 18 \leq y \leq 31$$

따라서 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수는 18, 19, 20, ..., 31이므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댓값은 $31 - 18 + 1 = 14$



[수리 나] - 4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1번

21.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_n\}$ 에 대하여 $\sum_{n=1}^{\infty} (3^n a_n - 2)$ 가 수렴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6a_n + 5 \cdot 4^{-n}}{a_n + 3^{-n}}$ 의 값을 구하시오. [3점]

[정답률] 60%

[정답] 4

[해결 길라잡이]

무한급수 $\sum_{n=1}^{\infty} (3^n a_n - 2)$ 가 수렴하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3^n a_n - 2) = 0$

$$\therefore \lim_{n \rightarrow \infty} 3^n a_n = 2$$

$$\lim_{n \rightarrow \infty} \frac{6a_n + 5 \cdot 4^{-n}}{a_n + 3^{-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6 \cdot 3^n a_n + 5 \left(\frac{3}{4}\right)^n}{3^n a_n + 1} = \frac{6 \cdot 2 + 0}{2 + 1} = 4$$

[다른 풀이]

무한급수 $\sum_{n=1}^{\infty} (3^n a_n - 2)$ 가 수렴하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3^n a_n - 2) = 0$

$$\therefore \lim_{n \rightarrow \infty} 3^n a_n = 2$$

$3^n a_n = b_n$ 이라 두면 $a_n = \frac{b_n}{3^n}$, $\lim_{n \rightarrow \infty} b_n = 2$

$$\lim_{n \rightarrow \infty} \frac{6a_n + 5 \cdot 4^{-n}}{a_n + 3^{-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frac{6b_n}{3^n} + \frac{5}{4^n}}{\frac{b_n}{3^n} + \frac{1}{3^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6b_n + 5 \left(\frac{3}{4}\right)^n}{b_n + 1} = \frac{6 \times 2 + 0}{2 + 1} = 4$$

[오답원인 및 오답피하기]

무한급수의 수렴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기존의 문항과 같은 수준의 착안과 발상을 요구하는 평이한 문항이다.

[학습대책]

무한수열 $\{a_n\}$ 과 무한급수 $\sum_{n=1}^{\infty} a_n$ 의 수렴, 발산의 관계

$\sum_{n=1}^{\infty} a_n$ 가 수렴하면 $\lim_{n \rightarrow \infty} a_n = 0$ 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대우명제 $\lim_{n \rightarrow \infty} a_n \neq 0$ 이면 $\sum_{n=1}^{\infty} a_n$ 는 발산함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문항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유사문제]

1. 인터넷수능 고득점 300제 151번 문제

수열 $\{a_n\}$ 에 대하여 $\sum_{n=1}^{\infty} \left(a_n - \frac{n}{n+1}\right)$ 이 수렴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lim_{n \rightarrow \infty} a_n = 1$

ㄴ. $\sum_{n=1}^{\infty} \left(a_n - \frac{2n}{n+1}\right)$ 은 수렴한다.

ㄷ. $\sum_{n=1}^{\infty} \left(a_n - \frac{n+2}{n+3}\right)$ 는 수렴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정답 ③

2. EBS수능특강 수학 I 78쪽 예제2

수열 $\{a_n\}$ 에 대하여 무한급수 $\sum_{n=1}^{\infty} \left(\frac{a_n}{3^n} - 2\right)$ 가 수렴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n - 4 \cdot 2^n}{a_n - 3^n}$ 의 값은?

-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1) 정답 ③

3. 수열 $\{a_n\}$ 에 대하여 $a_n + 2 \log n = \log(1 + 2 + 3 + \dots + n) + \log 3$ 이고, $\sum_{n=1}^{\infty} (10^{a_n} + b_n)$ 수렴할 때, $\lim_{n \rightarrow \infty} b_n$ 의 값은?

- ① $-\frac{3}{2}$ ② $-\frac{1}{2}$ ③ 0 ④ $\frac{1}{2}$ ⑤ $\frac{3}{2}$

1) 정답 ①

2) 해결 길라잡이

$$a_n + 2 \log n = \log(1 + 2 + 3 + \dots + n) + \log 3 \text{ 에서}$$

$$a_n = \log(1 + 2 + 3 + \dots + n) + \log 3 - 2 \log n$$

$$= \log \frac{n(n+1)}{2} + \log 3 - \log n^2 = \log \frac{3n(n+1)}{2n^2}$$

$$\therefore 10^{a_n} = \frac{3n(n+1)}{2n^2}$$

그런데 $\sum_{n=1}^{\infty} (10^{a_n} + b_n)$ 이 수렴하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10^{a_n} + b_n) = 0$$

$$\lim_{n \rightarrow \infty} 10^{a_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3n(n+1)}{2n^2} = \frac{3}{2} \text{ 이므로}$$

$$\therefore \lim_{n \rightarrow \infty} b_n = -\frac{3}{2}$$



[수리 나] - 5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3번

23. A,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중에서 2개씩 가입하려고 한다. A와 B가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가입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4점]

[정답률] 60%

[정답] 30

[해결 길라잡이]

A, B 두 사람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모든 방법의 수는 ${}_4C_2 \times {}_4C_2 = 36$ (가지)
 A와 B가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2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_4C_2 = 6$ (가지)
 $\therefore 36 - 6 = 30$

[다른 풀이]

- (i) A와 B가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없는 경우
 서로 다른 4개의 동아리 중에서 A가 2개의 동아리에 가입했을 때 B는 A가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2개의 동아리에 가입해야 하므로 경우의 수는 ${}_4C_2 \times {}_2C_2 = 6$ (가지)
- (ii) A와 B가 공통으로 가입하는 동아리가 1개인 경우
 공통으로 가입한 동아리의 경우의 수는 4가지이고, 공통으로 가입한 동아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동아리 중에서 A와 B가 서로 다른 동아리에 1개씩 가입하면 되므로
 경우의 수는 $4 \times ({}_3C_1 \times {}_2C_1) = 24$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6 + 24 = 30$ (가지)이다.

[오답원인 및 오답피하기]

문항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며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을 경우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경우의 수에서 지나치게 복잡

한 경우나누기보다는 크게 분류한 후 순열, 조합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이와 관련된 문항을 자주 풀어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학습대책] 순열과 조합/여사건 이용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제시되는 문제 상황과 제약 조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문제에 따라 여사건을 이용하면 의외로 쉽게 계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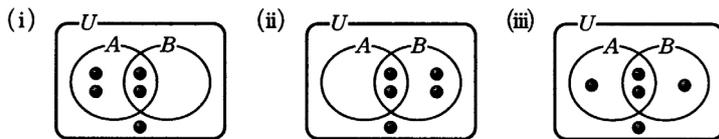
[유사문제]

1. 전체집합 $U = \{1, 2, 3, 4, 5\}$ 의 부분집합 중 $n(A \cup B) = 4$, $n(A \cap B) = 2$ 를 만족하는 집합 A, B 의 순서쌍 (A, B) 의 개수를 구하시오.

1) 정답 120

2) 해결 길라잡이

$n(A \cup B) = 4$, $n(A \cap B) = 2$ 이므로 다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각 경우에서 두 집합 A, B 의 원소를 정하는 방법의 수는

- (i) ${}_5C_4 \times {}_4C_2 = 5 \times 6 = 30$ (가지)
- (ii) ${}_5C_4 \times {}_4C_2 = 5 \times 6 = 30$ (가지)
- (iii) ${}_5C_3 \times {}_3C_2 \times {}_2C_1 = 10 \times 3 \times 2 = 60$ (가지)

(i), (ii), (iii)에 의하여 순서쌍 (A, B) 의 개수는

$$30 + 30 + 60 = 120 \text{ (개)}$$

2. 남녀 학생 15 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2 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가 84 이면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 ① 69 ② 77 ③ 84 ④ 90 ⑤ 95

1) 정답 ②

2) 해결 길라잡이

남학생의 수를 n 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_{15}C_2 - {}_n C_2 = 84$$

$$105 - \frac{n(n-1)}{2} = 84$$

$$n^2 - n - 42 = 0$$

$$(n + 6)(n - 7) = 0$$

$$\therefore n = 7$$

즉, 남학생의 수는 7명이므로 여학생의 수는 8명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_{15}C_2 - {}_8C_2 = 105 - 28 = 77 \text{ (가지)}$$



【수리 나】 - 6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30번

30. 0을 한 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111, 120, 210, 102, 201이다. 0을 한 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5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4점]

【정답률】 65%

【정답】 17

【해결 길라잡이】

(i) 0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1111 뿐이다.

(ii) 0을 한 개 사용한 경우

각 자리의 수의 합이 5이므로 1, 1, 1, 2, 0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개수를 구해 보면 위의 5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전체 경우에서 0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빼면 된다.

$$\therefore \frac{5!}{3!} - \frac{4!}{3!} = 16 \text{ (가지)}$$

따라서 구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 + 16 = 17$ (가지)

【오답 원인 및 오답 피하기】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한 경우의 수 문항으로 상대적으로 돋보이긴 하나 대체로 평이한 문항으로 자릿수 문제에서 0이 나올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0을 한 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111, 120, 210, 102, 201이다.”라는 예시를 잘 파악하면 의외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학습대책]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본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낯설고 복잡한 문제 상황이 주어져도 기본이 튼튼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절로 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EBS교재를 통해 연습하도록 한다.

[유사문제]

1. 6 개의 숫자 0, 2, 2, 4, 6, 6 을 일렬로 배열하여 여섯 자리의 숫자를 만들 때, 260462, 426062 와 같이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 ① 48 ② 54 ③ 72 ④ 96 ⑤ 102

1) 정답 ③

2) 해결 길라잡이

여섯 자리의 숫자의 개수는 $\frac{6!}{2!2!} - \frac{5!}{2!2!} = 180 - 30 = 150$ (개)

2, 2 가 이웃하는 것의 개수는 $\frac{5!}{2!} - \frac{4!}{2!} = 48$ (개)

6, 6 가 이웃하는 것의 개수는 $\frac{5!}{2!} - \frac{4!}{2!} = 48$ (개)

2, 2 가 이웃하고, 6, 6 이 이웃하는 것의 개수는 $4! - 3! = 18$ (개)

따라서 같은 숫자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150 - (48 + 48 - 18) = 72 \text{ (개)}$$

2. 어느 정보기관에서는 0, 1, 2 의 세 수를 각각 최대한 2 번씩 사용하여 5 개의 수를 나열한 암호를 만든다. 이 때, 0 이 2 번 연속으로 나열되는 암호는 의미 없는 암호라 할 때, 이 정보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암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1) 정답 66

2) 해결 길라잡이

0, 1, 2 를 이용하여 5 개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0, 1, 1, 2, 2 또는 0, 0, 1, 2, 2 또는 0, 0, 1, 1, 2 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다.

(i) 0, 1, 1, 2, 2 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frac{5!}{2!2!} = 30$ (가지)

(ii) 0, 0, 1, 2, 2 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frac{5!}{2!2!} = 30$ (가지)이고,

0, 0 이 이웃하는 방법의 수는 $\frac{4!}{2!} = 12$ (가지)

이므로 의미 있는 암호의 수는 $30 - 12 = 18$ (가지)

(iii) 0, 0, 1, 1, 2 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frac{5!}{2!2!} = 30$ (가지)이고,

0, 0 이 이웃하는 방법의 수는 $\frac{4!}{2!} = 12$ (가지)

이므로 의미 있는 암호의 수는 $30 - 12 = 18$ (가지)

(i), (ii), (iii)에 의하여 의미 있는 암호의 개수는 $30 + 18 + 18 = 66$ (가지)이다.

3. 0, 1, 2 의 3 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5 자리의 짝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100 번째 수는?

- ① 21112 ② 21122 ③ 22012 ④ 22102 ⑤ 22112

1) 정답 ⑤

2) 해결 길라잡이

1□□□0 또는 1□□□2 꼴의 짝수의 개수는 $2 \times 3^3 = 54$ (개)

20□□0 또는 20□□2 꼴의 짝수의 개수는 $2 \times 3^2 = 18$ (개)

21□□0 또는 21□□2 꼴의 짝수의 개수는 $2 \times 3^2 = 18$ (개)

220□0 또는 220□2 꼴의 짝수의 개수는 $2 \times 3 = 6$ (개)

이 때, $54 + 18 + 18 + 6 = 96$ 이므로

구하는 100 번째 수는 221□□ 꼴의 짝수 중에서 4 번째 수이다.

따라서, 22100, 22102, 22110, 22112, ... 에서 구하는 수는 22112 이다.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5번 (영어듣기)

5.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액을 고르시오. [3점]

- ① \$128 ② \$130 ③ \$140 ④ \$160 ⑤ \$164

W: Excuse me. I'd like to take a computer graphics course.

M: OK. We have a beginner's course, an intermediate course, and an advanced course.

W: I'm a beginner. How much is the class per month?

M: It depends. For the regular course, it's \$60, and for the intensive course, it's \$80.

W: I'd like to take the regular course.

M: OK. If you pay for more than three months altogether, you can get a 10 percent discount off the total.

W: Well, I'll just pay for one month for now. And I'd also like to register my sister for the same course.

M: No problem.

W: Good. I'll pay for her, too. Do I have to buy a textbook?

M: Yes. Textbooks are \$10 each.

W: I see. I'll buy two textbooks.

M: All right. Please fill out these forms.

[정답] ③

[오답률] 47.4%

[해결열쇠]

☞ 본인과 자매를 위해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수강 신청하고 있다. 아래 표시된 부분의 내용처럼 beginner이면서 regular course를 원하며 (60\$) 1달만 신청하고 자 하므로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자매 것도 같은 것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60\$ \times 2 = 120\$$ 이다. 2권의 교재 값($10\$ \times 2 = 20\$$)을 더 하면 140\$가 된다.

[주요 포인트]

W: **I'm a beginner.** How much is the class per month?

M: It depends. For the regular course, it's \$60, and for the intensive course, it's \$80.

W: I'd like to take **the regular course.**

M: OK. If you pay for more than three months altogether, you can get a 10 percent discount off the total.

W: Well, **I'll just pay for one month for now.** And I'd also like to **register my sister for the same course.**

M: No problem.

W: Good. I'll pay for her, too. Do I have to buy a textbook?

M: Yes. **Textbooks are \$10 each.**

W: I see. I'll buy **two textbooks.**

[주요 어휘 및 표현]

intermediate 중급 / advanced 고급

intensive 집중적인 / fill out forms 신청서(지원서)를 작성하다

[해결 길라잡이]

숫자를 묻는 문제는 120%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메모를 해야 한다. 위의 문제 같으면 60, 80을 쓴 후에 80 위에 ×, 3개월 이상 10% 할인, 이라고 쓴 후 다시 10%할인 위에 ×, 마지막으로 (60*2) + (10*2)와 같은 수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외국어] - 2****[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1번**

2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visiting a remote village.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 As they sat to eat, all eyes were on their noble guest. Everyone looked at (A) [**what / how**] the man held his chopsticks, so that they could imitate him. But then, by an unfortunate accident,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 he (B) [**placed / was placed**]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 and onto his neighbor's lap.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 and keep (C) [**him / himself**] from any embarrassment,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began to fl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

- | | (A) | (B) | (C) |
|---|------|------------|---------|
| ① | what | placed | him |
| ② | what | was placed | himself |
| ③ | how | placed | him |
| ④ | how | placed | himself |
| ⑤ | how | was placed | himself |

[정답] 정답 ③**[오답률]** 60.60%

[해결 열쇠]

- (A) 전치사 at의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는 what이나 how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의문사 뒤의 문장 형태는 what(대명사)+ 불완전한 문장, how(부사) +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한다. (A) 뒤의 the man held his chopsticks는 주어와 목적어가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이므로 how가 답이 된다.
- (B) 주어진 동사 place(~을 두다)는 타동사이므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능동이나 수동이나를 묻는 문제이다. place 뒤에 excess pressure 라는 목적어가 와 있으므로 목적어를 가지는 능동태가 맞다.
- (C) 재귀대명사의 쓰임을 묻는 문제이다. 재귀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물일 때 쓸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keep동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all the villagers이고 그 목적어는 their guest로 서로 다른 대상이므로 재귀대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 없다.

[해 석]

옛날 일본의 한 전설은 완벽한 예법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어떻게 외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지를 전해 준다. 그를 지켜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마을 사람들은 연회를 준비 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앉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그 귀한 손님에게로 향했다. 그 완벽한 예법의 남자가 젓가락을 쥐자,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젓가락을 쥐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운 없이 우연하게도, 그 완벽한 예법의 남자가 미끄러운 두부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젓가락에 아주 적게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두부 조각이 공중으로 날아가 옆 사람의 무릎에 떨어졌다. 순간 놀랐던 연회장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손님의 완벽함에 대한 신화를 지키고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두부를 서로의 무릎에 던지기 시작했다.

[주요 어휘 및 표현]

legend 전설, 설화	/	renown for~로 명성이 있는
flawless 흠 없는; 완벽[완전]한.	/	manners (pl.) 예절
honor 존경[존중]하다	/	as well as .와 마찬가지로; ~뿐 아니라
observe 관찰하다	/	banquet 연회(특히 정식의), 향연
imitate 모방하다, 흉내내다	/	slippery (물건이) 미끄러리는, 미끄러워 붙잡기 힘든
slice (베어낸) 한 조각	/	tofu 두부
place 두다, 놓다	/	tiny 작은, 조그마한.
excess 지나친	/	propel 추진하다, 몰아대다.
lap 무릎	/	preserve 보전하다, 유지하다
perfection 완벽	/	embarrassment 당황, 곤혹
	/	fling 던지다

[해결 길라잡이]

1. 수능에 출제되는 어법문제는 다른 문제 유형에 비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출제되는 어법 항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풀이를 통해서 주요 어법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어법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대개는 그 문장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문 전체를 독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므로 해결해야 할 어법이 들어있는 문장의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어] - 3****[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27번(빈칸 추론 문제)**

2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y don't we think differently more often? The reason is that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for most of what we do. For example,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when we are driving on the freeway, or riding in an elevator, or waiting in line at a grocery store. _____ when it comes to the business of living. For most of our activities, these routines are indispensable. Without them, our lives would be in chaos, and we would not get much accomplished. If you got up this morning and started contemplating the shape of your toothbrush or questioning the meaning of toast, you probably would not make it to work.

- ① We are creatures of habit
- ② Social restrictions do not apply
- ③ We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 ④ Personal accomplishments do matter
- ⑤ Creative thinking is highly recommended

[정답] ①

[오답률] 79.0%

[해결열쇠]

☞ 빈 칸 앞 부분에서 what we do(우리가 늘 하는 일)의 예를 들며 창의적일 필요

가 없다고(주제+요지) 했고, 빈 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에서 these routines는 없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무질서해질 것이라며 예를 든 것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해 석]

왜 우리는 종종 다른 시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것에 대하여 창의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나 엘리베이터에 탈 때, 식료품점에서 줄을 설 때는 창의적일 필요가 없다. 생활에서의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다. 대부분의 우리 활동에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규칙은 불가피하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혼돈에 빠질 것이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내지 못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칫솔모양에 대해 생각하거나 토스트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아마도 직장에 출근하지 못 할 것이다.

[주요 어휘 및 표현]

when it comes to~에 관해서 말하자면 / routine 일상의 과정
 indispensable 절대 필요한 / chaos 혼돈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 contemplate 잘 생각하다.



[외국어] - 4

[분석문항] 6월 모의평가 29번(빈칸 추론 문제)

2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Unlike the novel, short story, or play, film is not handy to study; it cannot be effectively frozen on the printed page. The novel and short story are relatively easy to study because they are written to be read. The stage play is slightly more difficult to study because it is written to be performed. But plays are printed, and because they rely heavily on the spoken word, imaginative readers can create at least a pale imitation of the experience they might have watching a performance on stage. This cannot be said of the screenplay, for a film depends greatly on visual and other nonverbal elements that are not easily expressed in writing. The screenplay requires so much filling in by our imagination that we cannot really approximate the experience of a film by reading a screenplay, and reading a screenplay is worthwhile only if we have already seen the film. Thus, most screenplays _____. [3점]

- ① rely more on the spoken word than stage plays
- ② attract a much wider readership than short stories
- ③ do share many elements with other literary genres
- ④ are popular though it requires extra effort to study them
- ⑤ are published not to be read but rather to be remembered

[정 답] ⑤

[오답률] 75.2%

[해결열쇠]

☞ 빈 칸을 포함한 문장이 Thus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결론을 추론하라는 얘기이다. 직전 문장과 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오직 영화를 본 경우에만 영화대본은 읽을 가치가 있다”는 내용과 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⑤ “영화 대본은 읽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출간된다” 이다.

[해석]

소설, 단편소설, 연극과는 다르게 영화는 연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는 인쇄물로 효과적으로 응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설과 단편소설은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읽기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연극 대본은 약간 더 공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대에서 연기하도록 쓰여졌기 때문이다. 상상력이 풍부한 독자들은 그들이 무대에서의 연기를 본다면 얻게 될 지도 모르는 경험과 적어도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은 연상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영화대본에서는 말해 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화는 쉽게 글로 나타낼 수 없는 시각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영화대본은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워 넣을 것을 요구해서 우리는 대본만을 읽음으로써 영화를 볼 때 얻는 경험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본을 읽는 것은 오직 영화를 이미 봤을 때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대본은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출판된다.

[주요 어휘 및 표현]

handy 편리한	/	freeze (장면 따위를) 멈추다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	pale 희미한
nonverbal 비언어적인	/	approximate 짐작하다
worthwhile ---할 가치가 있는		

[해결 길라잡이]

1. 2010년 6월 모의수능의 빈칸 추론 문제는 모두 8문제로 이전에 비해 2-3문제가 늘어났다.

- 빈칸추론 문제의 오답률은 23번 58.9%, 24번 59.3%, 25번 65.9%, 26번 71.6%, 27번 79.0%, 28번 69.0%, 29번 75.2%, 49번(장문) 70.1%로 오답률 1-5위를 차지하는 문항이 모두 들어 있다.
- 빈칸추론 문제는 글의 논리를 묻는 문제이므로 다른 유형과는 달리 정확한 독해가 요구되는 문항이다. 따라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꼼꼼하게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글의 주제, 전개 방식, 결론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빈칸추론 문제는 빈칸의 위치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빈칸이 앞부분에 있는 경우는 주제를 추론하는 경우이고, 빈칸이 마지막에 있을 때는 요지, 결론 추론이 대부분이다. 빈칸이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는 앞, 뒤 글의 문맥의 연결을 이어주는 단어나 내용을 묻는 경우이다.



[외국어] - 5

[분석 문항] 6월 모의평가 45번 (요약문 완성)

45.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someone were to say “Life is a cup of coffee,” it is unlikely that you would have heard this expression before. But its novelty forces you to think about its meaning. The vehicle used, a cup of coffee, is a common object of everyday life and therefore easily perceivable as a source for thinking about that life. The metaphor compels you to start thinking of life in terms of the kinds of physical, social, and other attributes that are associated with a cup of coffee. For this metaphor to gain currency, however, it must capture the fancy of many other people for a period of time. Then and only then will its novelty have become worn out and will it become the basis for a new conceptual metaphor: life is a drinking substance. After that, expressions such as “life is a cup of tea, life is a bottle of beer, life is a glass of milk,” will become similarly understandable as offer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life.

→ A new metaphor initially makes people ____ (A) ____ its meaning; if it loses its novelty later by gaining ____ (B) ____, it will give birth to similar types of metaphorical expressions.

(A) (B)

- ① reflect on …… sincerity
- ② reflect on …… popularity
- ③ depart from …… popularity
- ④ depart from …… morality
- ⑤ expand on …… sincerity

[정답] 정답 ②

[오답률] 63.4%

[해결열쇠]

☞ But its novelty forces you to think about its meaning.에서 think about의 동의어 reflect on을 찾아라. Then and only then will its novelty have become worn out(그 새로움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을 때)에서 popularity(대중성)를 찾아라.

[해석]

누군가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도 같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문구의 신선함은 당신을 한번 쯤 이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은유의 매체는 커피한잔인데,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흔한 물건이므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은유는 너의 인생에 있어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 커피 한잔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은유가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은유의 신선함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개념의 은유가 탄생하는 것이다; 인생은 음료다. 그 이후에, “인생은 한잔의 차이다, 인생은 한 잔의 맥주이다, 인생은 한 잔의 우유이다”와 같은 표현들이 인생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면서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주요 어휘 및 표현]

novelty	신기함. 새로운 것	/	perceivable	지각할 수 있는
metaphor	은유	/	compel	억지로 ---시키다
attribute	특성. 상징	/	capture	붙잡다. 획득하다
basis	기초. 기본원리	/	conceptual	개념상의
initially	처음에	/	give birth to	~을 낳다, ~을 생겨나게 하다
sincerity	성실, 진실	/	popularity	인기

[해결 길라잡이]

1. 요약문 완성하기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요약해서 영어로 표현하는 쓰기 문제이다.
2. 요지를 묻는 문제와 같은 요령으로 독해를 해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영어로 표현한 것을 찾으면 된다.
3. 주의할 것은 지문에 사용한 단어를 요약문에서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문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가장 가까운 어휘들을 고르면 된다



【사회탐구】 - 윤리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5번

5.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대저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의 이(理)가 있으니, 그 ‘이’를 궁구하여 밝히는 것이 바로 격물(格物)이다. 책을 읽어서 도의를 강구하여 밝히고, 혹은 사물에 응하여 그 마땅함과 그름을 처리하는 것과 같은 것이 모두 궁리(窮理)이다.

을 : 이(理)는 마음(心)의 이치이다. ‘이’가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孝)가 되고,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忠)이 된다. 천변만화(千變萬化)하여 끝이 없을지라도 어느 하나 나의 한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다.

- ① 갑은 ‘앎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참된 앎에 도달한다고 본다.
- ③ 갑은 마음(心)과 이치(理)를 하나로, 을은 둘로 나누어 본다.
- ④ 갑은 도덕적 수양으로, 을은 지식의 확충으로 성인이 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⑤

[출제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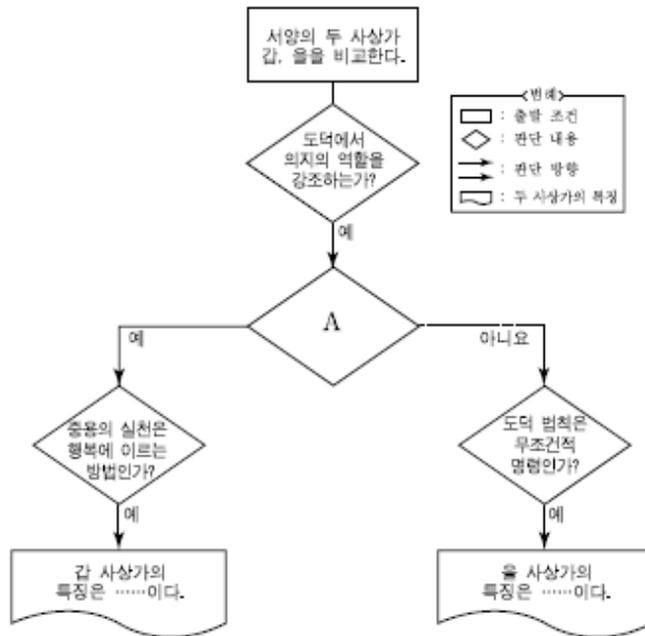
- EBS (p36, p38) 수능특강 교재를 활용한 문제로
- 두 개의 문제에서 지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통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며
- 원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내용 분석]

-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유교윤리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성리학과 양명학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여 성인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 하지만 성리학은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면서 마음과 본성을 나누어 파악하고 있고, 양명학은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면서 마음과 본성이 구분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 특히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성리학은 학문탐구를 통해 이치를 궁구해 해야 함을, 양명학은 본래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를 극진하게 이루는 것을 격물치지라 해석하였다.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6번

6. 갑, 을 두 사상가를 비교한 그림에서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덕적 덕은 타고난 성품인가?
- ② 습관은 도덕성 형성에 필요한가?
- ③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중시하는가?
- ④ 의무는 실천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 ⑤ 옳고 그름은 행위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는가?

[정답] ②

[출제 의도]

- 2010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문제
- 또한 2010년 수능에서 출제된 아리스토텔레스와 흄의 사상을 비교하는 순서도 문제 유형과 같은 문제로 기출문제 점검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문제
- 순서도 유형의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유형으로 사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내용 분석]

-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보를 잇는 사상가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고 선의지를 강조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형성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과 실천 및 습관화의 의지를 중시하면서 도덕적 덕(품성의 덕)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함을 강조하는 반면
- 칸트는 도덕적 덕은 선験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인간은 실천이성의 명령과 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의무임을 강조한다.
- 이 문제에서 습관이 도덕성 형성에 필요함을 강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과 도덕 판단에서 선験적 요인,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강조한 사람이 칸트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 두자.
-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임을 강조하지만 칸트는 “의무가 문제일 때에는 행복을 전혀 돌보지 않아야 한다.”며 행복주의를 비판하며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음도 알아 두자.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17번

17.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갑 : 세력과 지위가 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재화가 넉넉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다투게 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진다. 선왕은 그 혼란스러움을 싫어 하였기 때문에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직분을 나누었다.
 을 : 신하가 임금,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천하의 상도(常道)이니 바뀌서는 안 된다.(중략).... 상도를 폐지하고 현자를 숭상하면 혼란스럽게 되고, 법(法)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등용하면 위태롭게 된다.

【보 기】

- ㄱ. 갑은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부정한다.
- ㄴ. 을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예악(禮樂)을 강조한다.
- ㄷ. 갑은 인의(仁義)에 의한 교화를 긍정하나, 을은 부정한다.
- ㄹ. 갑, 을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이기적으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 답] ③

[출제 의도]

- 순자와 한비자의 사상을 비교한 문제이다.
- 제시문의 내용뿐 아니라 보기 안의 각 사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임

- 올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9번 문제와 같은 내용이며, EBS 수능특강 p21문제 지문을 활용한 문제로 기출문제와 EBS교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문제임

[내용 분석]

- 제시문에서 갑은 인간의 욕망은 높고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 다투게 됨으로 사회가 혼란해 지기에 예의를 통한 교화를 강조하는 순자에 대한 사상이고, 을은 법률과 술수를 강조하는 한비자의 입장이다.
- 순자와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도덕적 교화를 일으켜야함(化性起僞)을 강조하고 한비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용, 조정하는 법, 세, 술을 강조하고 있다.
- 보기에서 준비친소의 차별을 부정하는 입장은 묵자이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예악을 강조한 사람은 공자이다.
-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기는 하나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은 유학사상가로서 인의(仁義)에 의한 도덕적 교화를 강조함을 잊지 말자.

[유의사항 및 학습전략]

- 전체 문항의 80% 이상이 'Ⅱ. 윤리의 흐름과 특징'에서 출제되고 있다. 서양사상이 7~8문제, 동양사상이 5~6문제, 한국사상이 3~4정도 평균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 출제 유형에서 순서도 문제, 사상가들의 가상 토론 문제, 수행평가지 유형, 사상에 대한 개념을 유추하는 문제, 논술형 발문의 문제, 사상을 비교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 교과서 밖 제시문 중 다수는 그동안의 기출문제와 EBS 수능 교재에서 나온 제시문과 유사하거나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시문들을 충분히 읽고 이를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공부해 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 올해는 특히 **EBS 수능 교재를 활용한** 문제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교과서를 통한 개념학습과 EBS 수능 교재와 기출문제 확인을 필수적으로 점검해 보아야겠다.

[2011 수능대비 윤리 학습전략]

- 6월 평가원 문제에서 **EBS 수능교재**를 활용하여 나온 문제가 다수 있었다. 2번, 3번, 5번, 8번, 18번 문제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14번 문제는 필수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16번 문제는 내용은 같으나 유형을 바꿔 출제하였다. 그 외 문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선택지를 활용하거나 문제유형을 활용한 문제들이 있었다.
- 결과적으로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EBS 수능교재** 안의 개념과 필수자료 정리 부분, 문제의 제시문에 나타난 사상을 잘 정리해 두어야겠다. 하지만 **EBS교재도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EBS수능교재에 앞서

-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충실히 파악해 두자.
- 기출문제를 교과서 개념과 연계하여 정리할 때 답을 맞췄더라도 선택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상관련 문제는 **선택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악**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 나가자.
 - 최근에는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는 사상가를 연계하거나 같은 계통 안에서 비슷한 사상가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계통과 흐름 속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학습해 두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시사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과에 나오는 개념과 시사 내용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정리해 두자



【사회탐구】 - 국사

[분석문항 1] 6월 모의평가 2번

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한국사 신문 ○○○○년 ○월 ○일

특집 조선의 문물 제도를 완성한 ○○임금

왕은 신진 세력을 중용하여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꾀하였다. 또한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을 제시하고 문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table border="0">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정치</td> <td>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경제</td> <td>직전법의 수조 방식을 바꾸고 요역 동원 기준을 제정하였다.</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문화</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가)</td> </tr> </table>	정치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경제	직전법의 수조 방식을 바꾸고 요역 동원 기준을 제정하였다.	문화	(가)
정치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경제	직전법의 수조 방식을 바꾸고 요역 동원 기준을 제정하였다.						
문화	(가)						

- ①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고금석림을 편찬하였다.
- ②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등을 정리한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 ③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④ 길·가·빈·군·홍의 국가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 ⑤ 전국 군현의 연혁과 지세, 인물, 산물 등을 정리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정답] ①

[주제 및 출제의도]

조선 초기 성종의 업적과 유교적 정치이념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아울러 조선 초기 체제정비기와 관련된 임금인 태종, 세조, 세종, 성종의 업적을 비교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해설 및 내용분석]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임금은 조선의 성종이다. 성종은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이라는 신진세력을 중용하였고, 경국대전을 반포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홍문관을 두어 경연을 활성화하였으며,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의 수조 방식을 관수관급제로 바꾸었다.

유교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통치와 교화의 수단으로 중시하였는데, 성종 때에 국조오례의와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①고금석림은 정조 때 이의봉이 우리의 방언과 해외 언어를 정리한 책이다.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6번

6.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대사헌 권민수가 “저화의 법은 근래에는 폐지하여 쓰지 않고 쌀, 무명, 삼베 등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 좌의정 남곤이 “근래에 장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여러 도로 확산되어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나오니 폐단이 많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보 기】

- ㄱ. 보부상이 농산물,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 ㄴ. 대도시의 관영 상점에서는 공장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였다.
- ㄷ. 정부에서는 농민의 농토이탈을 염려하여 시장을 규제하였다.
- ㄹ. 경영 전문가가 물주로부터 자본을 제공받아 은광을 개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 답] ②

[주제 및 출제의도]

조선전기 상업 활동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고려시대와 조선전기·후기 상업활동을 비교하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해설 및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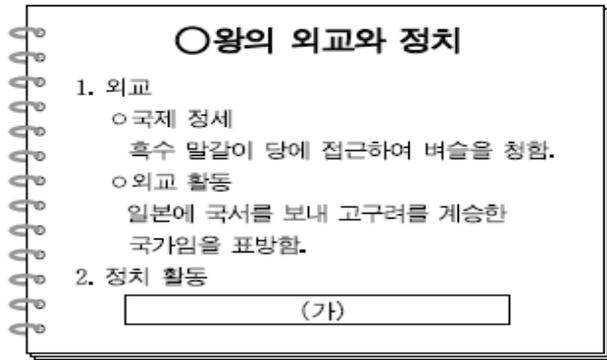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화의 법은 근래에는 폐지하여 쓰지 않고 쌀, 무명, 삼베 등이 통용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아직 화폐의 유통이 부진함을 알 수 있고, “근래에 장문이 열리기 시작하였는데 지금 여러 도로 확산되어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나오니 폐단이 많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자료

와 관련된 시기는 16세기 중엽임을 알 수 있다.

보부상은 장사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으며, 당시 정부는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하여 장사의 발전을 억제하였다. 나과 르은 각각 고려시대와 조선 후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문항 3] 6월 모의평가 7번

7. 다음 역사 수업 노트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②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신라와 국경을 접하였다.
- ③ 전성기를 맞이하여 중국인들이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 ④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겨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정 답] ⑤

[주제 및 출제의도]

발해 무왕의 업적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발해사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 주제이다. 따라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점과 무왕, 문왕, 선왕의 업적은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해설 및 내용분석]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과 격돌하였다.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 ①, ②, ③은 선왕과 관련이 있으며, ④는 문왕때의 사실이다.

[분석문항 4] 6월 모의평가 16번

16. 다음 정책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지금 여러 궁원과 세력가들이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무엇으로써 국용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상적창, 도염원 및 여러 궁원이 가진 염분은 모두 관청에 속하게 하라. 소금을 쓰려는 사람은 모두 의염창 및 관할 관청에서 사도록 하며,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서로 사고 파는 자는 그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

- ① 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 ② 이암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다.
- ③ 발농사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
- ④ 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상행위를 하였다.
- ⑤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 동전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다.

[정답] ②

[주제 및 출제의도]

고려 후기 소금 전매제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고려시대 경제 관련 사실들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해설 및 내용분석]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서 “사사로이 소금을 생산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 (중략)… 염분은 모두 관청에 속하게 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국가가 소금 전매제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고려 후기에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①철제 농기구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경부터 이며, ③발농사에서 조, 보리, 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던 시기는 조선전기이다. ④포구를 거점으로 선상, 객주, 여각 등이 상행위를 하였던 시기는 조선 후기이며, ⑤삼한통보, 해동통보 등 동전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하였던 시기는 고려 전기 숙종 때의 상황이다. 농상집요는 13세기 원에서 편찬한 농서로 고려 후기에 이암이 수입하였다.

[학습대책 종합]

위에서 다루었던 문항들은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했던 문항들이다. 중전의 수능 문제와 비교하면 특별히 새로운 문제 유형은 볼 수 없었으며, 시대별, 분야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문제 전체의 난이도 보다는 특정 단원과 관련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 특정 단원의 공부 여부로 수능 등급이 결정되었다.

평가원에서 미리 공지한 것처럼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EBS 수능 교재(수능특강)의

문제 중 10문제(50%)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앞으로 수능 문제과 EBS 교재의 연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때문에 EBS 10주 완성과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문제를 풀고 공부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EBS 교재가 올해 수능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EBS교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문제는 일반 참고서에도 다 있기 때문에 EBS 교재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수험생이 반드시 챙겨봐야 할 교재는 바로 국사 교과서이다.

교과서 서술 내용을 읽으면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풍부히 익혀둘 필요가 있다. 역사는 시간을 가장 중시하는 학문이다. 수능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시대상을 추론해 낼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교과서와 수능문제를 동시에 보면서 문제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상을 추론하고 교과서에 기록된 사실과 연계시키는 학습을 해야 한다.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도 중요하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4문제 정도가 관련성이 있었다. 근현대사는 단독 주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근대와 근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양쪽 시기를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정치사 중심의 기존 출제 방식도 변화하여, 사회사·경제사·문화사까지 출제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적어도 국사 교과서 안의 서술 내용만큼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기출문제 분석이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기출문제를 여러번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풀다 보면 문제 분석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지난 3년 동안에 치러졌던 수능기출문제와 매년 6월, 9월에 보았던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각 문항별 주제를 찾아내어 그 주제와 관련된 학습내용들을 정리해 보거나 점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능준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수능문제의 구성 요소는 발문, 자료와 보기, 선지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이용하여 문제의 선지형태를 자료로 활용하고, 자료와 보기를 선지형태로 변형하면서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도 재구성해보며 학습 정리를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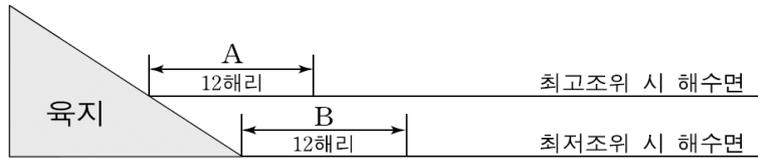


【사회탐구】 - 한국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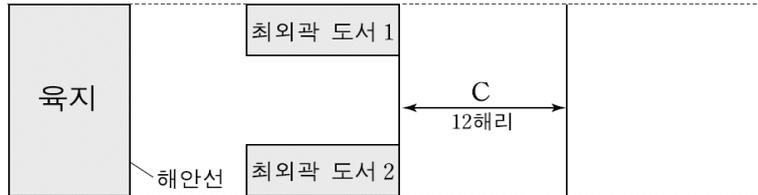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2번(고난도 문제)

2. (가), (나)는 서로 다른 영해 설정 기준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



【보 기】

ㄱ. (가)에서 영해는 B이다.
 ㄴ. 대한 해협은 (가)를 적용하되, 3해리로 한다.
 ㄷ. (나)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C를 제외한다.
 ㄹ. (나)에서 최외곽 도서의 사례로 울릉도와 독도를 들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출제의도]

- 영해의 의미와 영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
-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에 대한 이해.

[내용분석]

이 문항은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먼저 (가)그림이 통상기선을, (나)그림이 직선기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ㄱ)은 영해의 기준이 되는 해안선을 설명한 것으로 최저조위면(=최저간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물이 바다쪽으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영토가 가장 확대되어 가장 넓은 영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ㄴ)에서는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기선을 적용하고, 부산과 쓰시마섬 사이의 대한 해협은 거리가 대략 23해리로, 우리나라 3해리, 일본 3해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해양법상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해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ㄷ)은 많은 학생들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라고 공부를 하면서 영해가 포함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

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라 하고,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겹치는 12해리를 제외한 188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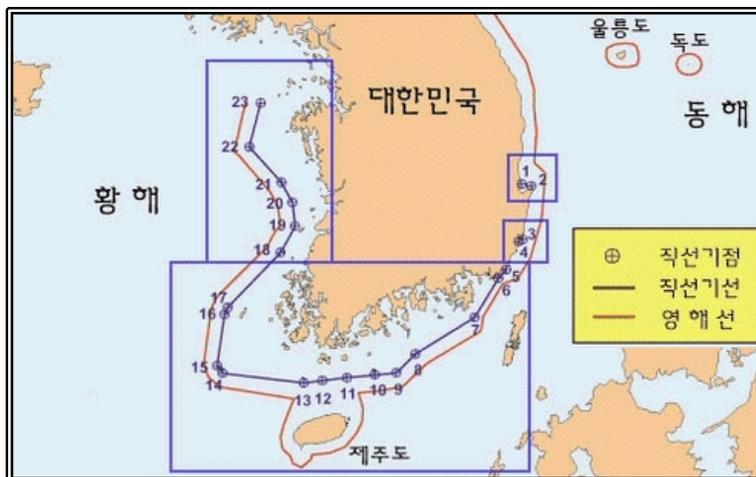
보기(㉔)에서 울릉도, 독도 뿐만 아니라 동해안, 제주도 역시 통상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에 해당됩니다. 통상기선은 그림(㉔)의 B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관련유의사항]

- 간척사업과 영토, 영해, 영공의 넓이 확대에 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직선기선의 기준이 되는 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 타국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가지는 무해통항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 한일 어업 협정의 결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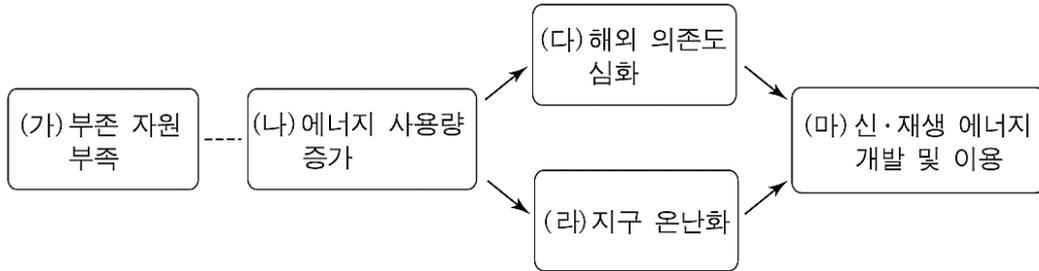
[보충학습]

-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른 권리** : 1.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2.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 3.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4. 해양법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그 밖의 권리.
-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 무해통항이란 연안국의 평화와 질서 또는 안전을 해하지 않으며 단순히 영해를 횡단하는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영해를 통과하는 항행을 말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9조 2항에서 무해통항권에 위배되는 항해활동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는 무력사용, 항공기의 선상발진, 어로활동, 무기를 사용한 훈련 또는 연습, 연안국에 유해한 정보수집 및 선전행위, 연안국의 법력에 위배되는 물품의 반입 및 사람의 승하선 등으로, 이러한 유해통항 행위에 대해서만 연안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군함 및 잠수함에 대해서는 통항의 허가권을 행사하거나 수면부상 통과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4번(기본 문제)

4. 그림은 우리나라의 자원 문제와 대책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석탄 중 역청탄은 전량 수입되고 있다.
- ② (나) -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 중 석유의 비중이 가장 크다.
- ③ (다) -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자원 외교가 강화되고 있다.
- ④ (라) -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이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이다.
- ⑤ (마)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가 도입되고 있다.

[정 답] ⑤

[출제의도]

-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의 총체적인 내용을 이해.
-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에 대한 이해

[내용 분석]

- (가)와 관련하여 석탄 중에서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역청탄은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지 않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수입합니다. 지난해 그 양은 9300만t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 (나), (다)와 관련하여 소비되는 에너지 자원 중 석유의 비중이 가장 크며, 세계 7위의 소비량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 확보하고 있는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0.09%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외교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 (라)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영어로는 Emissions trading이라 부르며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등 총 3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 (마)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풍력과 태양열, 폐기물, 수력, 조력, 지열 등을 이용해 전기나 열을 생산해 냅니다.

[관련유의사항]

-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발전양식에 따른 소비량’ 등 묻고자 하는 내용의 개념

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양식이 건설 및 가동되고 있는지 지도상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충학습]

-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 :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말로 대체에너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 활용하는 에너지로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수소에너지를 들 수 있고, 재생 에너지는 자연의 순환원리에 따라 끝없이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태양열·태양광발전·바이오·풍력·수력·지열·해양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부터 태양광을 이용한 상업용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의 동양태양광(24MW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추적형 태양광 발전소(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 돌아가는 형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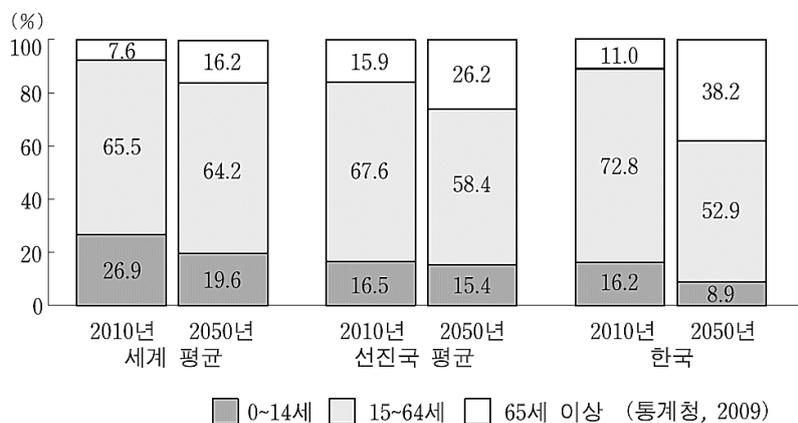
2010년 말 완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서해안의 가로림만에는 시화호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 520MW급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빠른 물살을 이용해 물속의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국내 첫 조류발전소는 5월 전남 진도군에 만들어진 울돌목 조류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으로 회전 날개를 돌려 전기를 얻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의 강원풍력(총 98MW)이 가장 큰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12번(기본 문제)

- 12. 그래프는 인구 구조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변화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위 연령은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다.
- ② 고령화 지수는 선진국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다.
- ③ 합계 출산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다.
- ④ 총 부양비는 세계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세계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다.

[정답] ⑤

[출제의도]

- 인구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이해
-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 이해

[내용 분석]

- 주어진 자료에서 2010년 대비 2050년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세는 세계 평균이나 선진국 평균에 비해서 노년층의 비율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으로 중위 연령이나, 고령화 지수값은 선진국 보다 높아지고, 총부양비 역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층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2010년 16.2%에서 2050년 8.9%로 급감한 반면 선진국은 16.5%에서 15.4%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합계출산율 역시 선진국보다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비도 세계평균이나 선진국에 비해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구구조, 부양비별	2010년	2050년
총인구 (명)	48,874,539 (명)	42,342,769 (명)
남자 (명)	24,540,316 (명)	20,734,181 (명)
여자 (명)	24,334,223 (명)	21,608,588 (명)
성비 (여자백명당남자수)	100.8	96.0
인구성장률 (%)	0.26 (%)	-1.07 (%)
0-14세 (명)	7,906,908 (명)	3,763,081 (명)
15-64세 (명)	35,610,778 (명)	22,423,931 (명)
65세 이상 (명)	5,356,853 (명)	16,155,757 (명)
인구구성비:0-14세 (%)	16.2 (%)	8.9 (%)
인구구성비:15-64세 (%)	72.9 (%)	53.0 (%)
인구구성비:65세 이상 (%)	11.0 (%)	38.2 (%)
총부양비	37.2 (백명당)	88.8 (백명당)
유소년부양비	22.2 (백명당)	16.8 (백명당)
노년부양비	15.0 (백명당)	72.0 (백명당)
노령화지수	67.7 (백명당)	429.3 (백명당)
중위연령 (세)	38.0 (세)	56.7 (세)
중위연령-남자 (세)	36.9 (세)	54.9 (세)
중위연령-여자 (세)	39.0 (세)	58.8 (세)
평균연령 (세)	38.0 (세)	53.4 (세)
평균연령-남자 (세)	36.8 (세)	51.7 (세)
평균연령-여자 (세)	39.2 (세)	55.0 (세)

[관련유의사항]

- 출생률과 사망률 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층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청장년층의 감소를 가져옴을 이해합니다.

[보충학습]

- **평균연령(Mean Age)** : 우리나라 총인구에 대한 평균연령
- **중위연령(Median Age)** :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부양비** : 총부양비는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을 말하며, 유소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의 비를,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를 말한다.
 -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령화지수(Aged-child Ratio)**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
 -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 ÷ 0~14세인구) × 100
- **추계인구**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조성법을 이용하여 추계한 인구. 추계인구는 기준일이 7월 1일 연앙(年央)인구로, 과거인구에 대한 확정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향후 인구변동(출생, 사망, 국제이동)을 고려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s)로 구분합니다.
- **기대여명과 기대수명** : 특정연령에서 주어진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생존할 평균기간(연)수. 출생당시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 속도가 선진국이 경험한 속도보다 빠르고,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젊은 여성층의 미혼율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2003년 108.7로 불균형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세계아 이상의 경우는 높은 수준이고, 2005년 통계로 총인구의 4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탐구] - 한국근현대사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6번

6. 다음 가상 일기에 등장할 수 있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월 ○일

낮선 서양인과 마주치는 일이 점차 잦아졌다. 내가 처음 서양인을 만난 것은 2년 전 광혜원의 개원식에서였다. 그리고 오늘 궁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서양인을 보았다.

경복궁 내 새 건물의 앞뜰에는 등롱(燈籠)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고, 서양인이 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를 움직이니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러자 가지 모양의 유리에서 휘황한 불빛이 나와 대낮같이 밝아졌다. 나라 안에서 처음 보는 광경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등롱 : 손잡이가 있어 들고 다니거나 걸어 두는 등

- ① 백동화 환수 조치에 반발하는 상인
- ②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 ③ 독립 신문에 실린 광고를 읽는 독자
- ④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주관하는 신부
- ⑤ 한성에서 인천까지 기차로 출장 가는 관리

[정답] ②

[주제 및 출제의도]

근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근대문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실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다.

[해설 및 내용분석]

문제의 자료에서 광혜원의 개원식이 2년 전이고, 경복궁 내에 전등이 가설되는 시기임으로 1887년경에 쓰여진 가상 일기라고 할 수 있다.

①백동화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시기는 1905년 화폐정리 사업 때이며, ②육영공원은 1886년에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다. ③독립신문은 1896년에 발간되었고, ④명동성당은 1898년도에 건립되었으며, ⑤의 경인선은 1899년에 개통되었다.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13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조선 내에서 전민족적인 정치 운동을 하도록 신생면(新生面)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 (나)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 (다) 창립 당시는 소위 민족 단일의 정치 투쟁 단체로 본회가 필요했지만 최근 그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방향을 전환하려는 민족개량주의가 발호하는 것은 유감스럽다...(중략)... 이와 같은 움직임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펼칠 무산 대중의 역량에 기반을 둔 활동을 위해 본회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13. 밑줄 친 ㉠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태도 소작 쟁의의 원인을 다룬 논문을 조사한다.
- ② 비합법적 노동조합 운동의 전개과정을 다룬 책자를 읽어본다.
- ③ 소년 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일제 강점기 잡지 자료를 찾아본다.
- ④ 관련자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원인을 알아본다.
- ⑤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활동을 신문 기사를 통해 분석한다.

[정 답] ②

[주제 및 출제의도]

1930년대 무산 대중의 활동(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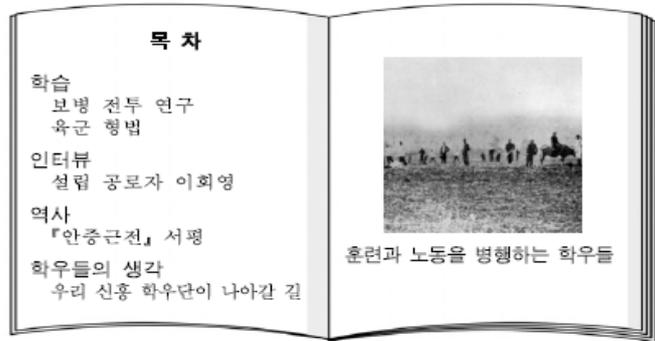
[해설 및 내용분석]

자료 (가)는 1924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민족적 경륜」의 일부분이며, (나)는 1926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정우회 선언」의 일부분이다. (다)는 신간회 해소론자들의 주장이다. 자료 (다)의 ㉠은 신간회가 해소되는 1931년 이후 무산 대중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은 1929년을 기점으로 대개 불법화되었고,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폭력성을 띠며 지하 조직화되어,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조합(노동조합)운동으로 전개되었다. ①암태도 소작 쟁의는 1923년에 있었고, ③소년 운동은 1920년대 방정환에 의해 일어났다. ④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9년에 있었고, ⑤1931년 브나로드 운동은 민족주의자들의 주도로 전개된 농촌문맹퇴치 운동이었다.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18번

18. 다음은 어느 학교의 가상 교지이다. 이 학교를 설립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공화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ㄴ.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다.
 ㄷ.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
 ㄹ.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 답] ①

[주제 및 출제의도]

1907년에 설립된 신민회의 활동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해설 및 내용분석]

문제의 단체는 신민회이다. 자료에서 ‘신흥학우단’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학교가 신흥강습소임을 알 수 있고, 결국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이기 때문이다.

신민회는 1907년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공화정을 지향하는 민족실력양성 단체로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자기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신민회는 만주에 신흥강습소라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훗날 무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당시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신민회는 ㄷ처럼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는 아니었고, ㄹ의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던 단체는 보안회였다.

[분석 문항 4] 6월 모의평가 10번

10. 다음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일본 공사께 올립니다.

저는 지난 6월 전라도에서 쌀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동학 무리가 여관으로 와 "너희 일본인이 내륙까지 들어와 통상하며 식량을 매집하여 곡가가 오르니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방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미처 그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조약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그 명령을 내렸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네 접주가 내린 지시라며 쌀을 가져갔습니다.

그 지역 지방관에게 사전 공지가 없었다고 항의했더니,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이제는 그들을 막을 수도 없다."며 모른 체 하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곳을 벗어나 인천으로 돌아가던 중 우리 군대의 전투 지역을 지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 ① 갑 : 일본 상인이 쌀을 빼앗긴 지역에는 집강소가 들어서 있었을 거야.
- ② 을 : 일본 상인이 방곡 실시에 항의하자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였을 거야.
- ③ 병 : 조선 정부의 파병 요청으로 청의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하기 전에 벌어진 일일 거야.
- ④ 정 : 당시 일본 상인이 개항장을 벗어나 내륙에서 통상하는 것은 조약 위반 행위였을 거야.
- ⑤ 무 : 이 일 때문에 조선과 일본 정부 사이에 방곡령 시행 절차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었을 거야.

[정답] ①

[주제 및 출제의도]

동학농민운동과 방곡령에 대한 문제로서 자료를 읽고 자료에서 내용을 도출하는 추론형 문제이다.

[해설 및 내용분석]

자료의 내용은 1894년 동학농민 세력이 전주화약 후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는 가운데, 쌀을 매입한 일본 상인이 동학농민들이 실시한 방곡령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내용이다. ②1890년을 전후한 시기, 정부는 방곡령 선포와 관련하여 일본 상인의 항의로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으나, 이 자료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추론하기 어렵다. ③청·일 양군은 전주화약 이전에 상륙하였다. ④일본 상인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으로 인해 최혜국 대우 등으로 이미 내지 침투가 허용된 상황이었다. ⑤방곡령 규정은 이미 1883년 조·일통상장정의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학습대책 종합]

위에서 다루었던 문항들은 2011학년도 6월 평가원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했던 문항들이다. 한국근현대사는 총 4개 단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6월 모의평가에는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현대사회의 발전’을 제외한 두 개의 단원에서 각각 10문항씩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정치사의 비중이 두드러졌다(13문항 출제). 특별한 신경향의 문제는 없었으며, 자료에 제시된 사료를 분석하여 사건을 유추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작년 수능에 비해 전체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고르게 높았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EBS 교재(수능특강)와의 연계라 할 수 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연계율이 50%(10문제)였다. 이 연계율은 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실제 수능에서는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수능 시험을 대비해 우선 교재 순위를 든다면 수능기출문제와 EBS 교재가 될 것이다. 앞으로 EBS와 관련해서 출판될 ‘수능 10완성’과 ‘파이널 모의고사’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EBS 교재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EBS 교재의 문제풀이가 수능 공부의 전부라는 생각은 버려야하며,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맞추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문제 속에 녹아있는 주요 개념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문제의 해당 선지가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도 수능을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출문제 정리이다. 위에서 살펴본 문항들은 과거 수능문제나 평가원 모의 문항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주제 및 형태로 출제된 것들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최소한 지난 3년 동안에 치러졌던 수능기출문제와 매년 6월, 9월에 보았던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각 문항별 주제를 찾아내어 그 주제와 관련된 학습내용들을 정리해 보거나 점검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능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탐구] - 사회문화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5번

5.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여 만들어낸 공유된 현실이다.

- ① 노인 문제는 가족의 보호 기능 약화 때문에 나타난다.
- ② 의약 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이익 단체들 간 이권 다툼 문제이다.

- ③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도농 간 상호 의존성 약화에서 비롯된다.
- ④ 범죄는 개인이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 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 하면서 강화된다.

[정 답] ⑤

[주제 및 출제의도]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문제다.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분류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등 관점을 묻는 문제들은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해설 및 내용분석]

제시문에서 “의미부여, 교류”란 단어를 통하여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미시적 관점은 인간 행동의 주관적인 의미 이해와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중시하는데 낙인이론 대표적이다. ⑤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 한다는 의미는 사회 대다수가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①, ③, ④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하며, ②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유사 주제 문제]

2010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2010년도 수능 19번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11번

11. 다음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대대로 가난했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야구를 시작한 갑은 선수시절 ㉠메이저리그 ㉡명문 팀의 투수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나 부상 때문에 해외 진출을 포기하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국내 프로야구 팀 ㉢사장이 되었다. 최근 팀의 주전투수인 을이 계약을 만료하자 메이저리그의 이적을 요청해왔다. 갑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키운 ㉣제자가 ㉤세계 최고리그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면서도 현재 팀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적에 반대하였다. 을은 메이저리그로 보내 주지 않으면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 ① ㉠은 갑에게는 준거 집단, 을에게는 내집단이다.
- ② 갑이 ㉢이 된 것은 세대 내 이동이자 세대 간 이동이다.
- ③ ㉢과 ㉣ 사이에 역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 ④ ㉤은 ㉡의 역할 행동이다.
- ⑤ ㉥은 ㉣의 일탈 행동에 해당한다.

[정답] ②

[주제 및 출제의도]

지위에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문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문제유형이다.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 및 예들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해설 및 내용분석]

갑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장이 되었으므로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 ① 메이저리그는 갑과 을이 가기를 원했으므로 준거집단이며, 을도 현재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집단이 아니다.
- ③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역할 갈등이 아니라 갈등 상황이다.
- ④ 세계 최고 리그에서 맹활약의 주체는 갑이 아니라 제자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 ⑤ 야구를 그만두는 것은 이탈 행동이 아니다.

[유사 주제 문제]

- 2007년도 수능 17번
- 2008년도 수능 5번
- 2009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14번

14. 다음 글의 밑줄 친 주장의 타당한 근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고등학교는 앞으로 3년간의 급식을 위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월 말에 학생들에게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 3학년 전체 학급 중 학년별로 두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질문 : 현재 급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 결과> (단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2학년	18	21	23	25	13
3학년	19	19	27	19	15
평균	20	20	25	22	14

학교가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 응답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하자, 급식 업체는 '사회 조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기】

- ㄱ. 질문의 내용이 특정 응답을 유도하였다.
 ㄴ. 설문 조사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
 ㄷ.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이 유효 응답의 50%를 넘지 않았다.
 ㄹ. 조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정답] ①

[주제 및 출제의도]

질문지 구성 시 유의 사항 이해에 관한 문제이다. 유의사항으로 몇 가지를 살펴 보면 ① 특정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의 금지, ② 질문항목이 상호 배타적일 것, ③ 질문이 명확할 것, ④ 윤리적 문제가 없을 것, ⑤ 한 문항 당 한가지의 질문만 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해설 및 내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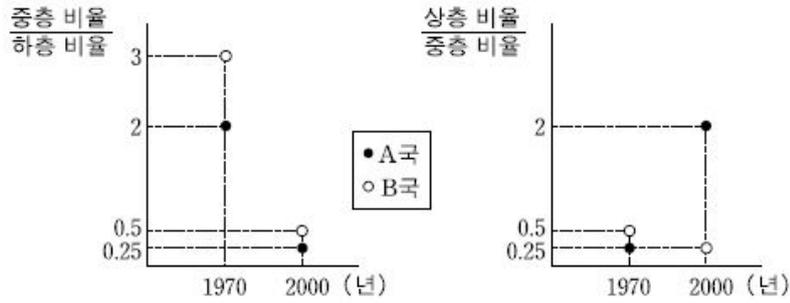
- ㄱ. 질문에서 ‘현재 급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라는 내용은 학교 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해야 함으로 2,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에서도 표본 반을 선정했어야 했다.
 ㄷ. 내용 자체가 사회 조사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ㄹ. 질문지법은 조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한다.

[유사 주제 문제]

- 2008년도 9월 모의평가 14번
 2010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2009 수능 20번

[분석 문항 4] 6월 모의평가 20번

20. 그림은 A, B국의 계층 간 상대적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보기】

- ㄱ. A국의 계층 구조는 1970년에 비해 2000년이 더 안정적 이다.
- ㄴ. B국에서는 다이아몬드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계층 구조가 변화하였다.
- ㄷ. 2000년의 하층 비율은 A국이 B국에 비해 더 낮다.
- ㄹ. A, B국 모두 중층의 하강 이동이 상승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주제 및 출제의도]

사회이동의 분석에 관하여 묻는 문제다. 대표적인 자료분석 문제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다.

[해설 및 내용분석]

1970년 A국의 계층 구조는 중층 비율/하층 비율=2이고, 상층비율/중층비율=1/4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상층 : 중층 : 하층 = 1 : 4 : 2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국		B국	
	1970년	2000년	1970년	2000년
상층	1	2	3	1
중층	4	1	6	4
하층	2	4	2	8

- ㄴ. 1970년의 B국은 중간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2000년에는 하위층이 제일 두텁고 중 상의 순서로 두터운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보이므로 옳은 분석이다.
- ㄷ. 2000년 A국의 하층 비율은 4/7이고, 2000년의 B국은 8/13이므로 A국이 B국보다 낮으므로 옳다.
- ㄱ. 1970년의 A국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형 인데 비해, 2000년은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형의 형태를 띠므로 1970년이 더 안정적이다.

르. 자료에서는 이동결과만이 나와 있을 뿐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다는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유사 주제 문제]

EBS수능특강 p.85~86 4, 7번 문제

2010년도 수능 20번

2009년도 수능 10번

2010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2010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 대책]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문화는 비교적 무난하고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고난도 문제라 할 수 있는 도표, 연표, 통계, 그래프, 그림 등의 자료해석 문제도 예년의 6문제 정도 수준에서 3문제정도 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 사회문화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험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과목이며, 선택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해석문제의 비중약화는 수험생들의 점수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번 출제 경향이 일회성인지 연속성이 있는지는 9월 평가원 시험을 더 쳐보아야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6월 평가원 시험만을 가지고 자료수집의 비중이 약화되어 사회문화의 출제 수준이 약화될 것이라 판단하지 말고 꾸준히 자료해석 문제들을 접하여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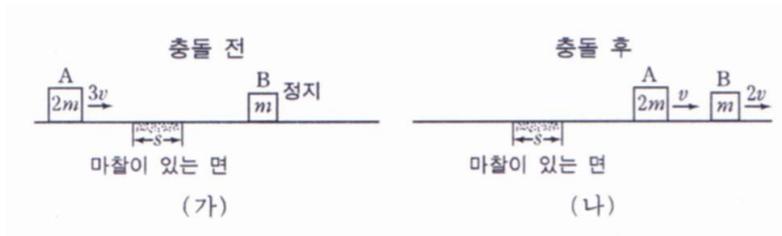
또한, 이번 6월 평가원은 기출문제의 유사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기출문제에서 변형되어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과학탐구] - 물리1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6번

6.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m$ 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m 인 물체 B를 향해 속력 $3v$ 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가 길이 s 인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지나 B와 충돌하여 A, B가 일직선 상에서 각각 속력 v , $2v$ 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마찰이 있는 수평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μ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중력가속도는 g 이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보 기]

- ㄱ.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하기 전 A의 운동량과 같다.
- ㄴ.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 B와 충돌하기 직전 A의 속력은 $2v$ 이다.
- ㄷ. μ 는 $\frac{3v^2}{gs}$ 과 같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 답] ②

[출제의도]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이다.

[내용분석]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의 운동량과 충돌 직후의 운동량이 같다. 그러므로 $2mv_A = 2m \cdot v + m \cdot 2v$

$$\therefore v_A = 2v$$

마찰이 있는 면에서 에너지 손실은 마찰력이 한 일과 같고, 이 양은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기 전의 운동에너지와 마찰이 있는 면을 통과한 후의 운동 에너지의 차와 같다.

$$f \cdot s = \mu \cdot 2mg = \frac{1}{2} 2m(3v)^2 - (2v)^2 = 5mv^2$$

$$\therefore \mu = \frac{5v^2}{2gs}$$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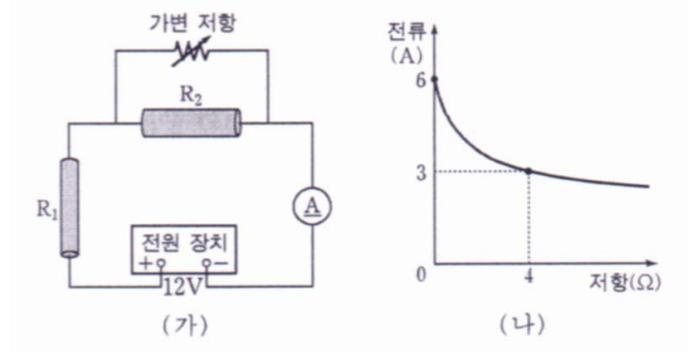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과 에너지 보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유사 문제]

09학년도 수능 19번 문제, EBS 물리 I 480제 196번 문제를 변형한 형태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13번

13. 그림 (가)는 비저항이 각각 ρ_1, ρ_2 인 원통형 저항 R1, R2와 가변 저항을 전압이 12V인 전원 장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나)는 (가)에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가변 저항의 저항값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R1과 R2의 길이는 같고, R2의 단면적은 R1의 단면적의 2배이다.



$\rho_1 : \rho_2$ 는?(단,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는 무시한다.)

- ① 1 : 4
- ② 1 : 2
- ③ 1 : 1
- ④ 2 : 1
- ⑤ 4 : 1

[정답] ①

[출제 의도]

옴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이다.

[내용 분석]

R1과 R2의 길이를 l , 단면적을 각각 $s, 2s$ 라 하면

$$R_1 = \rho_1 \frac{l}{s}, R_2 = \rho_2 \frac{l}{2s} = \frac{1}{2} \rho_2 \frac{l}{s} \text{ 이 된다.}$$

가변저항이 0일 때 6A가 흐르므로 $R_1 = 2\Omega$ 이 된다.

가변저항이 4Ω 일 때 $3A$ 가 흐르므로

$$\frac{1}{R_2} + \frac{1}{4} = \frac{4 + R_2}{4R_2}$$

$$\therefore R_1 + \frac{4R_2}{4 + R_2} = 4\Omega$$

$$\therefore R_2 = 4\Omega$$

$$R_1 = \rho_1 \frac{l}{s} = 2, \quad \rho_1 = \frac{2s}{l}$$

$$R_2 = \rho_2 \frac{l}{2s} = 4, \quad \rho_2 = \frac{8s}{l}$$

$$\rho_1 : \rho_2 = \frac{2s}{l} : \frac{8s}{l} = 1 : 4$$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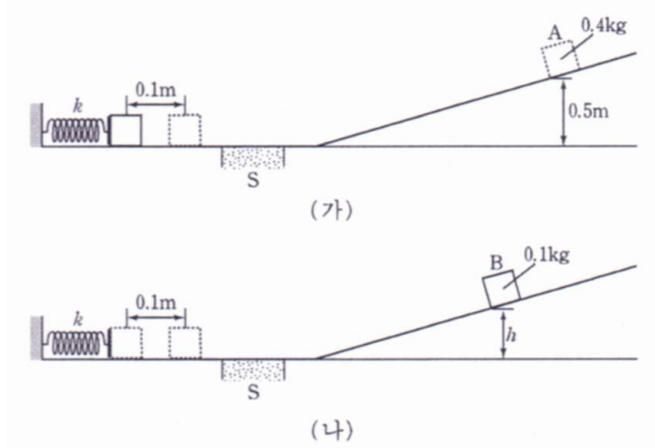
가변저항의 변화에 따른 합성저항 또는 전류의 변화를 회로에 따라 바르게 계산해야 한다.

[유사 문제]

EBS 물리 I 480제 274번 문제를 변형한 형태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16번

16.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5m$ 인 지점에 질량 $0.4kg$ 인 물체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빗면을 따라 내려와 마찰이 있는 수평면 S를 지나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용수철을 최대 $0.1m$ 만큼 압축시켰다. 용수철 상수 k 는 $100N/m$ 이다. 그림 (나)는 질량 $0.1kg$ 인 물체 B를 용수철에 접촉시켜 $0.1m$ 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을 때 B가 S를 지나 빗면을 따라 최고 높이 h 만큼 올라간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와 S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같다.



h 는?(단, 중력 가속도는 $10m/s^2$ 이며,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 ① $\frac{1}{16}m$ ② $\frac{1}{8}m$ ③ $\frac{1}{4}m$ ④ $\frac{1}{\sqrt{3}}m$ ⑤ $\frac{1}{\sqrt{2}}m$

[정답] ②

[출제의도]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내용분석]

(가) $E_p = mgh = 0.4 \times 10 \times 0.5 = 2J$

$$E_e = \frac{1}{2}kx^2 = \frac{1}{2} \times 100 \times 0.1^2 = 0.5J$$

마찰에 의한 손실된 에너지 $W = E_p - E_e = 1.5J = f \cdot s = \mu \times 0.4 \times 10 \times s = 4\mu s$

(나) $E_e' = \frac{1}{2}kx^2 = \frac{1}{2} \times 100 \times 0.1^2 = 0.5J$

마찰에 의한 손실된 에너지 $W' = f' \cdot s = \mu \times 0.1 \times 10 \times s = \mu s = \frac{1}{4}W = \frac{1.5}{4}J$

$$E_p' = E_e' - W' = 0.5 - \frac{1.5}{4} = \frac{1}{4} \times 0.5 = 0.1 \times 10 \times h$$

$$\therefore h = \frac{1}{4} \times 0.5 = \frac{1}{8}m$$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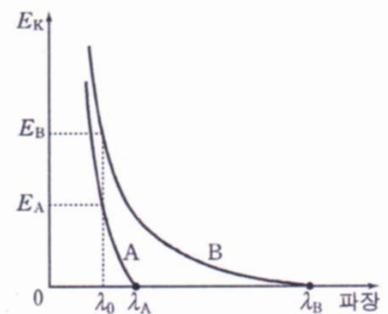
에너지의 전환에서 총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 마찰력이 한 일은 물체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유사 문제]

10학년도 수능 19, 20번 문제, EBS 물리 I 480제 176, 193번 문제를 변형 합성한 형태

[분석 문항 4] 6월 모의평가 20번

20. 그림은 두 금속판 A, B에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E_k 를 빛의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λ_B 는 λ_A 의 3배이며, 빛의 파장이 λ_0 일 때, A와 B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E_k 는 각각 E_A 와 E_B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의 일함수는 B의 일함수의 3배이다.
 ㄴ. 파장이 λ_A 보다 큰 빛을 비추었을 때, A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ㄷ. $E_B - E_A$ 는 B의 일함수와 같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 답] ③

[출제의도]

광전효과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내용분석]

$$E_k = hf - W = \frac{hc}{\lambda} - W \text{에서 } \frac{hc}{\lambda_A} - W_A = 0 \quad \therefore W_A = \frac{hc}{\lambda_A}$$

$$\frac{hc}{\lambda_B} - W_B = 0 \quad \therefore W_B = \frac{hc}{\lambda_B} = \frac{hc}{3\lambda_A} = \frac{1}{3} W_A$$

그러므로 A의 일함수는 B의 일함수의 3배이다.

또한 금속 A에 파장이 λ_A 보다 긴 파장의 빛을 비추면 λ_A 보다 적은 에너지의 빛을 비추는 것이므로 금속 A에서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E_B = \frac{hc}{\lambda_0} - W_B \cdots \cdots ①$$

$$E_A = \frac{hc}{\lambda_0} - W_A \cdots \cdots ②$$

①-②하면 $E_B - E_A = W_A - W_B$ 가 된다.

[유의사항]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로 광전효과의 식을 바꾸었을 때 일함수와 한계파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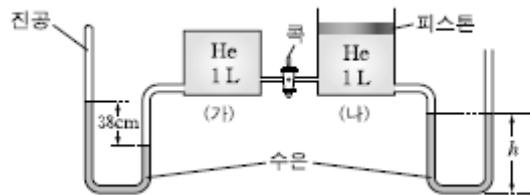
09학년도 수능 14, 15번 문제, EBS 물리 I 480제 459, 460번 문제를 파장의 형태로 변환



【과학탐구】 - 화학I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18번

18. 그림은 콕이 닫힌 상태에서 헬륨(He)이 용기 (가)와 (나)에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온도는 일정하고 대기압은 760mmHg이며, 유리관의 부피와 피스톤의 질량 및 마찰은 무시한다.)

【보 기】

- ㄱ. 기체의 전체 부피를 2L이다.
- ㄴ. h 는 콕을 열기 전과 같다.
- ㄷ. (나)에서 He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콕을 열기 전보다 커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 답] ②

[출제 의도]

기체 분자의 성질 이해하기

[내용 분석]

-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용기 (가)와 (나)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
- 용기(가)의 압력은 0.5기압, 용기 (나)의 압력은 1기압에서 콕을 열면 용기 (가)와 (나)의 압력은 1기압이 되므로 용기 (가)와 (나)의 부피의 합은 1.5L이다. (가)용기의 부피가 1L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용기(나)의 부피는 0.5L이다.
- 콕을 열기 전 용기(나)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1기압×1L, 콕을 열고 난 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1기압×0.5L이므로 콕을 열기 전보다 작아진다.

[유의 사항]

- 기체 분자의 운동과 성질에 관한 문항은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응용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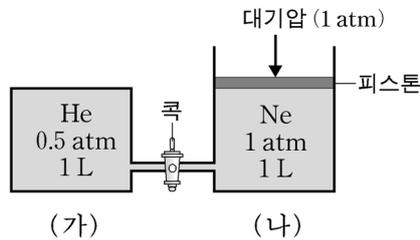
요하는 고난이도 문항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확산 속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콕을 열었을 때 용기 (가)와 (나)는 연결된 하나의 용기로 피스톤으로 대기압과 마주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 콕을 열었을 때 용기(가)의 분자수와 용기(나)의 분자수는 합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

[유사 문제]

[2007. 수능 화II 2번]

그림과 같이 두 용기 (가), (나)에 헬륨(He)과 네온(Ne)이 각각 들어 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콕을 열어 평형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피스톤과 용기 사이의 마찰과 피스톤의 무게는 없고, He과 Ne은 이상 기체라고 가정한다.) [3점]

< 보 기 >

ㄱ. He과 Ne의 분자수의 비는 2 : 1이다.

ㄴ. 평형에서 Ne의 부분 압력은 $\frac{2}{3}$ atm이다.

ㄷ. 평형에서 용기 (나)의 부피는 0.5L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09.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번]

4. 다음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가) 같은 양의 수은을 넣은 동일한 굵기의 두 J자관에 연결된 용기 A와 B에 질소 기체를 각각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되었다.

(나) 콕 a를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수은 기둥의 높이(h)를 관찰한다.

(다) 콕 a를 연 상태에서 콕 b를 열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양쪽 수은 기둥의 높이를 관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실험에서 온도 변화는 없고, 연결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대기압은 76cmHg이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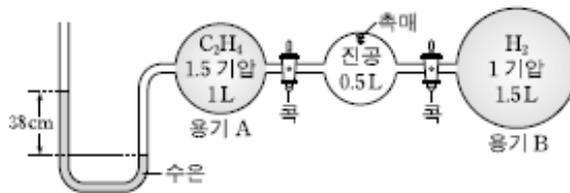
- ㄱ. (가)에서 용기 A와 B에 들어 있는 질소의 입자수는 같다.
- ㄴ. (나)에서 h 는 38cm이다.
- ㄷ. (다)에서 양쪽 수은 기둥의 높이는 같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09. 6월 모의평가 2번]

2. 다음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정이다.

- (가) 그림과 같이 수은을 넣은 유리관에 연결된 용기 A와 B에 에틸렌(C_2H_4)과 수소(H_2) 기체가 각각 들어 있다.
- (나) 양쪽 콕을 열어 C_2H_4 과 H_2 의 반응을 완결시킨다.
- (다) 반응이 끝난 후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를 관찰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고 유리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C_2H_4 과 H_2 분자의 상대적 질량비는 14 :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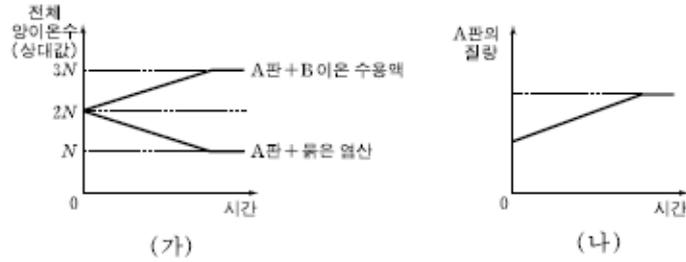
< 보 기 >

- ㄱ. 반응 전 수소 분자수와 반응 후 생성물의 분자수는 같다.
- ㄴ. 용기 A에서 반응 후 기체의 밀도는 콕을 열기 전보다 크다.
- ㄷ. 반응 후 수은 기둥의 높이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20번

20. 그림 (가)는 금속 A판을 금속 B이온 수용액에 넣었을 때와 A판을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용액의 전체 양이온수를, (나)는 A판을 B이온 수용액에 넣었을 때의 시간에 따른 A판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임의의 금속 원소이다.) [3점]

【보기】

- ㄱ.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
- ㄴ. B이온은 +3가이다.
- ㄷ.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출제 의도]

금속원자와 이온의 반응에 따른 수용액의 특징

[내용 분석]

- B이온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었을 때 이온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A판을 뚫은 염산에 넣었을 때 이온의 수가 $2N$ 에서 N 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A^{2+} 임을 알 수 있다.
- A판을 B이온 수용액에 넣었을 때 이온의 수는 $3N$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B^{3+}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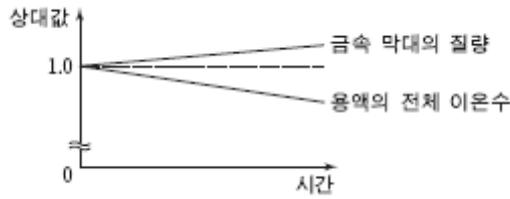
[유의 사항]

- 금속원자와 이온의 반응에 따른 수용액의 특징을 다룬 응용 문제가 고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전하량과 이온수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 금속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의 관계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유사 문제]

[2009. 9월 모의수능 16번]

16. 그림은 금속 A 막대를 금속 B 이온 수용액에 넣었을 때, 금속막대의 질량과 용액의 전체 이온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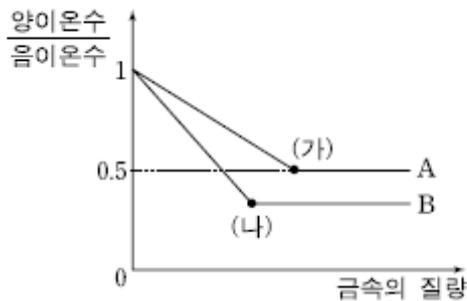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용액의 음이온수는 일정하다)

- < 보 기 >
- ㄱ. 금속의 반응성은 A>B이다.
 - ㄴ. 금속 이온의 전하는 B>A이다.
 - ㄷ. 금속 A, B 원자의 상대 질량을 비교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09. 수능 17번]

17. 그림은 금속 A, B 분말을 일정량의 금속 C 이온 수용액에 각각 넣었을 때, 용액의 양이온수 / 음이온수 를 넣어준 금속의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금속 A, B의 반응성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 ㄴ. 금속 이온의 전하는 B>A이다.
 - ㄷ. 용액의 밀도는 (나)>(가)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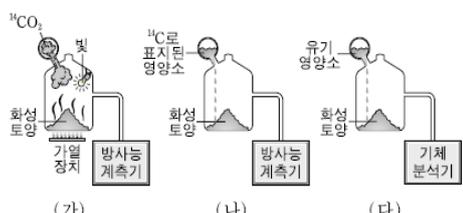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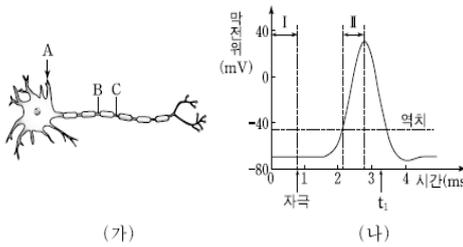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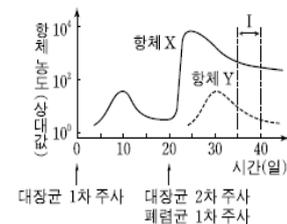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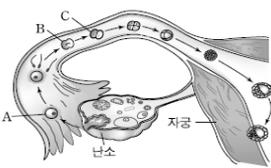


【과학탐구】 - 생물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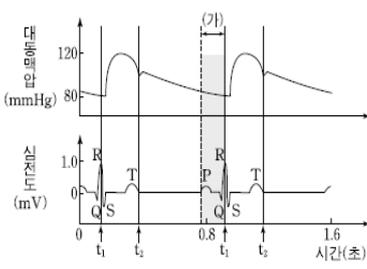
생물 I 교과서, 기출문제, EBS 및 여러 교재들에서 그림, 그래프 등의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변형한 것이 많아 낯설지 않고 평이하게 보인다. 하지만 선택지가 까다롭거나 내용을 세밀하게 묻는 것들이 많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 기본적인 지식을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늘고 있어 기본 개념이나 실험 부분은 교과서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생물 I 의 EBS 수능 연계 교재는 △수능특강 △10주 완성 △파이널 모의고사 등이다. 중요한 실험들을 EBS 수능특강 교재 중 ‘탐구 짚고 넘어가기’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내용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출문제를 재구성하거나 변형한 문제가 눈에 띄므로 수능 및 6월, 9월 모의평가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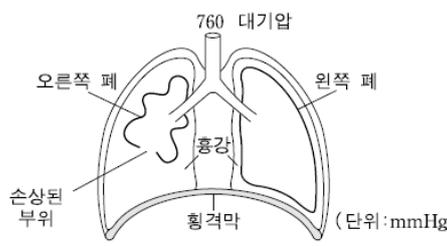
1)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이나 그래프와 유사한 문항

<p>〈6월 수능 모의평가 1번〉</p>	<p>〈6월 수능 모의평가 9번〉</p>
<p>1. 그림은 화성의 토양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성 탐사선에서 실시한 3가지 실험 (가)~(다)를 나타낸 것이다.</p>  <p>(가) (나) (다)</p>	 <p>(가) (나)</p>
<p>〈6월 수능 모의평가 10번〉</p>	<p>〈6월 수능 모의평가 15번〉</p>
<p>10. 생쥐에 대장균을 주사하고, 20일 후 대장균과 폐렴균을 함께 주사하였다. 그림은 이 생쥐 혈액의 항체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p>  <p>항체 농도(상대값) 시간(일)</p> <p>항체 X 항체 Y</p> <p>대장균 1차 주사 대장균 2차 주사 폐렴균 1차 주사</p>	<p>15. 그림은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수정된 후 착상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p>  <p>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p>〈보기〉</p> <p>ㄱ. A의 핵상은 C의 핵수 1개의 핵상과 같다. ㄴ. B가 분열하여 만들어진 포배가 자궁 내벽에 착상된다. ㄷ. B→C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른 세포로 분리된다.</p> <p>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p>

2) EBS 교재에 수록된 그림이나 그래프와 유사한 문항

<p>〈 6월 수능 모의평가 3번〉</p> <p>3. 그림은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 염류를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A, B, C는 이 세 영양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에너지원 A 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생리 기능 조절 A C</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체 구성 성분 A B C</div> </div> <p>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ㄱ. A는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다.</p> <p>ㄴ. A는 B보다 인체 구성 비율이 높다.</p> <p>ㄷ. C는 소장에서 용질의 모세혈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p> </div> <p>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p>	<p>〈EBS 교재〉</p> <p>그림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중 물을 제외한 5가지 영양소(A, B, C, D, E)를 기능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에너지원 A B C</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생리 기능 조절 C D E</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체 구성 성분 A B C D</div> </div> <p>① C는 중성지방이다. ② D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다. ③ E는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④ A와 B는 효소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⑤ 체내에서의 필요량은 B보다 E가 더 많다.</p>								
<p>〈 6월 수능 모의평가 16번〉</p> <p>16. 그림은 어떤 플라스미드를, 표는 이 플라스미드를 제한 효소 (가)~(다)로 잘랐을 때 생성된 DNA 조각을 나타낸 것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10px;"> <thead> <tr> <th>제한 효소</th> <th>DNA 조각</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X Y A C F B E D</td> </tr> <tr> <td>(나)</td> <td>X Y F B E D A C</td> </tr> <tr> <td>(다)</td> <td>X Y A D B E C F</td> </tr> </tbody> </table> </div> <p>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1~6은 A~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ㄱ. (가)와 (나)를 함께 사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자르면 조각 D를 얻을 수 있다.</p> <p>ㄴ. (다)는 플라스미드 세 곳을 자른다.</p> <p>ㄷ. 2~4에 해당하는 DNA 조각은 D A C 이다.</p> </div> <p>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p>	제한 효소	DNA 조각	(가)	X Y A C F B E D	(나)	X Y F B E D A C	(다)	X Y A D B E C F	<p>〈 6월 수능 모의평가 17번〉</p> <p>17. 그림은 심장 박동에 따른 대동맥의 압력 변화와 심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t_1과 t_2는 심장의 판막이 닫힐 때 소리나는 시점이다.</p> 
제한 효소	DNA 조각								
(가)	X Y A C F B E D								
(나)	X Y F B E D A C								
(다)	X Y A D B E C F								

3) 기출문제의 그림이나 그래프와 유사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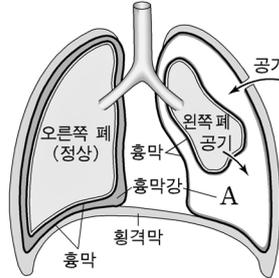
<p>〈6월 수능 모의평가 14번〉</p> <p>14. 그림은 폐가 손상된 어떤 사람의 폐에서 흉강 내로 공기가 들어간 상태를, 표는 이 사람이 폐가 손상되기 전에 최대 호기와 최대 흡기를 할 때 폐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최대 호기</th> <th>최대 흡기</th> </tr> </thead> <tbody> <tr> <td>폐의 부피 (mL)</td> <td>1200</td> <td>5700</td> </tr> </tbody> </table> </div> <p>폐 손상 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p>	구분	최대 호기	최대 흡기	폐의 부피 (mL)	1200	5700
구분	최대 호기	최대 흡기				
폐의 부피 (mL)	1200	5700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5번〉

5. 표는 정상인의 호흡시 대기, 폐, 흉막강의 압력을, 그림은 어떤 기흉 환자의 폐를 나타낸 것이다. 기흉은 흉막에 구멍이 생겨서 공기가 흉막강 내로 유입된 상태이다.

(단위 : mmHg)

	들숨시	날숨시
대기	760	760
폐	759	761
흉막강	754	756



위 자료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이 기흉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좌우 흉막강은 왼쪽과 오른쪽 폐를 각각 둘러싸고 있고, 정상인의 흉막강에는 체액만 차 있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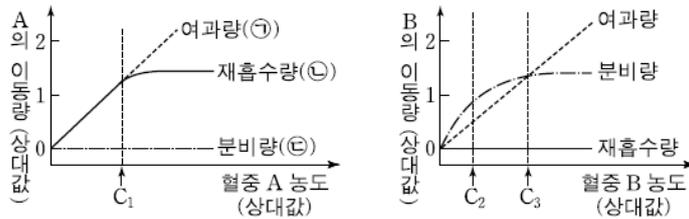
- < 보 기 > —
- ㄱ. 폐활량이 감소할 것이다.
 - ㄴ. 흉막강 A의 압력이 정상인보다 높을 것이다.
 - ㄷ. 횡격막이 수축하면 오른쪽 폐의 공기가 유출될 것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 꼼꼼히 점검할 문항

[6월 모의평가 7번]

7. 그림은 신장에서 오줌이 생성될 때 물질 A와 B의 혈중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여과량, 분비량, 재흡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A의 배설량 = ㉠ - ㉡ + ㉢이다.
- ㄴ. A의 혈중 농도가 C₁보다 낮으면 오줌에서 A가 검출된다.
- ㄷ. B의 혈중 농도가 C₃ 일 때가 C₂ 일 때보다 B의 배설량이 많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④

[출제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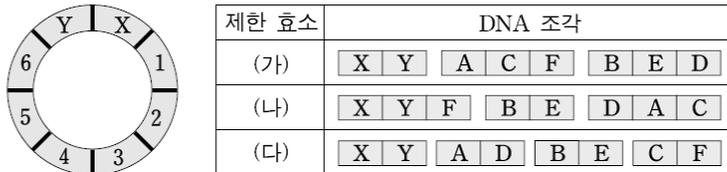
신장에서 오줌이 생성될 때 물질의 혈중 농도에 따른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이다. 여과, 재흡수와 분비를 거쳐 배설량이 결정되는 기본 개념을 두 물질을 비교하여 묻고 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고 자료 제시 방법이 새롭다.

[정답풀이]

- ㄱ. 배설량은 여과량-재흡수량+분비량으로 결정된다.
- ㄴ. A의 혈중 농도가 C1보다 낮으면 모두 재흡수되므로 오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 ㄷ. B는 재흡수량이 일정하므로 배설량은 (여과량+분비량)이 클수록 많다.

[6월 모의평가 16번]

16. 그림은 어떤 플라스미드를, 표는 이 플라스미드를 제한 효소 (가)~(다)로 잘랐을 때 생성된 DNA 조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단, 1~6은 A~F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3점]

【보 기】

- ㄱ. (가)와 (나)를 함께 사용하여 플라스미드를 자르면 조각 **D** 를 얻을 수 있다.
- ㄴ. (다)는 플라스미드 세 곳을 자른다.
- ㄷ. 2~4에 해당하는 DNA 조각은 **D A C**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정답] ①

[출제 의도]

<수능특강> p. 189 1번 문항의 자료와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플라스미드와 제한효소는 생명공학기술과 유전 같은 단원과 연결 지어 통합형 문항으로 주로 출제되는데 16번 문항은 유형 자체는 새롭다. 하지만 특정 지식만을 한정하여 묻고 있고, 3점이라는 배점이 무색할 정도로 난이도는 낮다.

[정답풀이]

(가)의 A 옆에는 (나)를 통해 D가, 제한효소 (나)로 잘라진 조각에서 XY-6 위치에 XYF가 있

으므로 Y 옆에 F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맞추어보면 B E D A C F Y X가 되거나 X Y F C A D E B가 된다.

- ㄱ. (가)로 B E D를 자르고, (나)로 E와 D 사이를 자르면 조각 D를 얻을 수 있다.
- ㄴ. (다)는 모두 네 곳을 자른다.
- ㄷ. Y 옆에 F와 C가 있고, 그 다음은 A D E가 된다. X 옆에 B가 있고 그 다음이 2, 3, 4에 해당하므로 E D A 이다.

[6월 모의평가 19번]

19. 초파리 수컷의 성염색체 XY를, 암컷은 XX를 갖는다. 초파리의 붉은 눈은 우성, 흰 눈은 열성이며, 붉은 눈 유전자(R)와 흰 눈 유전자(r)는 X염색체에 위치한다. 다음은 초파리의 교배 실험과정이다.

- (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식 세포에서 R이 Y염색체로 이동된 붉은 눈 수컷을 얻는다.
- (나) (가)의 수컷을 흰 눈 암컷과 교배한다.
- (다) (나)에서 나온 자손 중 수컷을 고른다.
- (라) (다)의 수컷을 유전자형이 Rr인 암컷과 교배하여 자손을 얻는다.

(라)에서 나온 자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나)~(라)에서 돌연변이와 교차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 기】

- ㄱ. 암컷 중 50%가 흰 눈 유전자(r)를 갖는다.
- ㄴ. 붉은 눈 암컷 : 붉은 눈 수컷의 개체 수 비율은 1 : 2이다.
- ㄷ. 수컷 중 (다)의 수컷과 눈 색깔 유전자형이 같은 것은 50%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출제 의도]

눈 색깔 유전은 반성유전이며 교차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완전 연관이다. 붉은색은 흰색에 대해 우성이므로 붉은 색 눈은 최소한 R 유전자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 전에 붉은 눈 수컷은 XRY, 유전자 조작 후 붉은 눈 수컷의 유전자형은 XYR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답풀이]

초파리의 눈 색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우성인 붉은 눈 유전자를 조작하여 Y 염색체로 이동시켜 붉은 눈 수컷 초파리 XY^R를 얻었다. (가)에서 얻은 초파리 XY^R과

흰눈 암컷 X^rX^r 을 교배시키면 다음과 같다.

수컷의 생식세포 암컷의 생식세포	X	Y^R
X^r	XX^r (흰눈암컷)	X^rY^R (붉은눈수컷)
X^r	XX^r (흰눈암컷)	X^rY^R (붉은눈수컷)

(다)에서 얻는 수컷은 X^rY^R (붉은눈수컷)이고 (라)에서 X^RX^r 과 X^rY^R (붉은눈수컷)을 교배하면 아래와 같은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수컷의 생식세포 암컷의 생식세포	X^r	Y^R
X^R	X^RX^r (붉은눈암컷)	X^RY^R (붉은눈수컷)
X^r	X^rX^r (흰눈암컷)	X^rY^R (붉은눈수컷)

- ㄱ. 암컷은 모두 r 유전자가 있다.
- ㄴ. 붉은 눈 암컷 : 붉은 눈 수컷은 1:2이다.
- ㄷ. 수컷 중 50%는 X^rY^R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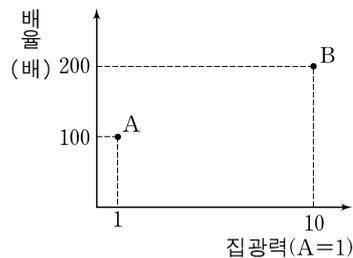


[과학탐구] - 지구과학I

[분석 문항 1] 6월 모의평가 16번 (신유형)

16. 표는 광학 망원경 A와 B의 규격 일부를, 그림은 이들 망원경의 배율과 집광력을 나타낸 것이다.

망원경		A	B
초점 거리 (mm)	대물 렌즈	1000	()
	접안 렌즈	10	5



A와 비교한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대물 렌즈의 구경이 크다.
- ㄴ.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다.
- ㄷ. 분해능이 좋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출제 의도]

- 기존 참고서나 EBS 교재에도 없었던 신 유형이고, 새로운 형태의 도표를 활용한다.
-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이다.
- 망원경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한다.
- 난이도는 상이다.

[내용 분석]

<정답 풀이>

- ㄱ. B의 집광력이 A보다 크므로 B의 구경이 A보다 더 크다.
- ㄴ. B의 구경이 A보다 크므로 분해능이 더 좋다.

<오답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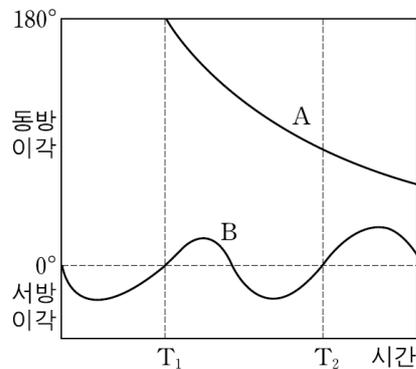
- ㄷ. B의 배율이 200배이므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가 1000mm이다. 따라서 A와 같다.

[문제 풀이 시 유의사항]

- ① 집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집광력이 크면 구경도 크다.
- ② 배율은 $\frac{\text{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text{접안 렌즈의 초점 거리}}$ 이다.
- ③ 분해능 값은 구경에 반비례한다. 즉 구경이 클수록 분해능 값이 작아지고 분해 성능은 좋아져서 상이 뚜렷하고 선명해진다.

[분석 문항 2] 6월 모의평가 18번(신유형)

18.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행성 A와 B가 태양과 이루는 이각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_1 \sim T_2$ 기간 동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T_1 일때 A는 충에 위치한다.
 ㄴ. $T_1 \sim T_2$ 기간은 B의 공전 주기이다.
 ㄷ.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T_1 일때 가장 가깝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 답] ①

[출제 의도]

- 기존 참고서나 EBS 교재에도 없었던 신 유형이고 새로운 형태 도표를 활용한다..
-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이다.
- 행성의 시운동과 공간 분포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한다.
- 난이도는 상이다.

[내용 분석]

<정답 풀이>

- ㄱ. 내행성의 이각은 90° 보다 작고(수성은 약 28° , 금성은 약 48°), 외행성의 이각은 $0^\circ \sim 180^\circ$ 까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A는 외행성, B는 내행성임을 알 수 있다. 내행성의 이각이 0° 일 때는 내합 또는 외합이며 외행성의 이각이 0° 일 때는 합, 90° 일 때는 구(동구, 서구), 180° 일 때는 충이다.

<오답풀이>

- ㄴ. 외합은 서방 이각에서 동방 이각으로 바뀌는 합이고, 내합은 동방 이각에서 서방 이각으로 바뀌는 합이다. 그러므로 T_1, T_2 는 모두 외합이고, $T_1 \sim T_2$ 이 기간은 외합에서 외합까지 걸리는 시간(회합 주기라고 함)이다. 행성과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가 반복되는 주기이지 행성의 공전 주기는 아니다.
- ㄷ. T_1 에서 A는 충, B는 외합이며 T_2 에서 A는 동구, B는 외합이다. 따라서 T_1 에서 A와 B의 거리는 A 행성의 공전 반경과 B 행성의 공전 반경의 합이 되고 이 경우가 두 행성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이다. 즉 지구를 사이에 두고 외행성의 충~내행성의 외합까지 거리의 합이다. 따라서 T_2 에서 A와 B의 거리는 T_1 일 때보다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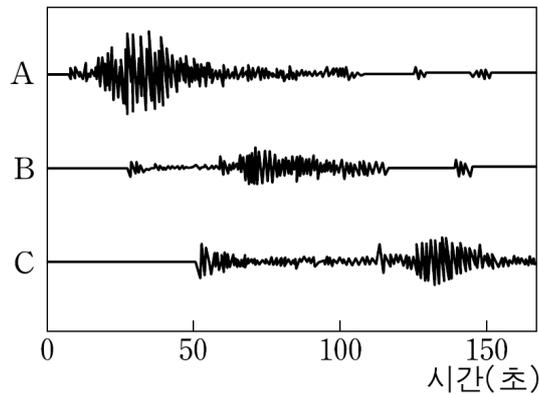
[문제 풀이 시 유의사항]

- ① 내행성의 이각은 90° 보다 작다. 가장 안쪽 궤도를 공전하는 수성은 약 28° . 금성은 약 48° 이다.

- ② 태양, 지구, 행성이 같은 관계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공전 주기는 다르다. 공전 주기는 행성이 태양을 정확히 한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 ③ 외행성의 시운동은 화성의 공전 속도가 느리므로, 충 이후에 동구외 위치로 온다.

[분석 문항 3] 6월 모의평가 9번(EBS와 연계성 매우 높음)

9. 그림은 어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역 A, B, C의 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진폭이 크면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
- ㄴ. 지진의 규모는 A에서 가장 크다.
- ㄷ. C의 지반은 B 보다 지진에 약하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출제 의도]

- EBS와 연계성이 매우 높은 문항이다.
- 지진파의 성질과 지진의 규모, 진도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차이점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난이도는 하이다.

[내용 분석]

<정답 풀이>

- ㄷ. C 관측소가 B 관측소에 비해 진원 거리가 더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진폭이 더 큰 것은 진도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도가 크다는 것은 지진에 의한 피해가

더 크고, 지반이 지진에 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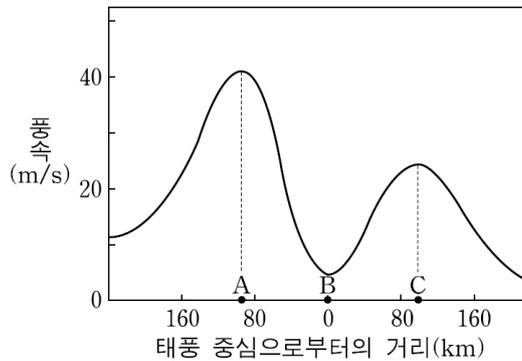
- ㄱ, 동일 관측소의 지진 기록에서 먼저 기록된 진폭이 작은 파는 P파이고 속력이 빠르다.
- ㄴ, A 지진이 진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진폭이 가장 크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지진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아니다.

[문제 풀이 시 유의사항]

- ① 2010년 수능은 EBS 교재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므로 반드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 ② 지진의 진도는 지표면에 도달한 지진의 진동 및 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대체로 진앙에 가까울수록 진도가 크다.
- ③ 지진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를 절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하나의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이므로 같은 지진의 경우에 관측소까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같다.

[분석 문항 4] 6월 모의평가 10번(EBS와 연계성 매우 높음)

10. 그림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해 오고 있는 태풍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따라 측정한 지상 풍속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

- ㄱ. A는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 ㄴ. B에서 적란운이 가장 두껍게 발달한다.
- ㄷ. C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①

[출제 의도]

- EBS와 연계성이 매우 높은 문항이다.
- 태풍의 구조와 안전 반원, 위험 반원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이고, 저기압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 난이도는 중이다.

[내용 분석]

<정답 풀이>

ㄱ.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다. C 지점 보다 A 지점이 풍속이 빠르므로 A 지점이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오답풀이>

ㄴ. 태풍의 중심 B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하므로 상승기류가 있을 때 발달하는 적란운이 생성될 수 없다.

ㄷ. 태풍은 중심부인 B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문제 풀이 시 유의사항]

- ① 2010년 수능은 EBS 교재에서 70% 연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EBS 교재를 충분히 풀어 단순한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항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 ②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태풍의 중심부를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하강기류가 있다. 그러나 중심 기압은 저기압이므로 낮다.
- ③ 적란운은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생성되는 구름이다.



EBS와 6.10 평가원 모의수능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정부가 EBS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모의고사여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실제 수리와 탐구 영역의 경우 몇 문제는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숫자나 표현만 조금 바꾸어 출제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EBS 교재와 수능 연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다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연계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감수한 교재로 국한한다고 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감수한 6.10 모의 수능에서도 이들 교재들과 대거 연계를 시켰으며, 현재 출간된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10주 완성과 남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실시한 6월 모의고사의 EBS와의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수능 학습전략을 점검해본다.

〈표1〉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한 EBS교재

교재명		책수	과목명	대상	발간일
수능특강		4책	언어, 외국어, 수리-수학 I, 수리-수학 II	중상	1.10
		14책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일본어, 중국어, 한문		
라디오 고교 듣기	1단계	2책	고교 국어듣기, 고교 영어듣기(1)	중상	1.10
	2단계	1책	고교 영어듣기(2)		5.15
인터넷 수능 특강	사탐	4책	법과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중상	1.10
	과탐	4책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고득점 N제	언어	1책	300제	최상	3.31
	외국어	2책	외국어 200제, 외국어 어법 & 어휘 100제	최상	3.31
	수리	5책	수리 I 200제, 수리 II 150제, 선택(PDF)미적분과 적분 50제, 확률과 통계 50제, 이산수학 50제	최상	3.31
인터넷 섹션별	언어	5책	시문학, 소설문학, 수필&극문학, 비문학, 쓰기&어휘·어법	상	2.20
	수리	6책	수리 I: 수열/수열의 극한, 수학 I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학 I 확률/통계 수학 II: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공간도형과 공간좌표/벡터	상	2.15
	외국어	4책	영어독해연습(1), 영문법특강, 영어어휘특강, 영어독해연습(2)		
10주 완성 수능 특강		15책	언어, 외국어, 수리-수학 I, 수리-수학 II,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중상	5.15
EBS Final 수능특강 실전 모의고사		15책	언어, 외국어, 수리-가형, 수리-나형, 한국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 윤리, 정치, 경제,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중상	6.30
파이널실전 모의고사	사탐	4책	법과사회,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지리	중상	6.30
	과탐	4책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1. 출제 경향 및 연계성

6.10 수능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의 유형과 큰 차이가 없고 EBS 방송 교재 및 강의와 연계된 문항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출제되어 전체적인 난이도에 영향을 주었다. 반영 방법은 각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언어

문학에서 EBS 연계가 두드러졌다. 시에서는 김춘수의 <강우>, 허전의 <고공가> 등이 소설에서는 임철우의 <눈이 오면>, 고전소설 <낙성비룡> 등이 EBS 교재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소설의 경우 EBS 교재와 동일한 지문이 아니라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이 출제되었다. 비문학의 경우 회화적 재현을 다룬 지문과 자동차 엔진에 관한 지문이 EBS 교재의 지문과 거의 유사하다. 추론을 묻는 문제에서도 EBS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되었다.

● 수리

전체적으로 EBS와 연계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수리 가형에 비해 수리 나형의 연계비율이 더 높았다. 단원별로 골고루 연계되어 출제되었고 숫자나 부호만 바꾸어 출제된 문제도 눈에 띄었다. 동일한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도 출제되었다. 그러나 수리 가형의 미분단원에서는 연계성이 적었다. 수리 나형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보다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EBS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때문인지 배점이 높은 문항들의 경우에는 EBS교재 외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다.

● 외국어

EBS교재와의 연계성은 대략 50%정도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연계의 정도는 지문을 동일하게 출제하고 문제만 살짝 바꾼 유형과, 지문을 자체적으로 재편집이나 내용을 수정해 출제되었으며, 도표 문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그래프를 제시한 후 문제 설명만 바꾸어 출제되었다.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자면 어법은 작년에 출제되었던 관계사의 개념과 동사의 태, 5형식의 보어, 재귀대명사, 가정법 등이 소개되었고, 빈칸유형은 EBS교재를 발췌, 응용해 빈칸의 위치만 바꾼 문제와 유사한 배경 지식의 소재가 출제되었으며 어휘 유형은 비교적 평이한 반의어를 묻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 외의 독해문제는 EBS교재의 지문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문제유형들을 만들어 냈다.

〈표 2〉 영역별 EBS 방송 교재와 강의 반영 방법

영역	반영 방법	해당 문항 및 EBS 방송 교재
언어영역	(1) 글의 소재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한 문항(비문학)	<p>[13~14] 인문, 추론적 사고 과정 →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174쪽</p> <p>[15~18] 과학, 사막의 형성 과정 →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174쪽</p> <p>[23~27] 예술, 실재의 재현으로서의 회화 →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232쪽</p> <p>[32~35] 사회, 유명한 광고 모델의 효과 →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232쪽</p> <p>[36~38] 기술, 자동차 엔진의 동력 발생 과정과 자동차 연비 →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96쪽</p> <p>[44~46] 언어, 한글과 한자 혼용의 역사</p>
	(2) 교재에 나온 것을 그대로 또는 재구성(축소, 확대, 변형)한 문항(문학)	<p>[19~22] 현대시, (가) 김춘수, 강우 (나) 김종길, 성탄제 (다) 이성복, 서해 →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 30쪽</p> <p>[28~31] 현대 소설 임철우, 눈이 오면 → <EBS 인터넷 수능 특강> 81쪽</p> <p>[39~43] 고전 시가, 수필 복합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EBS 포스 고전 문학>, (나) 허전, 고공가 →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 52쪽 외 1종, (다) 이육, 어부, →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 52쪽 외 1종</p> <p>[47~5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낙성비룡 → <EBS 인터넷 수능 특강> 168쪽</p>
수리영역	(1) 유형은 동일 숫자만 바꾼 경우	<p>가형 3번 → 수능 특강 수학Ⅱ 21쪽 예제 3번</p> <p>가형 4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Ⅱ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22쪽 3번</p> <p>가형 7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다항함수의 적분법 12쪽 1번</p> <p>가형 18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다항함수의 적분법 22쪽 3번</p> <p>나형 6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Ⅰ 수열/수열의 극한 8쪽 4번</p> <p>나형 11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Ⅰ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6쪽 1번</p> <p>나형 12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Ⅰ 수열/수열의 극한 64쪽 6번</p> <p>나형 14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Ⅰ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9쪽 12번</p> <p>나형 18번 → 수능 특강 수학Ⅰ 51쪽 유제 개념확인 1번</p> <p>나형 22번 → 수능 특강 수학Ⅰ 11쪽 예제 1번</p> <p>가형 나형 공통 21번 → 수능 특강 수학Ⅰ 78쪽 예제 2번</p>
	(2) 형태를 변형한 경우	<p>가형 14번 → 인터넷 수능 수학Ⅰ 확률/통계 43쪽 14번</p> <p>가형 미적 30번 → 인터넷 수능 미분과 적분 33쪽 11번</p>

영역	반영 방법	해당 문항 및 EBS 방송 교재
외국어 (영어) 영역	(1)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유형을 바꾼 경우	28번(빈칸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글의 제목 추론) 36번(글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 판단) → 수능 특강(어휘)
	(2) 지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유형을 바꾼 경우	20번(문법성 판단)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 21번(문법성 판단)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글의 순서 정하기) 22번(무관한 문장 추론) → 수능 특강 (글의 주제 추론) 24번(빈칸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문법성 판단) 31번(어휘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밑줄 어법) 32번(문법성 판단) → 수능 특강(빈칸 추론) 35번(도표의 내용 이해)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도표의 내용 이해) 37번(글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 판단)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문법성 판단) 39번(글의 요지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어휘 특강(어휘 추론) 41번(글의 제목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어휘 특강(필자의 주장 추론) 42번(글의 제목 추론) →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연결사 추론)
사회탐구 영역	(1)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자료의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구성한 문제	한국 근·현대사 17번 → EBS 수능특강 118쪽 6번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 한국지리 1번 → EBS 수능특강 13쪽 4번 삽화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
과학탐구 영역	(1) 그래픽 자료(그림, 그래프, 도표 등)가 일부 변형하여 출제	물리 I 2번, 7번, 화학 I 5번, 12번, 생물 I 3번, 11번, 지구과학 I 4번, 9번
	(2) 개념과 원리가 문제로 나왔으며 교재에서 나온 문제가 축소, 확대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출제	생물 I 13번, 16번, 지구과학 I 7번, 13번, 물리 II 19번

2. EBS 방송 교재 연계 출제 유형 분석

(1)

이번 6월 모의평가 시험은 평가원 발표대로 EBS 방송 교재 및 강의에서 50% 정도를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읽기에서는 EBS 방송 교재에 나온 지문(문학과 비문학 포함)을 그대로 또는 재구성(축소·확대·변형)하여 가져온 것이 있었으며 특히, 문학은 8작품 중 5작품이 EBS 방송 교재에 실린 것들이었다. 또한 시험에 출제된 낯선 작품의 대부분이 EBS 방송 교재에 실려 있었다. 그 외에도 EBS 교재나 강의의 내용 중에서 교과서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지문이나 교과 목표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출제되었다.

[문학 지문의 6월 모의평가 vs EBS 방송 교재 분석표]

6월 모의평가 문학 지문		EBS 수능 교재	일치 정도	교과서
[19~22] 현대시	(가) 김춘수, 강우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 30쪽	전문 일치	-
	(나) 김종길, 성탄제	-	-	중학교 <3-2> 국어 교과서
	(다) 이성복, 서해	-	-	-
[28~31] 현대 소설	임철우, 눈이 오면	<EBS 인터넷 수능 특강> 81쪽	부분 일치	-
[39~43] 고전 시가, 수필 복합	(가)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 <EBS 포스 고전 문학> 97쪽	전문 일치	<문학> 교과서 5종 수록
	(나) 허전, 고공가	<EBS 인터넷 수능 시문학> 52쪽 외 1종	부분 일치	-
	(다) 이육, 어부	-	-	-
[47~5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낙성비룡	<EBS 인터넷 수능 특강> 168쪽	부분 일치	-

* 표시한 교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수한 교재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

[비문학 지문의 6월 모의평가 vs EBS 방송 교재 분석표]

6월 모의평가 비문학 지문		EBS 수능 교재	일치 정도
[13~14] 인문	논리학적 추론의 종류와 '타당한 추론'의 의의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174쪽 <EBS 인터넷 수능 특강> 90쪽	소재 일치
[15~18] 과학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사막의 형성	-	-
[23~27] 예술	회화적 재현에 대한 다양한 관점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232쪽	소재 일치
[32~35] 사회	유명인이 중복 출연하는 광고의 효과 비판	-	-
[36~38] 기술	자동차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BS 인터넷 수능 비문학> 96쪽	소재 일치
[44~46] 언어	한글 창제 후 한글과 한자를 다양한 방식으 로 섞어 쓴 원인	-	-

◆ EBS 수능 교재에 나온 지문을 그대로, 또는 재구성하여 제시한 경우

- 예시(1) : 문학 작품 - 제시문을 그대로 활용함

6월 모의평가, 현대시 지문	<인터넷 수능>시문학 30쪽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발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발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p>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強雨)」 -</p>	<p>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強雨)」 -</p>
---	---

－ 예시(2) : 비문학 지문 – 제시문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활용함

6월 모의평가, 인문 지문	〈인터넷 수능〉비문학 174쪽
<p>[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추론 1]라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추론 2]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p> <p>'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러나 혹시 행정 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결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낮을 것이다.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그 추론은 '건전하다'고 정의한다.</p> <p>그런데 '추론 1'은 건전하지 못하므로 얼핏 보기에 좋은 추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논리학이 타당한 추론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실제 추론에서 전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직 참임이 밝혀지지 않은 명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은 과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전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p>	<p>[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추리'란 이미 제시된 명제들(전제)을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결론)을 이끌어 내는 사고 과정을 이른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앞뒤가 맞는 말'을 추리 상황에 적용하면 "앞의 전제에서 한 말과 뒤어 결론에서 한 말이 맞는다."로 풀이되며, 이 같은 추리의 유형에 대해 "그것은 맞는 추리이다.", "그것은 옳은 추리이다.", "추리를 잘 했다." 등으로 평가한다. 논리학에서는 이러한 '맞는 추리', '옳은 추리', '잘한 추리' 등에서 '앞뒤가 맞는다.'는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타당(妥當)하다'라는 학술 용어를 사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중략) ...</p> <p>이처럼 전제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추리 형식은 부당한 것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예문만을 활용하여 추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타당성은 추리 형식과 관련된 것이고 그 형식이 속할 수 있는 예문들은 무수히 많으므로 그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예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들어 보지 못한 사례 중에서 언제 반증 사례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가 참이라도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p>

◆ EBS 방송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제시한 경우

문제 번호	EBS 수능 교재	일치 정도
11번	<인터넷 수능 쓰기 & 어휘·어법> 123쪽 3번	평가 요소 동일
24번	<인터넷 수능 비문학> 233쪽 11번	평가 요소 유사
28번	<EBS 수능 특강> 82쪽 5번	평가 요소, 답지 유사
30번	<EBS 수능 특강> 82쪽 8번	평가 요소, 답지 유사
36번	<인터넷 수능 비문학> 97쪽 8번	평가 요소, 답지 유사
48번	<EBS 수능 특강> 170쪽 2번	평가 요소 유사

- 예시(1) : 반응의 적절성 판단 - 내용을 재구성

6월 모의평가, 24번	<인터넷 수능>비문학 233쪽 11번
<p>2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p> <p>-----<보기>-----</p> <p>(가) (나) (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모네(1891) <늦여름 아침의 난가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세잔(1899) <사과와 오렌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피카소(1907) <아비뇽의 아가씨들></p> </div> </div> <p>①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군. ③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④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군. ⑤ (가), (나), (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서 나온 그림이군.</p>	<p>1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보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 를 세잔 <생강 향아리와 가지가 있는 정물></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 파블로 피카소, <유리잔과 쉬즈 병></p> </div> </div> <p>① (가)에서 화가는 의도적으로 회화의 공간을 왜곡하여 대상의 안정적 배치를 깨고 있어. ② (가)에서 기울어진 과일 접시와 떨어진 듯 보이는 과일은 작품에 역동성을 부여하는군. ③ (가)에서 위와 측면에서 동시에 본 향아리의 모습을 그린 것은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한 것이로군. ④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병과 유리잔을 일상생활의 평범한 재료를 통해 평면 위에서 구현하고 있어. ⑤ (나)에서 화가는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재료를 가지고 삼차원적인 환영감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상의 허구성을 폭로하는군.</p>

예시(2) : 쓰기 & 어휘·어법 - 내용을 재구성

6월 모의평가 쓰기 & 어휘어법 11번	〈인터넷 수능〉 쓰기 & 어휘어법 123쪽 3번																		
<p>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부르다¹ ㉠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²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¹ ㉣ 팔에 짓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² ㉤ 한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p>㉠ '부르다¹의 피동' ㉢ '부르다²의 사동' ㉡ '부르다²의 피동' ㉣ '부르다¹의 사동' ㉤ '부르다²의 사동'</p> <p>①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u>붙렸다</u>. ② ㉡: 반장이 가장 먼저 <u>붙려</u> 갔다. ③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u>붙릴</u> 수는 없었다. ④ ㉣: 그는 요즘 재산을 <u>붙리는</u> 재미에 빠져 있다. ⑤ ㉤: 메주를 썬려면 콩을 물에 <u>붙려야</u> 한다.</p>	<p>(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의 ㉠~㉣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자료 1</p> <p>■ '붙다¹': 귀로 소리를 느낀다. 붙다²: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 '붙다²': 물건을 위로 올린다. 붙다²: 몸에 귀신이 붙거나 병이 생긴다. ... ■ '붙리다'의 의미 범주</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피동: 주어가 남의 행동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기본 형성 방법: 이근+이, 히, 리, 기 ㉠ 보다 → ㉡이다 사동: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기본 형성 방법: 이근+이, 히, 리, 기, 우, 구, 추 ㉢ 붙다 → ㉣이다</p> </div> <p>자료 2</p> <p>이번 야구 최종 평가전에서 승리의 팡파르 음악이 ㉠들리자, 승리의 깃발을 동료 선수에게 ㉡들리고 함께 뛰여 기린 중에 내 몸이 동료들에 의해 변색 ㉢들리는 것을 느꼈다.</p> <div style="margin-top: 10px;">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① '붙다¹'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피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붙다²'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¹'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¹'의 사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붙다¹'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사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피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붙다²'의 사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¹'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¹'의 사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붙다¹'의 사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피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붙다²'의 사동</td> </tr> </table> </div>	㉠	㉡	㉢	①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² '의 피동	②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¹ '의 사동	③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² '의 사동	'붙다 ² '의 피동	④ '붙다 ² '의 사동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¹ '의 사동	⑤ '붙다 ¹ '의 사동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² '의 사동
㉠	㉡	㉢																	
①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² '의 피동																	
②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¹ '의 사동																	
③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² '의 사동	'붙다 ² '의 피동																	
④ '붙다 ² '의 사동	'붙다 ¹ '의 피동	'붙다 ¹ '의 사동																	
⑤ '붙다 ¹ '의 사동	'붙다 ² '의 피동	'붙다 ² '의 사동																	

예시(3) : 서술 방식의 특징 파악 - 답지를 일부 변형

6월 모의평가, 현대 소설 28번	〈수능 특강〉 현대 소설 82쪽 5번
<p>2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답답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p>	<p>5.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묶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ㄱ. 현재 사건 속에 과거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ㄴ. 인물의 내적 독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ㄷ.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한다. ㄹ.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p>

예시(4) :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 내용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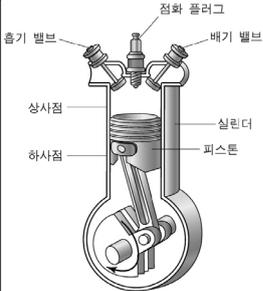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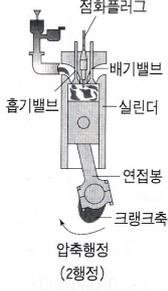
6월 모의평가, 고전 소설 48번	〈수능 특강〉 170쪽 2번
<p>4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p>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이 작품은 비슷한 시기의 소설 「소대성전」과 인물 구성이나 줄거리 등이 유사하다. 주인공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걸식하다가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나 보통의 영웅처럼 어려서부터 비범성이 드러나기보다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위인으로 나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런데 「소대성전」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에 천상적 존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소대성전」은 주인공의 초월적인 도술과 무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반면 이 작품은 천상의 존재가 지상으로 적강하는 구조가 아니며, 천상계의 개입도 극히 부분적이로만 나타나면서 넓은 도량과 깊은 인격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hr/> <p>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p>	<p>① 「소대성전」과 달리 위 글은 주인공의 인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로군.</p> <p>② 죽은 인물과 주인공과의 만남은 천상계가 현실 세계의 일에 개입한 것이군.</p> <p>③ 승리를 위해 주인공이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은 천상에서 죄로 인한 것이군.</p> <p>④ 물질의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넓은 도량을 보여 주고 있군.</p> <p>⑤ 먹는 양이 남다른 먹보 주인공의 모습은 보통의 영웅 주인공과는 달라 당대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주었겠군.</p>
---	--

◆ EBS 방송 교재에 나온 자료를 활용한 경우

쓰기 문제에서 활용하는 그림이나 도표뿐만 아니라 비문학에서 활용하는 자료도 EBS 수능 교재에 나온 자료를 그대로 혹은 약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 예시 :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

6월 모의평가, 기술 지문	〈인터넷 수능〉비문학 96쪽
	<p>지문 : 로버트 오브라이언, 기계의 진보</p> 

◆ EBS 교재 활용 대비 전략

-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연계 대상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문학 → 듣기 / 쓰기 & 어휘·어법 → 비문학’ 제재와 관련된 교재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
- 평가원이 밝힌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방침을 살펴보고, 모의평가에서 실제로 연계되어 출제된 지문(자료 포함)이나 문제 유형을 훑어보면서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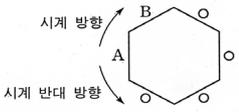
(2)

EBS 방송 교재에서 다수의 문항이 연계 출제되었다. 평가원의 발표대로 EBS 방송 교재에서 다수의 문항을 숫자와 형태를 바꾸어 출제하였다.

6월 모의평가	EBS 교재	연계 방법
가형 3번	수능 특강 수학Ⅱ 21쪽 예제 3번	숫자 변형
가형 4번	인터넷 수능 수학Ⅱ 방정식과 부등식/이차곡선 22쪽 3번	숫자 변형
가형 7번	인터넷 수능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다항함수의 적분법 12쪽 1번	숫자 변형
가형 14번	인터넷 수능 수학 I 확률/통계 43쪽 14번	형태 변형
가형 18번	인터넷 수능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다항함수의 미분법/다항함수의 적분법 22쪽 3번	숫자 변형
나형 6번	인터넷 수능 수학 I 수열/수열의 극한 8쪽 4번	숫자 변형
나형 11번	인터넷 수능 수학 I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6쪽 1번	숫자 변형
나형 12번	인터넷 수능 수학 I 수열/수열의 극한 64쪽 6번	숫자 변형
나형 14번	인터넷 수능 수학 I 행렬/지수와 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 29쪽 12번	숫자 변형
나형 18번	수능 특강 수학 I 51쪽 유제 개념 확인 1번	숫자 변형
나형 22번	수능 특강 수학 I 11쪽 예제 1번	숫자 변형
공통 21번	수능 특강 수학 I 78쪽 예제 2번	숫자 변형
가형 미적 30번	인터넷 수능 미분과 적분 33쪽 11번	형태 변형

[6월 모의평가 vs EBS 교재 분석표]

◆ 형태만 변형한 문항

6월 모의평가 가형 14번	<인터넷 수능>수학 I 확률과 통계 43쪽 14번
<p>14. A, B를 포함한 6명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그림과 같이 둘러 앉아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을 따르는 시행을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웃한 사람에게 주사위를 준다.</p> </div>  <p>A부터 시작하여 이 시행을 5번 한 후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4점]</p> <p>① $\frac{4}{27}$ ② $\frac{2}{9}$ ③ $\frac{8}{27}$ ④ $\frac{10}{27}$ ⑤ $\frac{4}{9}$</p>	<p>14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EF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꼭짓점 A 위에 놓여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이웃한 꼭짓점으로 이동하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웃한 꼭짓점으로 이동한다. 꼭짓점 A에서 출발한 점 P가 꼭짓점 C에 도착하면 더 이상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 게임을 끝낸다고 할 때, 주사위를 4번 던지고 게임이 끝날 확률은?</p> <p>① $\frac{13}{81}$ ② $\frac{5}{27}$ ③ $\frac{17}{81}$ ④ $\frac{19}{81}$ ⑤ $\frac{7}{27}$</p>

◆ 숫자만 바꾼 문항

6월 모의평가 가형 18번	<인터넷 수능> 수학Ⅱ-다항함수의 미분법 22쪽 2번
<p>18. 함수 $f(x) = 2x^4 - 3x + 1$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n \left\{ f\left(1 + \frac{3}{n}\right) - f\left(1 - \frac{2}{n}\right) \right\}$의 값을 구하시오. [3점]</p>	<p>2. 함수 $f(x) = 3x^2 + 4x - 2$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n \left\{ f\left(1 + \frac{2}{n}\right) - f\left(1 - \frac{3}{n}\right) \right\}$의 값은?</p> <p>① 10 ② 20 ③ 30 ④ 40 ⑤ 50</p>

6월 모의평가 나형 18번	<수능 특강> 수학 I 51쪽 유제 개념 확인 1번
18.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2a_4 = 16$, $a_3a_5 = 64$ 일 때, a_7 의 값을 구하시오.	1.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_n\}$ 에 대하여 $a_1a_3 = 25$, $a_2a_4 = 100$ 일 때, a_5 의 값을 구하여라.

◆ EBS 교재 활용 대비 전략

EBS 교재를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EBS 교재 목록을 확인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EBS 연계 정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원의 발표를 근거로, 2010년 6월 모의평가 이후 EBS 교재는 수능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평가원이 밝힌, 수능과 EBS 교재의 연계 방법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하겠다. 문항을 변형하여 출제하겠다는 발표를 감안하여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풀이 과정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다만, 자신의 성적 수준이나 학습 스타일이 흔들리지 않게 적절하게 기존 문제집과 EBS 교재를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

EBS 방송 교재에서 50% 정도(문항 수 기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EBS 방송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활용하여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하였으나, 활용된 지문의 수정 정도는 문항에 따라 다르게 출제되었다. 하지만, 도표 문제의 경우, 도표를 그대로 활용하여 같은 유형인 도표 문제로 출제하였으나, 도표를 설명하는 지문은 다르게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EBS 교재에서 문제를 풀었던 지문이 나온 경우,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 EBS 방송 교재와 연계된 지문이 50% 정도 출제되었다.

[2010 수능 vs EBS 교재 분석표]

6월 모의평가		EBS 방송 교재	연계 방식	지문 활용 정도
20번	밑줄 어법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21번	네모 어법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p.149 (글의 순서 정하기)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22번	무관한 문장 추론	수능 특강 (글의 주제 추론)	문제 유형 바꿈	40%~50% 수정
24번	빈칸 추론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 (네모 어법)	문제 유형 바꿈	70% 수정
27번	빈칸 추론	인터넷 수능, 영문법 특강 (밑줄 어법)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28번	빈칸 추론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 p.16 (글의 제목 추론)	문제 유형 바꿈	동일 지문
31번	밑줄 어휘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밑줄 어법)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6월 모의평가		EBS 방송 교재	연계 방식	지문 활용 정도
32번	네모 어법	수능 특강 (빈칸 추론)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35번	도표의 내용 이해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 (도표의 내용 이해)	문제 유형 동일 지문 수정	90% 변형
36번	글의 내용과 일치 여부 판단	수능 특강 (네모 어휘)	문제 유형 바꿈	동일 지문
37번	글의 내용과 일치 여부 판단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I (밑줄 어법)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39번	글의 요지 추론	인터넷 수능, 영어 어휘 특강 (네모 어휘)	문제 유형 바꿈	50% 변형
41번	글의 제목 추론	인터넷 수능, 영어 어휘 특강 (필자의 주장 추론)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42번	글의 제목 추론	인터넷 수능, 영어 독해 연습 I (연결사 추론)	문제 유형 바꿈	거의 비슷

◆ EBS 방송 교재에 실린 지문을 변형하여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하였다.

– 지문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한 경우(1)

6월 모의평가 36번	〈수능특강〉 48쪽
<p>36. Jaisalmer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p> <p>Known as the Golden City, Jaisalmer, a former caravan center on the route to the Khyber Pass, rises from a sea of sand, its 30-foot-high walls and medieval sandstone fort sheltering palaces that soar into the sapphire sky. With its tiny winding lanes and hidden temples, Jaisalmer is straight out of <i>The Arabian Nights</i>. So little has the way of life altered here that it is easy to imagine yourself back in the 13th century. It is the only fortress city in India still functioning, with one quarter of its population living within the walls. It is just far enough off the beaten path to have been spared damage from tourists. The city's wealth originally came from the substantial tolls it placed on passing merchants.</p> <p>① Khyber Pass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②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③ 인구의 절반이 성벽 안에 살고 있다. ④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⑤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했었다.</p>	<p>(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Known as the Golden City, Jaisalmer, a former caravan center on the route to the Khyber Pass, rises from a sea of sand, its 30-foot-high walls and medieval sandstone fort (A)sheltering/assaulting carved spires and palaces that soar into the sapphire sky. With its tiny winding lanes and hidden temples, Jaisalmer is straight out of The Arabian Nights and so little has life (B)alternated/alterd here that it's easy to imagine yourself back in the 13th century. It is the only fortress city in India still functioning, with one quarter of its population living within the walls, and it's just far enough off the beaten path to have been spared the worst ravages of tourism. The city's wealth originally came from the (C)substandard/substantial tolls it placed on passing camel caravans.</p> <p>(A) (B) (C)</p> <p>① sheltering ... alternated ... substantial ② sheltering ... altered ... substandard ③ assaulting ... alternated ... substandard ④ sheltering ... altered ... substantial ⑤ assaulting ... altered ... substantial</p>

– 지문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고,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한 경우(2)

6월 모의평가, 21번 영어 지문	〈인터넷 수능〉영어 독해 연습 II 149쪽
<p>21.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visiting a remote village.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 As they sat to eat, all eyes were on their noble guest. Everyone looked at (A) <u>what / how</u> the man held his chopsticks, so that they could imitate him. But then, by an unfortunate accident,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 he (B) <u>placed / was placed</u>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 and onto his neighbor's lap.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 and keep (C) <u>him / himself</u> from any embarrassment,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began to fl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p> <p>(A) what (B) placed (C) him ① what placed him ② what was placed himself ③ how placed him ④ how placed himself ⑤ how was placed himself</p>	<p>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An old Japanese legend tells how a man who was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once came to visit a remote village.</p> <p>(A)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 As they sat to eat, all eyes were on their noble guest. As the mannered man held his chopsticks, everyone at the table tried to hold his own chopsticks the same way.</p> <p>(B)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s perfection and spare him any embarrassment,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began to fl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p> <p>(C) But then, by an unfortunate accident,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 he placed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 and onto his neighbor's lap.</p>

– 지문의 내용을 많이 변형하고,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한 경우(1)

6월 모의평가 24번	〈인터넷수능〉영어 독해 연습 I 종합편 75쪽
<p>24. If you were a butterfly, would you be attracted to a more colorful flower or a less colorful one? Most of you would probably prefer the more colorful option. The same is true for pollinators such as bees and butterflies. For years, biologists have known that flowers use striking colors, scents, elaborately shaped petals, and nectar to attract pollinators. Recent studies, however, reveal another powerful tool of attraction used by flowers: _____.</p> <p>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mobile flowers are visited more often by pollinating insects than their more static counterparts. It is almost as if the flowers are waving to the insects, saying, "Welcome. Come here and have a drink." Along with this interesting finding, scientists have also concluded that, due to their greater range of motion, flowers with long, thin stalks attract more insects.</p> <p>* pollinator: 꽃가루 매개자</p> <p>① moving in the wind ② fancy color scheme ③ unique tasting nectar ④ having deep roots ⑤ receiving vocal messages</p>	<p>(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Flowers "wave" at insects to get their attention,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e finding helps explain why many flowers shake in the breeze, and reveals a previously unknown trick (A) used / using to attract insects. Scientists made the discovery while studying common wild flowers on the Welsh coast. Mobile flowers are visited more often by insects and attract a wider variety of insect species than more static blooms. For years, biologist have known that flowers use striking colors, fragrances, elaborately shaped petals and nectar (B) attract / to attract pollinating insects such as bees and butterflies. Yet no one had ever seriously considered whether moving in the wind acted as a similar signal. Scientists also revealed that flowers with long, thin stalks move around more in the wind, (C) which / it allows them to attract more insects.</p> <p>(A) (B) (C) ① using attract which ② using to attract it ③ used attract it ④ used to attract which ⑤ used to attract it</p>

- 지문의 내용을 많이 변형하고, 문제 유형을 바꿔 출제한 경우(2)

6월 모의평가 39번	〈인터넷수능〉영어 어휘특강 115쪽																		
<p>39. One of the common mistakes that employers make is looking at a team of employees as a homogeneous group that rises and falls together. Offering incentives, such as a group bonus or a vacation trip, to a team as a whole is not a smart managerial move because it fails to acknowledge who an individual is. For example, sending an entire team to Hawaii for a job well done actually discourages an employee's efforts to do his best work. He only needs to perform well enough to help achieve the team objective. If, on the other hand, the employee knew that individual rewards were possible, he would be more likely to strive to outperform expectations. While teamwork is important within a corporation, management should come up with new compensation packages to help individuals to become champions.</p> <p style="text-align: center;">* homogeneous: 동질적인</p> <p>① 성취에 대한 보상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다양한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③ 개별적 보상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 ④ 팀워크 향상을 위해 관리자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정기적인 휴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피할 수 있다.</p>	<p>(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While teamwork is important within a corporation, the team should be regarded as a support group that allows its members to become champions. Think of a jazz band. The band lays down a musical structure that allows each soloist to shine. When a saxophonist plays an (A) awesome / awful solo, he or she receives personal recognition such as applause after the solo, above the other members of the band. The rest of the members will get the change for recognition when their turn comes later in the song. Sending an entire team to a resort for a job well done actually (B) discourages / encourages an employee's efforts to do his or her best work. He or she only needs to perform enough to help achieve the team objective. If, on the other hand, the employee know that individual (C) rewards / penalties were possible, he or she would be more likely to strive to outperform expectations.</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text-align: center;">(A)</td> <td style="text-align: center;">(B)</td> <td style="text-align: center;">(C)</td> </tr> <tr> <td>① awesome</td> <td>discourages</td> <td>rewards</td> </tr> <tr> <td>② awesome</td> <td>discourages</td> <td>penalties</td> </tr> <tr> <td>③ awesome</td> <td>encourages</td> <td>rewards</td> </tr> <tr> <td>④ awful</td> <td>discourages</td> <td>penalties</td> </tr> <tr> <td>⑤ awful</td> <td>encourages</td> <td>rewards</td> </tr> </table>	(A)	(B)	(C)	① awesome	discourages	rewards	② awesome	discourages	penalties	③ awesome	encourages	rewards	④ awful	discourages	penalties	⑤ awful	encourages	rewards
(A)	(B)	(C)																	
① awesome	discourages	rewards																	
② awesome	discourages	penalties																	
③ awesome	encourages	rewards																	
④ awful	discourages	penalties																	
⑤ awful	encourages	rewards																	

◆ 일부 문항은 EBS 수능 교재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되, 문제 유형은 바꿔 출제하였다.

6월 모의평가 20번	〈인터넷 수능〉영어독해연습 II - 틀리기 쉬운 유형 149쪽 8번
<p>2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p> <p>Sir Arthur Conan Doyle,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 ① <u>where</u> other persons' feelings were concerned.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 Meredith suffered from an unusual disease that caused him ② <u>to fall</u> occasionally.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s Meredith's summerhouse, Conan Doyle in the lead, when Conan Doyle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 He judged by the sound ③ <u>which</u> the fall was a mere slip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 Therefore,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as if he ④ <u>had heard</u> nothing.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s told me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⑤ <u>far</u>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p>	<p>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p> <p>Therefore, he did not turn and he strode on as if he had heard nothing.</p> <p>Sir Arthur Conan Doyle,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 where other persons' feelings were concerned. (①)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the novelist, when Meredith was old and infirm, (②) Meredith suffered from a nervous disease that caused him to fall occasionally. (③) The two men were walking up a path towards Meredith's summerhouse, Conan Doyle in the lead, when Conan heard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 (④) He judged by the sound that the fall was a "mere slither" and could not have hurt Meredith, (⑤)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Conan Doyle later explained, "and my instincts told me that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up would be far greater than any relief I could give him."</p>

6월 모의평가 28번	〈인터넷 수능〉영어 독해연습 16쪽
<p>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p> <p>28. In Chinese food, the idea is that it should be boiling hot, because that is crucial to its flavor, embodied in the phrase <i>wok hei</i>, which means the ‘breath’ or essence of the combination of tastes added by a hot wok. In 2005 Belgian researchers at Leuven University confirmed just how the link between temperature and taste works. They identified microscopic channels in our taste buds, which seem to respond differently at different temperatures. Apparently,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tense the flavor. This is why _____, which is why ice cream makers add stacks of sugar—as you can tell all too clearly when ice cream melts. In a similar way, some bitter tastes, like tea, taste better when hot because they are more intense.</p> <p style="text-align: right;">* wok: 중국 요리용 냄비</p> <p>① ice cream tastes better when tea flavors are added ② ice cream does not taste that sweet straight from the fridge ③ they serve ice cream for dessert in Chinese restaurants ④ it is not recommended to eat ice cream while drinking hot tea ⑤ ice cream tastes sweeter especially in the winter time</p>	<p>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In Chinese food, the idea is that it should be boiling hot, because that is crucial to its flavor, embodied in the phrase <i>wok hei</i>, which means the ‘reath’ or essence of the combination of tastes added by a hot wok. In 2005 Belgian researchers at Leuven University confirmed just how the link between temperature and taste works. They identified microscopic channels in our taste buds, which seem to respond differently at different temperatures. Apparently, the higher the temperature, the more intense the flavor. This is why ice cream doesn't taste that sweet straight from the fridge, which is why ice cream makers add stacks of sugar—as you can tell all too clearly when ice cream melts. In a similar way, some bitter tastes, like tea, taste better when hot because they are more intense.</p> <p style="text-align: right;">*wok 중국 냄비</p> <p>① Interactions Between Sweet and Bitter Tastes ② A Perfect Combination of Taste and Nutrition ③ The Influence of Food Temperature on Its Taste ④ Food Preference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 ⑤ Perception of Food Flavors by Both Taste and Smell</p>

◆ EBS 교재에 실린 도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같은 유형의 문제이나, 내용을 수정하여 출제하였다.

6월 모의평가 35번	〈인터넷 수능〉영어 독해연습 104쪽																					
<p>35.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p> <p style="text-align: center;">Population Growth & Forest Loss Since 1990</p> <table border="1"> <caption>Population Growth & Forest Loss Since 1990</caption> <thead> <tr> <th>Continent</th> <th>Population Growth (%)</th> <th>Forest Loss (%)</th> </tr> </thead> <tbody> <tr> <td>Europe</td> <td>~1%</td> <td>~-1%</td> </tr> <tr> <td>North America</td> <td>~15%</td> <td>~1%</td> </tr> <tr> <td>Asia</td> <td>~25%</td> <td>~3%</td> </tr> <tr> <td>Oceania</td> <td>~25%</td> <td>~4%</td> </tr> <tr> <td>Latin America</td> <td>~28%</td> <td>~6%</td> </tr> <tr> <td>Africa</td> <td>~45%</td> <td>~8%</td> </tr> </tbody> </table> <p>The graph above shows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in the continents of the world since 1990. ① Africa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whereas Europe shows the lowest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② Africa also sh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forest loss, followed by Latin America, Oceania, Asia and North America. ③ The only continent that exhibits a negative percentage in forest loss, which translates to forest gain, is Europe. ④ A point of note is that while Asia and Oceania have similar percentages of population growth, Oceania displays less forest loss than Asia. ⑤ Overall, there are only two continents whose percentage of forest loss is greater than five percent.</p>	Continent	Population Growth (%)	Forest Loss (%)	Europe	~1%	~-1%	North America	~15%	~1%	Asia	~25%	~3%	Oceania	~25%	~4%	Latin America	~28%	~6%	Africa	~45%	~8%	<p>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p> <p style="text-align: center;">Population Growth & Forest Loss Since 1990</p> <p>The graph above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of the continents of the world since 1990. ① Europe shows by far the lowest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actually the forest increased), but Africa shows the highest. ② The population growth of Asia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Oceania, but the forest loss of Oceania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Asia. ③ North America shows the second smallest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but Latin America shows the second largest population growth and forest loss. ④ There are four continents whose percentage of population growth is greater than that of the forest loss. ⑤ North America and Asia protected their forest a lot better than Oceania and Latin America considering their population growth.</p>
Continent	Population Growth (%)	Forest Loss (%)																				
Europe	~1%	~-1%																				
North America	~15%	~1%																				
Asia	~25%	~3%																				
Oceania	~25%	~4%																				
Latin America	~28%	~6%																				
Africa	~45%	~8%																				

◆ EBS 교재의 수능 출제 대비 학습 전략

EBS 교재와 수능 문제가 70% 연계되어 출제된다고 볼 때, 70% 전부 똑같은 지문이 나올 수는 없으므로, 그 중 일부는 EBS 교재에서 다른 글과 유사한 소재나 논지가 출제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수능 시험은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순히 EBS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완벽히 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제가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문에 접근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따라서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EBS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교재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여 궁극적으로 영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 EBS 출제 연계성

[반영 비교표 - 6월 모의평가 vs EBS 교재]

6월 모의평가		BS 교재	일치 정도	교과서 및 특이 사항
윤리	2번	<수능특강> 173쪽 4번	제시문과 답지 일치	—
	3번	<수능특강> 55쪽 8번	원효의 윤리 사상 자료 활용	일반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는 자료
국사	17번	<수능특강> 179쪽 자료	백남운의 조선 사회 경제사 활용	일반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는 자료
	20번	<수능특강> 111쪽 7번	미국의 경제 원조 수혜규모 그래프 일치	—
한국지리	7번	<수능특강> 14쪽 6번	해발 고도를 나타낸 자료와 답지 일치	일반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는 자료
	17번	<수능특강> 109쪽 3번	시도별 서비스업 비중 자료 응용, 답지 유사	—
한국 근·현대사	4번	<수능특강> 45쪽 4번	서울 진공 작전 이후의 의병 활동 자료 활용	—
	17번	<수능특강> 118쪽 6번	조선 형평사 취지문의 일부를 그대로 활용	일반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는 자료
정치	17번	<수능특강> 47쪽 7번	이원 집정부제 정부 형태 자료 일치	—
	19번	<수능특강> 69쪽 3번	당선자 결정 방식의 그림 자료 유사	—
사회·문화	17번	<수능특강> 53쪽 4번	명목론, 실재론과 관련된 자료 유사	—

◆ EBS 교재 연계의 유형 및 문항 예시

- EBS 방송 교재에 실린 자료를 일부 변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문항이 과목별로 2~3문항씩 출제되었는데, 한국 근·현대사 17번 문제는 EBS 수능특강 118쪽 6번 문제에 실린 형평사 창립 취지문을 그대로 활용하고 물어보는 방식만 달리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능특강〉 한국근현대사 118쪽 6번	6월 모의평가 한국 근·현대사 17번
<p>6. 자료와 같은 취지에서 전개된 일제 강점기의 사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 자 함이 본사의 주지(主旨)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자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목전의 압박을 절규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급선무라고 설정함은 당연한 것이다.</p> </div> <p>① 신분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② 사회적 차별 의식을 없애려 하였다. ③ 일본인 농장의 소작농들이 주도하였다. ④ 일제의 헌병 경찰 통치 시기에 전개되었다. 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였다.</p>	<p>17.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여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 자 함이 본사의 주지(主旨)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떤 지위와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자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그치기 어려운 바라. 이에 지위와 조건 문제 등을 제기할 여가도 없이 목전의 압박을 절규함이 우리의 실정이요 이 문제를 선결함이 우리의 급무라고 인정함은 당연한 것이다.</p> </div> <p>① 신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② 기관지로서 ‘근우’를 발간하였다. ③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④ 소작농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⑤ 사회적 차별 의식을 없애려 노력하였다.</p>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자료를 약간 변형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그림의 내용이나 도표의 숫자를 바꾼 문항, 글 자료의 일부만을 활용한 문항 등이 출제되었다. 한국지리 1번과 17번 문제는 EBS 수능특강 13쪽과 109쪽의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하였다.

〈수능특강〉한국지리 13쪽 4번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1번
<p>4. 자료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보기 •</p> <p>ㄱ. ㉠은 공간 정보이다. ㄴ. 지리 조사를 할 때 ㉡보다 ㉢을 먼저 실시한다. ㄷ. ㉠~㉣은 지리 정보 수집 과정에 해당된다. ㄹ. ㉢은 우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p> </div>	<p>1. 그림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보기> —</p> <p>ㄱ. ㉠은 지리 정보 중에서 공간 정보에 해당된다. ㄴ. ㉢은 우선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ㄷ. ㉡은 지리 정보의 수집 과정에 해당된다. ㄹ. 지리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을 ㉡보다 먼저 실시한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div>

〈수능 특강〉 한국지리 109쪽 3번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17번
<p>3. 그래프는 서비스 수요자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가), (나) 서비스업의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체 수 기준 (통계청, 2007년)</p> <p>① (가)는 기업, (나)는 개인이 주요 고객이다. ② (가)는 (나)보다 지역적 편차가 더 심하다. ③ (가)는 (나)보다 전체 사업체 수가 더 적다. ④ (가)는 (나)보다 접근성이 큰 지역에 입지한다. ⑤ 탈공업화 단계에는 (가)보다 (나)의 비중이 증가한다.</p>	<p>17. 그래프는 수요자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가), (나) 서비스의 시·도별 종사자 수 비율을 순위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순위는 (가) 서비스의 종사자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함. (통계청, 2005년)</p> <p>① (가)는 (나)에 비해 전체 종사자 수가 적다. ② (가)는 (나)에 비해 지역 간 분포가 불균등하다. ③ (가)는 (나)에 비해 접근성이 큰 지역에 입지한다. ④ (가)는 생산자, (나)는 소비자에게 주로 제공된다. 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나)의 중요성이 높아진다..</p>

(5)

◆ EBS 출제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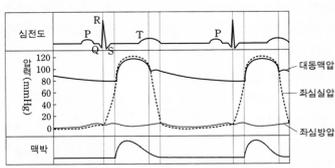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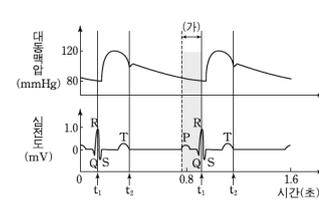
[반영 비교표 - 6월 모의평가 vs EBS 교재]

과목	6월 모의평가		EBS 교재		연계 정도	특이 사항	
물 리 I	7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수능특강	71p	10번	자료 유형과 개념 일치	
	20번	광전자의 에너지	수능특강	185p	2번	자료 유형과 개념 일치	
화 학 I	3번	물의 정수 과정	수능특강	40p	1번	자료, 핵심 내용 일치	2009학년도 수능 기출
	4번	금속의 발견과 성질	수능특강	105p	1번	자료, 핵심 내용 일치	
생 물 I	13번	유전 법칙	수능특강	151p	6번	자료, 핵심 내용 일치	
	16번	제한 효소의 기능	수능특강	189p	1번	자료 변형	
지구과학 I	13번	구름의 종류와 날씨 변화	수능특강	89p	10번	자료 유형과 개념 일치	
	15번	해성의 관측	수능특강	185p	9번	자료 유형과 개념 일치	
물 리II	13번	열기관을의 열효율	수능특강	81p	8번	거의 일치	
화 학II	19번	용액의 증기 압력	수능특강	53p	6번	자료 일치	2009년 6월 평가원 기출
생 물II	11번	광합성의 속도	수능특강	46p	4번	자료 일치	
지구과학II	7번	밀도에 의한 해류의 발생	수능특강	81p	1번	제시된 실험 자료 일치	

◆ EBS 교재 연계의 유형 및 문항 예시

- EBS 방송 교재에 실린 그림 자료를 일부 축소 변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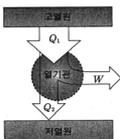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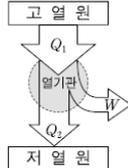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EBS 방송 교재 및 강의에 실린 그림, 그래프 자료를 축소·확대한 변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이중 생물 I 17번은 맥압과 좌심실 압력, 좌심방 압력 곡선을 없애고, 대동맥 압력과 심전도 그림을 그대로 제시한 후 심장 박동과 심전도에 대해 묻고 있다. 지학 I 13번은 구름의 형태로부터 구름과 연관된 날씨의 변화를 해석하는 문항으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종종 다루어지는 문항이다.

〈수능특강〉 생물 I 65쪽 1번	2010년 6월 모의평가 생물 I 17번
<p>1. 그림은 심장 박동에 따른 심전도와 각 부위의 압력 변화 및 맥박을 나타낸 것이다. 심전도는 심장 박동 시 나타나는 전기적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보기 ▶</p> <p>ㄱ. 심전도의 P는 심방이 이완할 때 나타나는 전기 신호이다. ㄴ. 심전도의 QRS는 심실이 수축할 때 나타나는 전기 신호이다. ㄷ. 맥박은 좌심실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으로 혈액이 방출될 때 생긴다. ㄹ. T에서 다음 P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심장의 1회 박동으로 방출되는 혈액량이 증가한다.</p> </div> <p>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p>	<p>17. 그림은 심장 박동에 따른 대동맥의 압력 변화와 심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t_1과 t_2는 심장의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나는 시점이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심전도는 심장 박동 시 발생된 전기 활동을 체표에서 측정하여 P, Q, R, S, T파로 나타낸 것이다.)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보기 ▶</p> <p>ㄱ. 구간 (가)에서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흐른다. ㄴ. t_2에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판막이 닫힌다. ㄷ. 이첨판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시점에 심전도의 T파가 나타난다.</p> </div> <p>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p>

〈수능특강〉 지구과학 I 89쪽 10번	6월 모의평가 지구과학 I 13번
<p>10. 그림 (가)~(다)는 어느 관측소에 온대 저기압이 접근하는 동안 나타난 구름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다)</p> </div> </div> <p>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보기 ▶</p> <p>ㄱ. 온난 전선이 접근하였다. ㄴ. 구름이 나타난 순서는 (가)→(나)→(다)이다. ㄷ. 전선 통과 후에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 ㄹ. 전선이 통과하면서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한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p>	<p>13. 그림 (가), (나), (다)는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전선이 접근하는 동안 관측된 권층운, 고층운, 난층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다)</p> </div> </div> <p>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보기 ▶</p> <p>ㄱ. (다)는 주로 빙정으로 되어 있다. ㄴ. 구름이 나타난 순서는 (다)→(나)→(가)이다. ㄷ. 전선이 통과하면서 풍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ㄹ. 전선이 통과한 후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p> </div>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p>

- EBS 방송 교재에 실린 문항을 일부만 바꾸어 그대로 출제하였다.

EBS방송교재 및 강의에 실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특히 6월 모의평가 물리II 13번은 열기관에서 열효율을 묻는 문항으로 문항 보기 일부와 선택지만 바꾸어 그대로 출제되었다.

〈수능특강〉 81쪽 8번	2010년 6월 모의평가 물리II 13번
<p>8. 그림은 고열원으로부터 Q_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_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p>  <p>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p>• 보기</p> <p>ㄱ. $\frac{Q_2}{Q_1}$이 작을수록 열기관의 열효율은 높아진다. ㄴ. $Q_2=W$이면 열기관의 열효율은 50%이다. ㄷ. $Q_1=W$이면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배한다.</p> <p>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p>	<p>13. 그림은 고열원에서 Q_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_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p>  <p>〈보기〉</p> <p>ㄱ. $\frac{Q_2}{Q_1}$가 작을수록 열효율은 높아진다. ㄴ. $Q_2=W$이면 열효율은 50%이다. ㄷ. $Q_1=W$이면 열역학 제 2 법칙에 위배된다.</p> <p>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p>

3. EBS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올해 수능은 평가원에서 발표한 대로 모든 과목에서 EBS 연계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능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EBS교재를 풀어보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도 따라야 한다. 유형이 유사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EBS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EBS교재를 잘 활용하되 수준별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상위권은 고난도 문항이, 중하위권은 EBS 연계 문항이 변별력 형성의 열쇠가 될 수 있으므로 중하위권 성적대의 학생들은 EBS 교재에 나오는 개념을 정리하여 익히고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 유형과 지문, 도표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EBS 교재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 수능에서 70%가 EBS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권은 'EBS+a가 중요'하다.

이번 6.10 모의평가를 작년 모의평가와 비교해 보면 만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작년 수리 '가'형 만점자는 21명이었지만 올해는 1,146명으로 54.6배 늘었다. △언어 1585명(지난해 51명) △수리 '나' 5106명(719명) △외국어 4541명(3859명)으로 모두 늘었다.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도 지난해(68명)보다 94명이나 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평가원은 EBS 연계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상위권의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상위권은 실수를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상위권의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은 난도가 높거나 EBS 교재와의 연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각 영역별로 변별력이 높은 난도 있는 문항들에 대비하고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난도가 높지 않고 작년 수능과 유형도 비슷해서 올해 수능도 무난한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과서와 EBS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부한다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능 영역별 학습전략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금년 수능시험 난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쉬운 수능은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수능 성적 위주의 정시모집 지원에서 목표대학 합격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금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선발 비중 확대, 졸업생 응시자수 대폭 증가, 주요대학의 탐구 2과목 반영, EBS 수능 연계 출제, 2012.수능 수리 영역 출제 범위 확대(현재 고2 대상) 등의 변수로 인해 어느해 보다 수능 시험 난이도의 변화와 정시모집 안정 지원 경향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모집 비중이 크게 늘어난 수시모집에 무조건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적정 지원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목표대학의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과 정시모집 진학을 위한 효율적인 수능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매년 그러하듯 6월 수능모의평가는 그 해 수능 출제의 모델이 되어왔다. 따라서 지난 6월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모의평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영역

1.

자신에 대한 분석은 학습의 체계와 방법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두 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선불리 예단하지 말고 그동안의 모의고사 시험지를 놓고 문제의 난이도도 염두에 두고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에 대한 피상적 접근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그릇 판단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지문이든 문제유형이든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언어영역 공부는 문제 풀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 풀이는 문제에 대한 감각을 키워 줄 수 있겠지만 언어의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에 대한 분석적, 심층적 독해력은 향상시키지 못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언어영역의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문제는 지문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 적응력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

는 학습을 통해 자의적 판단과 실수로 인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출문제(교육청 모의학력평가, 평가원 모의평가)를 선택하고 지문, 문제유형, 선택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언어 영역의 핵심에 다다를 수 있다.

3.

수능이 멀지 않았다고 하여 다급한 나머지 처음부터 문제 풀이 요령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올리는 데는 유효할지 몰라도 고득점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문제 유형에 따른 학습 비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응용·변형되어 출제되는 최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제재별 특성에 따른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다. 운문은 화자의 정서 및 태도·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설은 사건의 전개 양상·인물의 성격·서술자의 시각(위치)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나 태도 및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극문학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화의 특성 및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4.

몇 년 전부터 문학에 비해 비문학 제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읽기 영역에서도 지문이나 <보기> 형태의 자료, 문제 등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룸으로써 현실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제재의 글뿐만 아니라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자주 접해 보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글이나 자료를 많이 접해 보라는 것이 아니다. 글의 경우에는 글쓴이가 전달하거나 주장하는 핵심에 주목하면서 부차적인 정보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해 나가는 체계적인 독해가 필요하고, 자료 형태로 제시되는 그래프나 도표의 경우에는 도식화된 값의 증감 및 변화 양상,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등에 주목하여 해석해 나가는 분석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

가

수능에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쯤 풀어 본 문제가 비슷하게 혹은 약간 변형되어 출제된다. 따라서 시험을 본 후에는 정답을 맞히지 못했거나, 정답을 맞혔더라도 정확히 알지 못해 ‘찍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면서 잘 몰랐던 학습 내용을 보충해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틀린 문제가 많아서 다시 풀어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기출 수능, 모의평가) → EBS 방송 교재 및 강의 → 전국연합학력평가 → 일반 교재’의 순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리 영역

1.

수리 영역의 문항들은 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관 지을 수 있다면 문제 풀이에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능 기출 문제(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통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와 중요하게 출제되는 개념과 단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수능 기출 문제는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하게 문제 풀이에 치우치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풀어 보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유형을 파악하면서 개념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평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여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즉, 자신이 약한 부분이나 단원을 파악한 후 그 단원과 관련된 내용이나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취약 단원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또한 날마다 시간을 안배하여 수리 영역 문항을 풀면서 수학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가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이 여러 개념을 통합하여 묻는 문항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여러 개념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기 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지 말고, 문제에 쓰인 개념을 이해하고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4.

상위권은 1등급을 받기 위해 변별력이 높은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의가 제시되는 <보기> 문항이나 실생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통합형 문제에도 대비해 두어야 한다.

중위권은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유형별로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 문제집으로 유형을 파악한 후 유형별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하위권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수능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 수능에서 보았듯이 최근 수능이 기출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학습 방법이 좋다.

5.

자신이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문제를 풀고 나서 자신이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맞아도 맞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같은 문제일지라도 다음에 숫자를 바꾸거나 조건문을 조금만 바꾸어도 식의 전개과정이나 내용이 바뀐다. 그러므로 간단한 문제일지라도 자신이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영어) 영역

1.

외국어(영어) 영역은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다. 듣기 영역은 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최상의 길이다. 덧붙여 관용어구를 정확하게 익혀 두고, 다양한 대화체 어휘를 숙지해 두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독해는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빨리 읽고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시간을 측정하면서 독해를 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휘는 문장과 함께 익혀야 하며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휘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교재에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자신만의 단어장 속에 의미를 찾아 적어 둔 후에 틈나는 대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때 다양한 의미와 파생어도 함께 암기해야 한다.

2.

가 .

문법 문제는 빠짐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문법 사항들은 꼭 숙지하여야 한다.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문법 사항은 항상 체크를 하여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 문법 문제를 무조건 기피하여 포기하지 말고 평소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문법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범위의 문법적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해 둔다면 새로운 개념의 문법 문제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

3.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 어구 추론과 접속사 추론, 그림을 보고 어휘를 파악하는 문제 등 어휘 문제의 비중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 추론 능력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림을 보고 문맥에서 적절하게 쓰인 어휘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다소 생소한 소재의 그림과 내용을 다룬 문제와 전문성이 짙은 글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배점이 높다고 하여 자칫 긴장하여 지레 겁먹고 문제 자체를 놓치는 경향이 많다. 문

맥을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확한 어휘의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어휘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꾸준한 훈련을 한다면 점수 획득의 가능성도 커진다.

4.

개인에 따라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어렵게 느끼는 유형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성적을 한 단계 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번 여름 방학 중에 잘 틀리는 유형을 공략해야 한다. 결국은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항이 자신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은 잘 알고 있으나 학기 중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다면, 이번 여름 방학이 절호의 기회이다. 자신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5.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항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다. 이러한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독해에서 그치지 않고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평소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자주 접하도록 하여 폭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매년 변별력 강화를 위한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빈칸추론, 어휘,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 무관한 문장 찾기, 글의 순서 배열하기, 문단 요약, 장문 독해 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제 유형이다. 이 중에서 특히 빈칸 추론 문제는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할애하여 유형 풀이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사회탐구 영역

1.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최근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은 피상적으로 교과 개념을 암기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불리하다. 새로운 각도에서 개념·원리에 접근하거나 기존의 익숙한 표현이 아닌 새로운 서술로 답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는 문제라고 생각하

면서도 실제 답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능에서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자료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의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개념과 원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 정리된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하는 공부 습관을 들이자.

2.

교과서는 가장 확실한 수능 참고서이다. 수능 문제는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교과서의 목차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가장 잘 보여 준다. 교과서를 속독하여 교과서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자. 각 교과의 1단원은 수능에서의 출제 비중은 낮으나 학습 전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단원은 학습할 현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단원으로, 2단원 이후부터 전개될 내용의 기본 바탕이 된다. 이러한 1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2단원 이후부터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파악해 보자. 속독할 때 주의할 점은 공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여 참고서를 찾아볼 필요는 없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3.

교과서의 전체 구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는 최근 3개년 수능 출제 문제를 교과서 목차에 나와 있는 소단원으로 분류해 보자. 직접 소단원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에서 제공하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수능 문제를 직접 교과서 목차에 나와 있는 소단원으로 분류해 보자. 이를 통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와 단원별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항의 성격과 자료의 구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능 문제가 실생활 자료를 제시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자.



과학탐구 영역

1.

최근 수능에서는 정확한 개념이 없이 제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보다는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항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명심하자. 한 번 틀린 문항은 자주 틀리게 되는데, 이는 한 번 잘못된 개념을 익히면 바로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여 정확한 개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 , , .

과학탐구 영역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기본 지식을 키우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 예를 들어 도표, 그래프, 그림 등의 형식을 이용한 자료들이 학습 과정이나 문항 풀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관련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해 두도록 하자.

3. .

수능 준비의 기본은 기출 문제를 완벽히 분석하는 것이다. 여름 방학 동안에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출제될 만한 내용은 그동안의 수능에서 모두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의 유형이나 바탕이 되는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으므로 기출 문제의 정리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출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기출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철저히 하고,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자.

4. .

자료의 해석 및 분석 능력과 더불어 과학탐구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험, 탐구 활동의 설계 및 수행 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직접 해 본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관련 개념과도 연관 지어 이해해 두도록 하자.

5. .

과학 개념을 실생활과 연관시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심화선택 I의 경우 과학 개념을 생활 소재와 연관시켜 많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에 소개된 읽기 자료나 심화 자료는 물론 과학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사 관련 문항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 소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수준별 학습 전략



최상위권 수험생

최상위권 학생들은 주요 과목의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틈틈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대학별 고사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서술식 학습을 통해 사고력 확장과 함께 영역별 개념 이해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의 학습이 중요하다. 언어영역은 모의평가의 틀린 문항이나 까다로운 문항의 정답이 아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리영역 역시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거나, 심화학습 문제의 풀이과정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외국어영역과 탐구영역도 자주 틀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서술식 학습을 통해 대학별 고사에도 대비하는 학습법으로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상위권 수험생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영역과 큰 변별력을 보이는 수리영역이 상위 득점을 얻기 위한 가장 큰 변수이다. 따라서 언어영역과 수리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위권 학생들은 부족한 과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사탐, 과탐 영역의 성적에 대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이후에 큰 폭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수리영역의 점수를 안정시키고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과목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습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 반영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강점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할 것이다.



중위권 수험생

중위권 학생들은 언어, 수리, 외국어 과목 중에서 가장 부족한 과목을 시급하게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수대의 학생들은 어떤 과목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외국어 영역을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영역별 반영에 따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어려운 과목을 포기하고 특정 과목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기본

적인 공부는 모든 영역을 하면서 영역별로 학습 비중에 차등을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중위권의 경우 실수를 최소로 줄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



하위권 수험생

하위권 학생들은 언어영역에서 학생들 간의 점수 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어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언어영역의 점수를 높이면 사회탐구나 외국어영역의 성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자율 학습 시간에 새로운 것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공부의 기본인 예습과 복습을 하는 습관을 길러 학교 수업에 대한 충실도를 높이고, EBS 수능 방송의 진도에 따라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병행하면 좀 더 빠른 기간에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이 이 점수대에 있다면 "가장 큰 폭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점수대별·영역별 특성을 무시한 목표 설정은 별다른 성과 없이 심적인 불안만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습 대책은 수험생의 영역별 강, 약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학습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1. 언어영역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상위권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5~7문항 출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틈틈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지를 골라내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중위권	지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훈련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중위권은 지문과 문제에 대한 꼼꼼한 분석 능력이 떨어져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비문학 제제는 글쓴이의 입장과 핵심어를 중심으로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문학 제제는 기본적인 문학 이론, 개념 등을 익혀 두어야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하위권	우선 국어와 문학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자.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글(문학 작품 포함)을 여러 번 읽고 주제와 소재, 표현상의 특징 등을 암기할 정도로 익힌 다음,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글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좋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2. 수리 영역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상위권	신유형 문항이나 고난도 문항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단원 또는 특정 부분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벡터, 공간도형, 순열과 조합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는 마무리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하고 문제를 풀 때에도 되도록이면 실전처럼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위권	매년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던 수열, 수열의 극한, 다항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단원은 매년 2~3문제 이상씩은 꼭 출제가 되었던 단원이다. 오답 체크를 통해 취약 부분의 정리가 다 되었다면 조금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 조금씩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보통 중위권과 상위권은 고난도 문제 1~2개를 맞느냐 틀리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에 도전해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하위권	교과서 문제만이라도 꼭 다시 보고, 수능에서 꼭 출제되는 지수와 로그, 행렬,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의 극한 단원부터 공략하라.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수학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일단 수학과 친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하라. 교과서 문제는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이를 풀다 보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3. 외국어 영역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상위권	단서를 정확히 찾아 정답을 고르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들도 비교적 어려워하는 어휘와 어법을 정리하고, 듣기 문제가 포함된 50문항으로 구성된 실전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이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위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이어질 글의 순서 정하기,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파악하기, 무관한 문장 고르기, 글의 요약, 장문 독해, 어휘, 어법'의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 풀이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세부적인 공부 방법으로 철자가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암기해야 하며,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읽도록 하고, 듣기 공부는 기출 문제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위권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출제 경향과 구문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주요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100일을 남긴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때 어휘의 뜻은 물론이고,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등을 찾아 반드시 함께 암기해 두어야 한다. 기출 문제를 풀 때에는 첫 문장의 해석이 가장 중요하며, 연결사 등을 유심히 보면서 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글의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 문제 풀이의 기본이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사회탐구 영역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역사 교과군	<p>▶ 상위권 어떠한 제도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거나, 두 시대의 특징을 대비·분석하는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는 주제를 통시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지역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특정 시기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묻거나 동·서양의 상황을 연결 지어 묻기도 하므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연대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p> <p>▶ 중위권 개념 원리를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교과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중요하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 사진, 그림, 표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는 조약, 강령, 칙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각각의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기와 각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아울러서 파악하고, 정치·경제 제도의 경우 시기별 변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p>
윤리 교과군	<p>▶ 상위권 윤리 교과에서 1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정형화되다시피 한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관련한 내용을 심도 깊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에 자주 비교되었던 사상들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별로 비교되지 않았던 사상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윤리 사상을 다양하게 범주화해 보는 것이 좋다.</p> <p>▶ 중위권 자주 출제되는 동·서양과 한국의 윤리 사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각 사상의 핵심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읽어가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세부적인 내용을 동시에 구조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여 표를 만들어 작성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p>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지리 교과군	<p>▶ 상위권 새롭게 재구성되거나 변형된 모식도와 지형도, 기후도, 그래프 등을 제시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자료들의 작성 과정을 이해하고 비슷한 주제의 그림 자료의 변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나라 및 세계 각 지역의 세부적인 특징을 묻거나 잘 다루어지지 않던 주제를 활용하는 형태로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p> <p>▶ 중위권 지형도나 기후도, 그래프 등을 분석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므로, 기후, 지형, 자원 등과 관련된 각종 용어들을 지형도나 모식도, 사진 자료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그림 자료와 관련된 교과 지식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특히, 지형도를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형도를 읽는 방법 및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픽 자료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p>
일반사회 교과군	<p>▶ 상위권 자료 분석형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자료를 해석·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교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는 분석하여 답지의 진위를 판별하거나 단원 간 개념을 통합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과의 주요 개념들을 피상적으로 암기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교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 다양한 자료들과 여러 유형의 문항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p> <p>▶ 중위권 일상 생활의 사례를 교과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여러 개념과 원리를 복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교과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데, 기출 문제의 자료가 변형·재구성되어 출제되기도 하므로 꼼꼼히 살펴두면 좋다.</p>

5. 과학탐구 영역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물리 Ⅰ·Ⅱ	<p>▶ 상위권 고난도로 출제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새로운 형식의 자료를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기 보다는, 단원 간 개념을 통합시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 수능, 교육청 및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신유형 문항을 따로 정리하고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p> <p>▶ 중위권 물리 교과는 유기적으로 연관된 개념이 많으므로 공식이나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말고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일반적인 문제 풀이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정확히 학습해 두어야 한다. 특히, 전 단원에 걸쳐 고루 활용되는 그래프 분석 방법, 운동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p>

구분	성적대별 학습전략 포인트
<p>화학 I·II</p>	<p>▶ 상위권 화학 I에서는 양금 생성 반응이나 중화 반응과 관련된 정량적인 계산이 필요한 문항과 기체의 성질과 관련된 문항이 고난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화학 II에서는 물질의 상태와 용액 단위에서는 정량적인 계산 문항을 중심으로, 물질의 구조 단위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화학 반응 단위에서는 탐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p> <p>▶ 중위권 화학 I에서는 각 단위에서 다루는 주요 물질의 특성을 꼼꼼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탄소 화합물 단위에서는 물질과 관련된 다양한 화학 반응과 성질 및 용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화학 II에서는 탐구 해석형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주요 개념을 탐구 실험이나 그래프 등의 자료에 적용하는 다양한 문항을 접해보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p>
<p>생물 I·II</p>	<p>▶ 상위권 수능일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기존에 공부했던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기출 모의고사와 같은 실전 문항을 많이 풀면서 고난도 신유형 문항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생물 I은 순환, 호흡, 생식, 유전 단위에서, 생물 II는 물질 대사와 생명의 연속성 단위에서 고난도 문항이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단원을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해 두어야 한다.</p> <p>▶ 중위권 생물 교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취약했던 부분은 보강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자료를 재해석하는 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틀렸던 문제는 오답 노트를 활용하여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석해 두는 것이 좋다.</p>
<p>지구과학 I·II</p>	<p>▶ 상위권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으로 주로 출제되는 천문학 관련 문항의 경우 개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응용된 자료에 대한 해석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낯선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전 문제 풀이 감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p> <p>▶ 중위권 지구과학에서는 주로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 도표 등의 그래픽 자료를 반드시 관련 개념과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p>

2011 정시모집군 변동사항, 분할모집 대학

2011학년도 수시모집 인원

대학수	2011학년도 모집인원 (%)		2010학년도 모집인원 (%)	
국공립대 : 30개교 사립대 : 155개교 교육대 : 10개교 합계 : 195개교	231,444명	일반전형 : 112,196명 (48.5%)	219,024명	일반전형 : 111,705명 (51.0%)
		특별전형 : 119,248명 (51.5%)		특별전형 : 107,319명 (49.0%)

2011학년도 정시 및 수시 모집인원 비교

모집구분	증감	2011학년도	2010학년도
수시	▲12,420명	231,444명 (60.8%)	219,024명 (57.9%)
정시	▼9,961명	149,156명 (39.2%)	159,117명 (42.1%)

1.

대학명 및 모집구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비고 (2010학년도 대비)
	가	나	다	가	나	다	
서울대		○			○		
연세대	○	○		○	○		
고려대(인암)	○			○			
고려대(세종)	○		○	○		○	
서강대		○			○		
성균관대	○	○		○	○		
한양대	○	○		○	○		
한양대(에리카)	○	○	○	○	○	○	
이화여대	○			○			
건국대		○	○		○	○	
경희대	○	○		○	○	○	2011학년도 "다"군 추가
중앙대	○	○	○	○	○	○	
동국대	○	○		○	○		
동국대(경주)	○	○	○	○	○	○	
서울시립대	○	○		○	○		
숙명여대	○	○	○	○	○	○	
인하대	○	○		○	○		
홍익대	○	○	○	○	○	○	
송실대	○	○	○	○	○	○	
아주대	○		○	○		○	
국민대	○	○	○	○	○	○	
단국대	○	○	○	○	○	○	

대학명 및 모집구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비고 (2010학년도 대비)
	가	나	다	가	나	다	
한국외대	○	○		○	○		
한국외대(응인)			○			○	
항공대		○	○		○	○	
경원대	○	○	○	○	○	○	
경기대	○	○	○	○	○	○	
세종대	○	○		○	○		
명지대		○	○		○	○	
명지대(응인)		○	○		○	○	
기톨릭대	○	○	○	○	○	○	
성신여대	○	○		○	○		
덕성여대	○	○		○	○		
강원대(춘천)	○	○	○	○	○	○	
강원대(삼척)		○	○		○	○	
영남대	○		○	○		○	
원광대	○		○	○		○	
조선대	○	○	○	○	○	○	
관동대	○	○	○	○	○	○	
상지대	○		○	○		○	
대전대	○	○	○	○	○	○	
세명대		○	○		○	○	
순천향대		○	○		○	○	
인제대	○	○	○	○	○	○	
한국해양대	○		○	○		○	
군산대	○		○	○		○	
경북대	○	○		○	○		
경북대(상주)	○			○	○		2011학년도 "나"군 추가
부산대	○	○		○	○		
전남대	○	○		○	○		
충남대	○	○		○	○		
전북대	○	○		○	○		

2. 2011

분할모집 군	대 학 명	
가/나 (31개교)	서울	덕성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연세대, 장로회신학대, 한국외대, 한국체육대
	경기 인천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대전 충남	공주대, 백석대, 상명대(천안), 충남대, 한남대
	충북	충북대
	대구 경북	경북대(대구/상주)
	부산 울산 경남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대(밀양), 울산대
	광주 전남	전남대(광주/여수)
	전북	전북대
	강원	연세대(원주)

분할모집 군	대 학 명	
가/다 (31개교)	서울	광운대, 삼육대
	경기 인천	성결대, 신경대, 아주대, 을지대(성남), 평택대, 한신대
	대전 충남	고려대(세종), 호서대
	충북	건국대(충주), 영동대, 중원대, 충주대
	대구 경북	금오공과대, 김천대, 안동대, 영남대
	부산 울산 경남	경상대, 부산가톨릭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광주 전남	목포대, 목포해양대
	전북	군산대, 예원예술대, 원광대, 한일장신대
	강원	상지대, 한라대
	제주	탐라대
나/다 (40개교)	서울	건국대, 그리스도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한영신학대
	경기 인천	가천의과학대, 경희대(국제), 명지대(용인), 수원대, 안양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용인), 한국항공대
	대전 충남	금강대, 단국대(천안), 선문대, 성민대, 순천향대, 한국기술교대
	충북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서원대, 세명대
	대구 경북	건동대, 경운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양대, 위덕대, 한동대
	부산 울산 경남	고신대, 한국국제대
	광주 전남	목포가톨릭대, 한려대
	전북	예술대
	강원	강원대(삼척), 한중대
	제주	제주대
가/나/다 (60개교)	서울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 국민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중앙대, 추계예술대, 한성대, 홍익대
	경기 인천	강남대, 경기대(수원), 강원대, 단국대(죽전), 대진대, 한양대(에리카), 협성대
	대전 충남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서남대(아산), 우송대, 중부대, 홍익대(조치원)
	충북	극동대, 청주대
	대구 경북	경일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부산 울산 경남	경남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부산), 영산대(양산), 인제대
	광주 전남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불대, 동신대, 순천대, 조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
	전북	서남대(남원), 우석대, 전주대
	강원	강릉원주대, 강원대(춘천), 경동대, 관동대, 한림대

 2011학년도 분할모집 대학수 비교

정시분할모집 대학	증감	2011학년도	2010학년도
가/나/다군	▲4	60개교	56개교
가/나군	▲1	31개교	30개교
가/다군	▲2	31개교	29개교
나/다군	▲2	40개교	38개교

2011 주요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1차 보다는 수시2차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 중에서 일부 대학, 일부전형에서만 4개 영역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2~3개 영역의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다.

동일한 대학이라도 전형유형, 시기 및 학과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다양하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과 학과가 어떠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지원해야 한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최종 전형 단계를 기준으로 함.

※ 2011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이므로 추후 대학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	가톨릭대	2차	일반학생 II	인문사회 : 언, 수, 외, 사(2)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이내 자연공학 : 언, 수, 외, 과(2) 중 1개영역 3등급이내 특수교육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생명과학, 생명환경공학부 : 언, 수, 외, 과(2)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디지털미디어학부 : 언, 수, 외, 탐(2)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생활과학부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이내
	건국대	1차	논술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백분위 76이상 특성화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자율전공 : (인문)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백분위 89이상 (자연)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학생부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자연 : 언, 수가, 외 중 2개영역 백분위 76이상(수외에 : 94이상) 특성화 : 언, 수가, 외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자율전공 : (인문)언, 수, 외 중 2개영역 백분위 89이상 (자연)언, 수가, 외 중 2개영역 백분위 86이상
	경희대	1차	일반학생	[우선선발] 한의예 : 언, 수가(인문 : 나), 외, 과(2-인문 : 사) 중 3개영역 1등급 [일반선발] 인문, 자연 : 언, 수(일부 수가), 외, 탐(2-일부과탐) 중 2개영역 2등급 (한의예 3개영역1등급)
			교과우수자	인문, 자연 : 언, 수(일부수가), 외, 탐(2)(일부과탐)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한의예 : 언, 수가(인문 : 나), 외, 과(2-인문 : 사) 중 3개영역 1등급이내
	고려대	2차	지역우수 인재	인문 : 언, 수, 외, 탐(2 : 3응시필수)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 3응시필수)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일반전형	[우선선발]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언/외1등급, 수1등급 (경영, 정경, 자율전공 : 언, 수, 외각1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수가1등급, 그외 1개영역 1등급 (의과대학 : 수가, 외각1등급, 언/과 중 1등급) [일반선발]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	광운대	2차	교과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2-자연 : 과) 중 2개영역 3등급이내 (인문 : 직탐선택자지원불가, 자연 : 사탐 및 직탐 선택자 지원 불가)
	국민대	1차	논술우수자	언, 수, 외, 탐(2-자연 : 과) 중 2개영역 백분위 85점이상
		2차	교과성적 우수자(II)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백분위 85점이상 자연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백분위 75점이상
	덕성여대	2차	학생부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사(2) 중 2개영역 3등급이내 자연 : 언, 수, 외, 과(2) 중 1개영역 3등급이내 Pre-Pharm · Medi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동국대	2차	학업성적 우수자	언, 수, 외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은1개영역 2등급이내 또는 2개영역 3등급이내) 수학교육 : 수리기형 2등급이내, 경찰행정 : 언, 수, 외 중 2개영역평균 1.5등급이내
	상명대	1차	학생부주요 교과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중 2개영역 등급합 60이내 자연 : 언, 수, 외 중 2개영역 등급합 70이내 사범 : 언, 수, 외 중 3개영역 등급합 90이내
			학생부선택 교과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중 2개영역 등급합 60이내 자연 : 언, 수, 외 중 2개영역 등급합 70이내 사범 : 언, 수, 외 중 3개영역 등급합 90이내
	서강대	2차	일반전형	인문 : 언, 수나, 외, 사(2) 중 3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수가 또는 과탐 중 1개 포함)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선발	인문, 자연, 간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유전공학부(자연) : 언, 수가,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특기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의예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서울산업대	수시	일반전형	공과, 자연생명과학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수리가4등급이내필수) 합 12등급이내 인문사회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언어영역3등급이내필수)합 9등급이내
	서울시립대	2차	서울고교 우수인재	[수능조건시] 인문 : 언, 수, 외 등급 합 50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등급합 60이내 [수능조건비] 인문 : 언, 수, 외, 사(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3등급이내
		3차	서울유니 버시안	수(자연 : 수가), 외 중 1개영역 1등급, 나머지 영역 3등급 이내
	서울여대	2차	일반학생 (면접형)	언, 수, 외, 탐(2) 중 2개 영역 3등급이내(수가, 과탐은 4등급 이내도 가능)
			일반학생 (논술형)	언, 수, 외, 탐(2) 중 2개 영역 3등급이내(수가, 과탐은 4등급 이내도 가능)
	성균관대	1차	학교생활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등급합 60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60이내(컴교과는니형, 사탐가능)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	성균관대	2차	일반전형	인문 : 언, 수, 외 등급합 60이내(*우선 : 언, 수, 외등급합40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등급합 60이내 (우선 : 수가, 과(2) 등급합30이내) 자유전공/글로벌경제학/글로벌경영학 : 언, 수, 외 등급합 40이내 (우선 : 언,수,외 모두1등급) 반도체시스템공학 : 수가1등급+과(2)1등급/수가1등급+과Ⅱ1등급 컴교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등급합 60이내
	성신여대	1차	일반학생	×(글로벌의과학 : 외국어 백분위 92이상)
		2차	일반학생	[우선선발]언, 수, 외, 탐(2) 중 인문계 2개영역 평균 2등급, 자연계 2개영역 평균 2.5등급이내(글로벌제외) [일반선발]인문, 자연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각 4등급이내 글로벌의과학 : 외국어영역 백분위 92점이상 간호 : 인문, 자연 수능반영영역 다름
	숙명여대	2차	논술 우수자	우선선발만최저학력기준있음 글로벌서비스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1등급 또는 언, 수, 외 등급합이 40이내 인문, 의류, 식품영양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송실대	2차	학생부 우수자	인문, 법과, 사회과학, 경제통상, 경영 : 언, 수, 외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 금융 : 수, 외 모두 1등급 자연, 공과, IT대 : 언, 수, 외, 탐(2-일부과탐) 중 1개영역 2등급 또는 2개영역 3등급이내
	연세대	1차	일반 우수자	[우선선발] 인문 : 언, 수, 외 모두 1등급(미달시등급합이40이내) 자연 : 수가, 과(2) 모두1등급(미달시등급합이30이내) [일반선발]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수가 또는 과탐 하나 포함) 의, 치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1등급(우선없음)
		2차	진리,자유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수가또는과탐하나포함) 의, 치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1등급이내
	이화여대	1차	일반전형	상위60%, 국내고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저학력기준 없음 인문, 자연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과학, 공과, 수학교육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과학교육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미래 과학자	상위50%, 국내고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저학력기준 없음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이화글로벌 인재	상위50%, 국내고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저학력기준 없음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2차		학업능력우수자	인문, 자연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우선 : 2개영역1등급이내) 자연과학, 공과, 수학교육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우선 : 2개영역1등급이내) 과학교육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우선 : 2개영역1등급이내)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울	중앙대	2차	논술 우수자	*우선선발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 의학부 : 언, 수가, 외 중 2개영역 1등급+과(2)1등급
			학생부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우선 : 3개 영역 등급합50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우선 : 3개 영역등급합 5이내)
	한국외대	2차	일반II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상
			일반III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등급합 50이내
	한양대	1차	학업 우수자	인문, 상경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수가 또는 과(2)중1개 필수 포함) 의예 : 수가 영역 1등급, 언, 외, 과(2) 중 2개영역 1등급, 나머지 1개영역 2등급이내 정책 : 언, 수, 외영역 등급합 40이내 파이낸스경영 : 수, 외영역 모두 1등급 또는 언, 수, 외 등급합 40이내
			공학인재	자연 : 수가영역이 1등급이고 과탐(3) 중 2개과목 1등급이내와 1개과목 4등급이내 / 수가영역이 1등급이고 과탐II 1개과목 1등급, 2과목 4등급이내 (과탐3개과목필수)
	홍익대	1차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1개영역 2등급이내(건축1등급) 자율전공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2차	수학능력 우수자	경영, 문과, 법과, 경제, 예술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 전영역 3등급이내 공과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이내(건축학부1등급) *각 모집 단위별로 상이
인천 경기	가천의과 학대	2차	학생부 우수자	경상, 응급구조, 식품영양, 보건행정, 의공학, 보건환경시스템, 정보공학, 자율전공 : 언, 수, 외, 탐(2) 중 1개영역 3등급이내 *각 모집 단위별로 상이
	경원대	2차	교과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1) 중 2개영역 3등급이내(아간4등급) 한의예과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1등급이내 간호학 : 수, 외, 사/과(1)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경인교대	수시	글로벌교 육리더십	언, 수, 외, 탐(2) 4개영역 평균백분위 830이상
	경희대 (국제)	1차	일반학생	[일반선발] 인문, 자연 : 언, 수(일부수가), 외, 탐(2-일부과)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동서의과학과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2차		교과 우수자	인문, 자연 : 언, 수(일부수가), 외, 탐(2-일부과탐) 중 1개영역 2등급이내 동서의과학과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2등급이내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인천 경기	단국대	1차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3등급이내 자연 : 언, 수(일부 : 수가), 외, 탐(2-일부 : 과) 중 2개영역 3등급이내
	아주대	1차	일반전형1	×(의학부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1등급 금융공학부 : 수가, 외 1등급 또는 언, 수, 외 등급합 4이하[수리(나)는 1등급]
			학생부 우수자1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상위 2개영역 백분위평균 85점 이상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상위 2개영역 백분위평균 80점 이상
		2차	학생부 우수자2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상위 2개영역 백분위평균 85점 이상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상위 2개영역 백분위평균 80점 이상
	인천대	2차	지역우수 인재	인문 : 언, 수, 외, 사(1) 중 2개영역 3등급이내(사범대 2등급) 소비자아동, 패션산업 : 언, 수, 외, 탐(1)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 외, 과(1) 중 2개영역 4등급이내(사범대 3등급)
	인하대	2차	발표우수자	인문 : 언, 수나, 외, 사(2) 중 2개영역 합 5등급 이내 아태물류학부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등급 이내 글로벌금융학부 : 언, 수, 외 중 2개영역 1등급 자연, 기초의과학부 : 언, 수가, 외, 과(2) 중 1~2개 영역 2등급 이내 간호, 건축, 생활과학 : 언, 수, 외, 과(2) 중 1~2개 영역 2등급 이내 에너지자원공학과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 영역 합 3등급 이내
	중앙대 (안성)	2차	논술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3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3등급
			학생부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3등급이내(*우선 : 3개영역 등급합 7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평균 3등급이내 (*우선 : 3개영역 등급합 7 이내)
	한국외대 (용인)	2차	일반II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7이내
			일반III	인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등급합 50이내 자연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60이내
	한국 항공대	2차	학업성적 우수자	인문, 사회 : 언, 외, 탐(2) 중 1개영역 2등급 이내 공학 : 수, 외, 과(2) 중 1개영역 2등급 이내 이학 : 수, 외, 탐(2) 중 1개영역 2등급 이내
	한양대 (에리카)	1차	학업우수자	인문, 상경 : 언, 수, 외, 탐(2)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 영역 3등급 이내(수가 또는 과탐 반드시 포함)
		2차	일반우수자	우선선발 없음 인문, 상경 : 언, 수, 외, 탐(2) 중 2개 영역 등급합 50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 영역 등급합 50이내(수가 또는 과반드시 포함)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원 충청 권	강원대 (삼척)	수시	일반전형	응급구조, 간호, 물리치료 : 수리 또는 외국어 5등급 이내
	강원대 (춘천)	1차	내신성적 우수자	인문사회 : 언어 또는 외국어 5등급이내 자연 : 수리 또는 외국어 5등급이내(수의예 : 수가 또는 외국어 2등급 이내)
			수능등급 우수자	언, 수, 외 등급 합 일반대학 10등급, 사범대학 8등급,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과학대학 12등급 이내
			특정과목 성적 우수자	국어지원 : 언어 3등급이내 / 영어 지원 : 외국어 3등급이내 / 수학지원 : 수리 4등급 이내 / 과학지원 : 과탐1개 또는 해당과목 3등급이내 / 제2외국어 지원 : 제2외국어 3등급 이내
	강원대 (춘천)	2차	일반전형	인문사회 : 언어 또는 외국어 5등급 이내 자연 : 수리 또는 외국어 5등급 이내(수의예 : 수가 또는 외국어 2등급 이내)
			학생부 우수자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각 4등급(간호 : 3등급)이내
	건국대 (충주)	2차	학생부 우수자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각 4등급(간호 : 3등급)이내
	고려대 (세종)	1차	교과성적 우수자	언, 수(자연 : 수가), 외, 탐(2 : 3 응시 필수 / 자연 : 과) 중 1개영역 2등급 또는 2개 영역 3등급이내
		2차	일반전형	언, 수(자연 : 수가), 외, 탐(2 : 3 응시 필수 / 자연 : 과) 중 1개영역 2등급 또는 2개 영역 3등급 이내
	공주교대	수시	고교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3) 등급합 10등급
	단국대 (천안)	1차	일반학생	간호학과 : 언, 수, 외, 과(2)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의학우수자	의예, 치의예 : 언, 수가, 외, 과(3) 중 2개영역 1등급 이내
		2차	일반학생	간호학과 : 언, 수, 외, 사(2)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의학지역 우수자	의예 : 언, 수가, 외, 과(3) 중 2개영역 1등급 이내
	연세대 (원주)	1차	학생부 우수자	인문, 사회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등급합 10이하 또는 1개영역 2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60이하 또는 1개영역 2등급 의예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1등급(과탐에서물리/화학 반드시 응시)
2차		일반 우수자	인문, 사회 : 언, 수, 외, 탐(2) 중 3개영역 등급합 100이하 또는 1개영역 2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중 2개영역 등급합 60이하 또는 1개영역 2등급 의예 : 언, 수가, 외, 과(2) 중 3개영역 1등급(과탐 물리/화학 반드시 응시)	
청주교대	수시	고교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4) 중 등급합 12등급이내	
충남대	수시	일반전형	인문 : 언, 수나, 외, 사(2) 4개영역 등급합 8~18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2) 4개영역 등급합 8~18등급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강원 총청권	충북대	2차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사회과학, 경영, 생활과학 : 언, 수, 외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중 1개영역 3~4등급 이내 사범 : 언, 수(자연 : 수가), 외 중 2개영역 3등급 농업생명환경 : 언, 수, 외, 탐(2)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
			수능등급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2) 4개영역 등급합 12등급 이내 자연 : 언, 수, 외, 탐(2) 4개영역 등급합 14~16등급(수나 : 12~14 등급)이내 수의예 : 언, 수가, 외, 탐(2) 4개영역 등급합 8등급 이내
	한국 교원대	2차	청람인재	언, 수, 외, 탐(3) 중 2개영역 2등급 이내(추가모집 : 4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홍익대 (조치원)	1차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1) 중 2개영역 평균 4등급 이내(광고홍보 3등급) 자연 : 언, 수가, 외, 과(1) 중 1개영역 4등급(건축공학 3등급) 자율전공 : 언, 수, 외, 탐(1) 중 1개영역 3등급 이내
2차		수학능력 우수자	상경, 광고홍보학부 : 언, 수, 외, 탐(1)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광고홍보 3등급) 과학기술, 게임소프트웨어전공 : 언, 수가, 외, 과(1) 중 1개영역 4등급 이내(건축공학부 3등급) 자율전공 : 언, 수, 외, 탐(1) 중 1개영역 3등급 이내	
호남권	광주교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3 : 4 응시필수) 4개영역 백분위합 340점 이상
	전남대	수시	학생부성적우수자	인문 : 언, 외 중 1개영역 3~4등급(일부언,외,사(2)중 2개영역 4등급) 자연 : 학과별 반영영역 3~5등급(수의예 합산 8등급) 의예 : 언, 수가, 외 중 2개영역 1등급, 과(2) 1개영역 1등급 *각모집 단위별 상이
			전공특성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1) 중 2개영역 3등급(일부 언, 외영역 합산 6등급) 자연 : 학과별 반영영역 3등급(수의예 : 합산 8등급, 생명과학기술학, 화학 교육 : 합산 6등급) 수의예 : 언, 수가, 외, 과(1) 4개영역 합산 8등급 *각 모집 단위별 상이
	전남대 (여수)	수시	학생부성적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탐(1) 중 1개영역 4~5등급(일부 언,외 영역3등급) 자연 : 언, 수, 외, 탐(1) 중 1개영역 4~5등급
	전북대	1차	큰사람	인문 : 언, 수내(일부 : 수), 외, 사(2-일부 : 탐) 중 2개영역 평균 2~5등급 자연 : 언, 수(일부 : 수가), 외, 탐(2-일부 : 과) 중 2개영역 평균 3~7등급
			글로벌 리더	인문 : 언, 수내(일부 : 수), 외, 사(2-일부 : 탐) 중 2개영역 평균 3~5등급 자연 : 언, 수(일부 : 수가), 외, 탐(2-일부 : 과) 중 2개영역 평균 3~7등급
2차		일반학생	인문 : 언, 수내(일부 : 수), 외, 사(2-일부 : 탐) 중 2개영역 2~5등급 자연 : 언, 수(일부 : 수가), 외, 탐(2-일부 : 과) 중 2개영역 2~6등급	

지역	대학명	모집 시기	전형유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호남권	전주교대	수시	고교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2) 4개영역 합 12등급 이내
영남권	경북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사(3) 중 2개영역 2~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3) 중 2개영역 2~4등급(일부 : 수나 2등급이하 적용) 이내
			논술능력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사(3) 중 2개영역 2~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3) 중 2개영역 2~4등급(일부 : 수나 2등급이하 적용) 이내
	경북대 (상주)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인문 : 언, 수, 외, 사(3)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3) 중 2개영역 5~6등급(일부 : 수나 2등급이하 적용) 이내
	경상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2~6등급 이상 *자연계의 경우 수가 / 과탐 선택시 취득등급보다 1등급 높게 적용 [일부 인문대학 : 언, 수, 외, 탐, 제2한 중 1개영역 4등급 / 해양과학 대학 : 없음] *각 모집 단위별 상이
	대구교대	2차	고교성적 (내신) 우수자	언, 수, 외, 탐(3) 4개영역합 12등급 이내
	부산교대	수시	고교성적 우수자	언, 수, 외, 탐(3) 과목합 10등급 이내
	부산대	수시	창의적 인재선발	인문사회(농업경제학과제외), 생활환경 : 언, 수, 외, 탐(2 : 3응시)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 3응시)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주도적 인재선발	인문사회(농업경제학과제외), 생활환경 : 언, 수, 외, 탐(2 : 3응시)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자연 : 언, 수가, 외, 과(2 : 3응시)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Premier-PNU전형인문사회계열			언, 수, 외, 탐(2 : 3응시)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 이내 농업경제학과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평균 2등급 이내	
Premier-PNU전형이공계열			자연과학, 공과, 사범 : 언, 수가, 외, 과(2 : 3응시) 중 2개영역 3등급 이내 생명자원과학(농업경제학과는 제외) : 언, 수, 외, 탐(2) 중 2개영역 4등급 이내	

주요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 서울지역 대학은 서울캠퍼스 기준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과목수		
건국대	나/다	인문	표+백	30			25	35			10	2		
		자연		20	30			30		20		2		
경희대	가/나	인문, 지리, 식품영양, 간호	표준	25			30	30			15	2		
		사학, 영어, 철학, 국문		30			25	30			15	2		
		자연		20	30			20		30		2 한의예:3		
고려대	가	인문	표+백	28.6			28.6	28.6			14.2	2	탐구 대체가능	
		자연		28.6	28.6			28.6		14.2		2		
국민대	가/다	인문	백분위	30			10	35			25	2		
	자연	10				35	30		25		2			
	다	건축(5년제)		10			35	30			25	2		
단국대 (죽전)	나/다	인문(상경 제외), 정보통 계, 건축	백분위	30			20	30			(20)	2	(20)	
		경영, 경제, 무역		25			25	25			(25)	2	(25)	
		화학공, 피아서비스협공, 건축공, 자연과학대학(일 부제외)		20			30	30		20			2	
		공과대(일부 제외), 컴퓨터학부 (다군:사범계열)		20	30			30		20			2	
		건축, 정보통계		20			30	30			(20)		2	(20)
	다	한문교육		30			10	30			(30)		2	(30)
동국대	가/나	인문	표준	30			20	35			15	2	탐구 대체가능	
		가정교육, 컴퓨터공		10			35	35			20	2		
		자연(일부제외)		10	35			35		20		2		
		정보통신공, 멀티미디어공 바이오시스템대학		10			35	35		20		2		
서강대	나	인문(경영 경제 제외)	표+백	25		27.5		30	17.5			2		
		경영, 경제		22.5		30		30	17.5			2		
		자연		17.5	30			27.5		25		2		
서울교대	나	초등교육	표준	25		25	25			25	4			
서울대	나	인문	표+백	22.2			27.8	22.2			22.2	4	5.6	
		자연(간호제외)		23.5	29.5			23.5		23.5		4		
		간호		23.5			29.5	23.5			23.5	4		
		자유신공학부(자연)		23.5	29.5			23.5			23.5	4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과목수	
서울 시립대	가/나	자연	표+백	25	30			30		15		2	
		인문		25			30	30			15		2
	다	정경, 경영대, 자율전공		25			30	30	15				2
성균관대	가/나	인문, (가군 : 컴퓨터교육)	표준	30				30			10	2	탐구1 대체가능
		자연(우선선발)			50				50			2	
		자연(일반선발)		20	30			20		30		2 의예3	
숙명여대	가/나	인문, 생활과학부	백분위	30			20	30			20	2	탐구1 대체가능
		경제학부, 경영학부		25			25	30			20	2	
		자연 (멀티미디어제외)		(30)	40			(30)		30		2	
		멀티미디어과학		(30)			40	(30)		30		2	
숭실대	가/나	인문(일부 제외)	백분위	35			15	35			15	2	
		경영대		15			35	35			15	2	
	가/다	보험수리, 건축외3개		15			35	35			15	2	
		자연(일부 제외)		15	35			35		15		2	
	다	글로벌미디어학부		34				34	32			2	
아주대	가/다	가 :사회과학부	표+백	15	30			35		20		2	
		인문계열1		30			20	35			15	2	
		인문2, 자연2		20			30	35			15	2	
		가: 자연1 / 다 :자연		15	30			35		20		2	
	다	경영학부, e-비즈니스		20		30		35	15			2	
		인문(일부제외)		30		20		35	15			2	
연세대	가	인문	표+백	28.6			28.6	28.6			14.2	2	
		자연		20	30			20		30		2	
이화여대	가	인문, 의류	백분위	30			25	25			20	2	인문과학 대학탐구 1대체가능
		자연과학대, 공과대		20	30			20		30		2	
		수학교육		25	30			25		20		2	
		과학교육		25			25	25		25		2	
		건강과학대		(40)			35	(40)			25	2	
인하대	가/나	인문(일부 제외)	표준	30		20		30	20			2	
		글로벌금융, 아태물류학부		30			20	30			20	2	
		자연(일부 제외)		20	30			20		30		2	
		간호, 생활과학, 건축		20			30	20		30		2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 탐	과탐	사/과	과목수		
중앙대	가/나	인문(공공인재제외)	표+백	28.6			28.6	28.6			14.2	2	탐구1 대체가능	
		공공인재학부		30			20	30			20	2		
		자연		20	30			30		20		2		
	다	경영학부		28.6			28.6	28.6			14.2	2	탐구1 대체가능	
한국 외대	가/나	인문	표준	27.5			20	40			12.5	2	탐구1 대체가능	
한양대	가/나	인문	표준	30			30	30			10	2	(3과목 응시 必)	
		자연		20	30			30		20				
홍익대	가/다	자연	백분위	(33.3)	33.33			(33.3)		33.33		2		
		인문		25			25	25			25	2		
		자율전공		(33.3)			(33.3)	(33.3)			(33.3)	2		
	나	자연			50					50		2		
강원대	가	인문	표+백	41.67			(16.66)	41.67			(16.66)	2		
		나		자연(일부 제외)	(16.66)			41.67	41.67			(16.66)		2
				공과대, 과학교육, 수학교육, 수의예		41.67			41.67	16.66				2
	다	동물생명, IT대				41.67	41.67	16.66				2		
		인문		25			25	37.5			12.5	2		
		자연(일부 제외)		25			31.25	31.25		12.5		2		
		농업생명, 산림환경대		25			31.25	31.25			12.5	2		
	공과대학, 과학교육, 수학교육, 수의예	25	31.25			31.25		12.5		2				
경북대	가/나	인문	표+백	30			20	30	20			3	탐구1 대체가능	
		자연		20	30			30		20		3		
경상대	가/다	인문	백분위	30			20	30			20	2		
		자연		20			30	30			20	2		
공주대	가/나	생물교육	백분위	15			30	30		25		3		
		인문사회 사범계열		30			15	30			25	3		
		컴퓨터교육, 환경교육		15			30	30			25	3		
		수교, 물교, 학교, 지교		15	30			30		25		3		
		인문		35				35			30	2		
		자연					35	35			30	2		
부경대	가/나	인문, 자연	표준	25			25	25			25	2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과목 수	
부산대	가/나	인문	표준	30			20	30			20	3	
		자연 (생활환경대 제외)		20	30			30		20		3	
		생활환경대, 밀양캠·생명자원 과학대학(농업경제제외)		20			30	30			20	3	
영남대	가/다	인문	백분위	35			15	35			15	3	
		천마인재학부(인문)		35		15		35			15	3	
		자연(일부 제외)		20			35	30			15	3	
		가족주거, 산림자원, 의류패션, 식품학부, 원예, 조경		25			25	25			25	3	
		수학교육		20	35			30			15	3	
		의예		20	30			30		20		3	
		천마인재학부(자연)		20	35			30		15		3	
울산과학 기술대	나	경영계열	표준	20			30	30			20	3	
		이공계열		20	30			20		30		3	
원광대	가	간호	표+백	25			25	25			25	3	
		의예, 치의예, 한의예, 한약		25	25			25		25		3	
		수학교육		(33.3)			33.3	(33.3)			33.3	2	
	인문, 자연 (일부 제외)	(33.3)				(33.3)	(33.3)			33.3	2		
	다	인문, 자연 (의예 제외)		25			25	25			25	2	
의예		25	25			25		25		3			
전남대	가/나	인문(일부 제외), 여수캠·인문	표준	27.5			25	27.5			20	3	
		인문(인문대)		27.5			25	27.5			20	3	(20)
		자연(일부 제외)		25			27.5	27.5		20		3	
		가정교육, 동물자원학부, 바이오 에너지공, 산림자원학부, 생활환경 경복지, 식물생명공, 식품영양, 응 용생물공, 의류조경, 지역 바이 오시스템공, 여수캠·자연		25			27.5	27.5			20	3	
		자연계사범계열(가정교육 제외), 물리, 수학, 의예, 수의예, 건축학 부, 기계시스템공, 산업공, 신소재 공학부, 에너지자원공, 응용화학 공, 전기공, 토목공, 환경공		25	27.5			27.5		20		3	
		자율전공학부(자연)		25	27.5			27.5			20	3	

대학	모집군	모집단위	활용 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언어	수리			외국 어	탐구영역				제2외/ 한
					가	나	가/나		사탐	과탐	사/과	과목 수	
전북대	가	자율전공(자연)	표준	20	35			35		10		2	
		자율전공(인문)		35		20		35	10			2	
	가/나	인문(일부 제외)		30		20		30	20			2	
		경영학부, 아동		30			20	30			20	2	
		지리교육		30			20	30	20			2	
		고고문화인류, 문헌정보, 영어영문, 중어중문, 철학		30			20	30			20	2	
		자연(일부 제외)		20	30			30		20		2	
간호, IT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공, 고분자나노공, 산림자원, 생물환 경화학, 조정, 식품공, 동물소재공, 원예, 스포츠과학, 주거환경, 의류, 환경조경디자인, 한약지원	20				30	30			20	2			
동물생명공, 과학, 바이오 식품공, 반도체과학기술, 산업정보시스템공	20				30	30		20		2			
조선대	가	군사학부	백분위	25			37.5	37.5				3	
	가/나	인문		30			20	30			20	3	
		자연		20			30	30			20	3	
		자유전공학부		25			25	25			25	3	
충남대	가/나	인문	표+백	32		16		32	20			2	
		자연		16	32			32		20		2	
충북대	가/나	인문	백분위	30			20	30			20	2	
		자연(일부 제외)		20			30	30		20		2	
		의예, 수의예, 수학, 수학교육, 정보통계		20	30			30		20		2	
한국 교원대	가	가정, 기술, 컴퓨터	백분위	17.5			30	27.5			25	3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7.5	30			27.5		25		3	
		교육, 초등, 유아		25			25	30			20	3	
		영어, 독어, 불어		27.5			17.5	30			25	3	
		국어,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30			17.5	27.5			25	3	

* 2011.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대교협) 참조

※ 수능최저학력기준별 핵심 전형요소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4	합 8등급	충북대(2차)- 수능등급우수자 (수의예)		전남대(수시)- 학생부성적우수자 (수의예) 충남대(수시)- 일반전형(수의예, 인문 교육, 수학교육)			전남대(수시)- 전공특성우수자 (수의과)
	합 10등급			공주교대(수시)-고교 성적우수자 부산교대(수시)-고교 성적우수자 충남대(수시)-일반전 형(간호, 기술교육)			
	합 12등급	충북대(2차)- 수능등급우수자 (인문)		대구교대(2차)-고교성 적(내신)우수자 전주교대(수시)-고교 성적우수자 충남대(수시)- 일반전형(자연교육 (수학상이)) 청주교대(수시)-고교 성적우수자			
	합 14등급	충북대(2차)- 수능등급우수자(자연 과학, 공과, 전자정보 대학)수나응시 12등급		충남대(수시)- 일반전형 (생물과학, 미분생 과학)			
	합 15등급	충북대(2차)- 수능등급우수자(생활 과학대학)수나응시13 등급					
	합 16등급	충북대(2차)- 수능등급우수자(농업 생명환경대학)수나응 시14등급					
	합 18등급			충남대(수시)- 일반전형(각모집단위 별상이)			
	평균백분위 83점						경인교대(수시)- 글로벌교육리더십
	백분위 합 340점			광주교대(수시)-교과 성적우수자			
	기타		한양대(2차)- 일반우수자 (의예):3개영역 1등급 +1개영역 2등급				한양대(1차)- 공학인재(자연):3개 영역 1등급+1개영역 4등급 또는 2개영역 1등급+2개영역 4등 급 한양대(1차)- 학업우수자(의예):3 개영역 각각 1등급 +1개영역 2등급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3	각각 1등급	경희대(2차)-교과우수자(한의예)	경희대(1차)-[우선]일반일반학생(한의예)	전남대(수시)-학생부성적우수자(의과)			연세대(2차) -진리·자유(의대,치대)
			고려대(2차)-[우선]일반전형(경영,정경,자유,의과)				
		연세대(원/1차)-학생부우수자(의예)	성균관대(2차)-[우선]일반전형(자유,글로벌경제,글로벌경영)				
			성균관대(2차)-[일반]일반전형(반도체시스템)				
			숙명여대(2차)-[우선]논술우수자(글로벌서비스,또는 3개영역합 4등급)				
연세대(원/2차)-학생부우수자(의예)	아주대(1차)-일반전형 I (의학부)						
	연세대(1차)-[우선]일반우수자(인문)						
	연세대(1차)-[일반]일반우수자(의대,치대)						
	연세대(원/2차)-학생부우수자(의예)						
		중앙대(2차)-논술우수자(의학)					
각각 2등급	홍익대(2차)-수학능력우수자(사범,전영역 3등급)	서강대(2차)-일반전형(인문)					연세대(2차) -진리·자유(인문)
		연세대(1차)-[일반]일반우수자(인문)					
		한양대(2차)-일반우수자(인문,자연),학과별상이					
각각 3등급	서울시립대(2차)-[수능조건]서울고교우수인재(자연)						
평균 3등급	가천의과대(2차)-학생부우수자(간호)						
합 4등급			성균관대(2차)-[우선]일반전형(인문),일부학과 상이				한양대(1차)-학업우수자(정책)
			성균관대(2차)-[일반]일반전형(자유,글로벌경제,글로벌경영)				
			한양대(2차)-[우선]일반우수자(인문,자연),학과별상이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3	합 5등급	가천의과대(2차)-학생부 우수자(생명과학, 약과)					
		서울시립대(2차)-[수능조건A]서울고교우수인재(인문)					
		중앙대(2차)-[우선]학생부 우수자(인문, 자연)					
		한국외대(2차)-일반III(인문)					
	합 6등급	가천의과대(2차)-학생부 우수자(생명과학, 약과학)	성균관대(2차)-[일반]일반전형(인문, 자연, 컴교), 일부학과상이				성균관대(1차)-학교생활우수자
		서울시립대(2차)-[수능조건A]서울고교우수인재(자연)					
	합 7등급	중앙대(안/2차)-[우선]학생부 우수자(인문, 자연)					
	합 8등급	강원대(춘/1차)-수능등급 우수자(사범대학)					
	합 9등급	상명대(1차)-학생부주요교과우수자(사범)	상명대(1차)-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사범)				
		서울산업대.(수시)-일반전형(인문사회)					
합 10등급	강원대(춘/1차)-수능등급 우수자(일반대학)	연세대(원/2차)-학생부 우수자(인문, 또는 1개영역 2등급)					
	연세대(원/1차)-학생부 우수자(인문, 또는 1개영역 2등급)						
합 12등급	강원대(춘/1차)-수능등급 우수자(농업생명과학, 산림환경과학대학)						
	서울산업대(수시)-일반전형(공과, 자연생명과학)						
기타	건국대(2차) -[우선]수능우선학생부(인문):1개영역 백분위 96+2개영역 백분위 89 -[우선]수익예:2개영역 백분위 96점+1개영역 백분위 89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2	각각 1등급	경원대(2차)-교과성 적우수자(한의예)	인하대(2차)-[일반] 논술우수자 (글로벌금융) 아주대(1차)-일반전 형 I (금융공학, 또 는 3개영역 합 4등 급*수(나)1등급)	단국대(천/1차)-의 학우수자(의예, 치 의)			인하대(2차)-발표우수 자(글로벌금융)	
		이화여대(2차)-[우 선]학업능력우수자	연세대(1차)-[우선] 일반우수자(자연)	단국대(천/2차)-의 학지역우수자(의예)			한양대(1차)-학업우수 자(파이낸스,또는 3개영 역 합 4등급)	
		홍익대(2차)-수학능 력우수자(건축)						
	각각 2등급	경북대(수시)-교과 성적우수자(영어영 문, 경영, 행정, 일부 사범, 수의예)*자연 수(나) 2단계 하향	경북대(수시)-논술 능력우수자(영어영 문, 경영, 행정, 일부 사범, 수의예)*자연 수(나) 2단계 하향					고려대(1차) -지역우수인재
		경원대(2차)-교과성 적우수자(간호)	경희대(1차)-[일반] 일반학생(인문, 자 연), 한의예상이					서울대(수시) -지역균형선발
		경희대(2차)-교과우 수자(인문, 자연), 한 의예상이	고려대(2차)-[일반] 일반전형(인문, 자 연)					서울대(수시)-특기자
		경희대(국/2차)-교 과우수자(동서의과 학)	경희대(국/1차)-일 반학생(동서의과학)					연세대(2차) -진리·자유(자연)
		서울시립대(2차)- [수능조건]서울고 교우수인재(인문)	서강대(2차)-일반전 형(자연)	인천대(2차)-지역우 수인재(인문사범)	한국외대(2차)- 일반II(인문)			이화여대(1차)-미래과 학자(상위50% 적용안 함)
		이화여대(2차)-[일 반]학업능력우수자	연세대(1차)-[일반] 일반전형(자연) 이화여대(1차)-일반 전형(상위50% 적용안함)					이화여대(1차)-이화글 로벌인재(상위50% 적 용안함)
		중앙대(2차)-[일반] 학생부우수자(인문)	인하대(2차)-[일반] 논술우수자(아태물 류, 간호, 기초의과 학)					인하대(2차)-발표우수 자(아태물류, 간호, 기초 의과학)
		홍익대(2차)-수학능 력우수자(자율)	중앙대(2차)-논술우 수자 (인문)					한국교원대(2차)-청람 인재
								한양대(1차)-학업우수 자(인문, 자연), 일부학과 상이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2	각각 3등급	건국대(총/2차)-학생부 우수자(간호)	경북대(수시)-논술 능력우수자(인문, 사회, 사범, 자연 일부학과)*자연 수(나) 2단계 하향	단국대(천/1,2차)-일반학생(간호)	한국외대 (용/2차)-일반II (인문)		부산대(수시)-창의적 인재개발 (일부학과 상이)						
		경북대(수시)-교과성적 우수자(인문, 사회, 사범, 자연 일부학과)		서울여대(2차)-일반학생(면접형)									
				인천대(2차)-지역우수인재(인문, 소비자 아동, 패션산업), 사범 상이									
		경원대(2차)-교과성적 우수자(인문, 자연), 일부학과상이		인천대(2차)-지역우수인재 (자연사범)									
		광운대(2차)-교과성적 우수자	서울여대(2차)-일반학생(논술형)	전남대(여/수시)-학생부성적우수자 (특수교육)			부산대(수시)-주도적 인재선발 (일부학과 상이)						
		단국대(1차)-교과성적 우수자											
		덕성여대(2차)-학생부 우수자 (인문 pre-phanrm · medi)											
		중앙대(안/2차)-[일반] 학생부우수자(인문)											
	홍익대(조/2차)-수학능력우수자(광고홍보)	중앙대(안/2차)-논술우수자(인문)						충북대(2차)-교과성적우수자 (사범)	부산대(수시)-Premier-PNU전형 이공계열(일부학과 상이)				
	각각 4등급	건국대(총/2차)-학생부 우수자(인문, 자연), 간호 상이						경북대(수시)-논술 능력우수자(자연 일부학과)*자연 수(나) 2단계 하향	인천대(2차)-지역우수인재(자연), 사범 상이	충북대(2차)-교과성적우수자(인문, 공과, 생활과학)	전남대(2차)-전공특성 우수자(자율)	한양대(에/1차)-학업 우수자	
		경북대(수시)-교과성적 우수자(자연 일부학과)*자연 수(나) 2단계 하향							경북대(수시)-논술 능력우수자(자연 일부학과)*자연 수(나) 2단계 하향				충북대(2차)-교과성적우수자(인문, 공과, 생활과학)
		경북대(상/수시)-교과성적우수자(인문)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2	각각 4등급	성신여대(2차)-[일반] 일반학생(인문, 자연), 글로벌의과학 상이					부산대(수시)-주도적인 재선발 (생명자원과학)	
		홍익대(조/2차)-수학 능력우수자(상경)					부산대(수시) - Premier-PNU전형 이공계열 (생명자원과학)	
	각각 5등급	경북대(상/수시)-교과성적우수자(자연 일부학과) *레저, 토목, 섬유패션은 적용 안함 *자연 수(나) 2단계 하양						
	각각 6등급	경북대(상/수시)-교과성적우수자(생태 관련학과, 축산)*자연 수(나) 2단계 하양						
	평균 1.5	동국대(2차)-학업성적우수자 (경찰행정)						
	평균 2등급	성신여대(2차)-[우선] 일반학생(인문)	홍익대(1차)-교과 성적우수자(인문, 자율)					부산대(수시)-Premir-PNU전형 인문 사회계열 전북대(1차)-큰사람(자율) 전북대(1차)-글로벌리더(자율)
		중앙대(2차)-[일반] 학생부우수자(자연)	숙명여대(2차)-[우선]논술우수자(인문, 의류, 식품영양)			가톨릭대(2차)-일반학생 II (특수교육)		
		홍익대(2차)-수학능력우수자(공과)(경영, 전영역 3등급)	중앙대(2차)-논술 우수자(자연), 의학 상이					
	평균 2.5	성신여대(2차)-[우선] 일반학생(자연), 글로벌의과학 상이						
	평균 3등급	가천의과대(2차)-학생부우수자(치위생, 방사선, 물리치료)	중앙대(안/2차)-논술우수자(자연)	홍익대(조/1차)-교과성적우수자 (광고홍보)			가톨릭대(2차)-일반학생 II(인문, 생활과학), 일부학과 상이	
중앙대(안/2차)-[일반] 학생부우수자(자연)								
평균 4등급			홍익대(조/1차)-교과성적우수자(인문, 광고홍보 상이)				전북대(1차)-큰사람(사회과학, 상과) 전북대(1차)-글로벌리더(사회과학, 상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2	평균 5등급						전북대(1차)-큰사람(생활과학, 환경생명자원)
							전북대(1차)-글로벌리더(생활과학, 환경생명자원)
	합 3등급		인하대(2차)-[일반]논술우수자(에너지자원)				인하대(2차)-발표우수자(에너지자원)
			성균관대(2차)-[우선]일반전형(자연)				
	합 5등급	한국외대(용/2차)-일반Ⅲ(인문)	인하대(2차)-[일반]논술우수자(인문) 일부학과상이			한양대(예/2차)-일반우수자	인하대(2차)-발표우수자(인문), 일부학과상이
	합 6등급	상명대(1차)-학생부 주요교과우수자(인문)	상명대(1차)-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인문)				전남대(수시)-전공특성우수자(생명과학, 사범)
		연세대(원/1차)-학생부우수자(자연, 의예과상이, 또는 1개영역 2등급)	연세대(원/2차)-학생부우수자(자연, 의예과상이, 1개영역 2등급)				
		한국외대(용/2차)-일반Ⅲ(자연)					
	합 7등급	상명대(1차)-학생부 주요교과우수자(자연)	상명대(1차)-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자연)			한국외대(용/2차)-일반Ⅱ(자연)	
	백분위 75점			국민대(2차)-교과 성적우수자(Ⅱ)(자연)			
백분위 76점	건국대(1차)-학생부 우수자(자연)	건국대(1차)-논술 우수자(자연)					
	건국대(2차)-[일반] 수능우선헌생부(자연)						
백분위 80점	아주대(1차)-학생부 우수자1(자연)						
	아주대(2차)-학생부 우수자2(자연)						
백분위 85점	아주대(1차)-학생부 우수자1(인문)		국민대(2차)-교과 성적우수자(Ⅱ)(인문)	국민대(1차)-논술우수자			
	아주대(2차)-학생부 우수자2(인문)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2	백분위 86점	건국대(1차)-학생부 우수자(인문,특성화, 자율-자연)	건국대(1차)-논술 우수자(인문,특성 화,자율-자연)						
		건국대(2차) -[일반]수능우선헬 생부(인문)							
	백분위 89점	건국대(1차)-학생부 우수자 (자율-인문)	건국대(1차)-논술 우수자 (자율-인문)						
	백분위 94점	건국대(2차) -[일반]수능우선헬 생부 (수의예)							
	기타	건국대(2차) -[우선]수능우선헬 생부(자연):1개영역 백분위 96+1개영역 백분위89		경상대(수사)-교과 성적우수자2~6 등급*학과별 상이				전북대(1차)-큰사람(공과) 평균5~6등급	
								전북대(1차)-큰사람(농업 생명) 평균4~7등급	
		서울시립대(3차)-서 울유니버시안:1개 영역 1등급+1개영 역 3등급		전북대(2차)-일반 학생(인문)2~5등 급*학과별 상이					전북대(1차)-큰사람(인문, 사범)평균3~5등급
									전북대(1차)-큰사람(자연 과학) 평균3~6등급
전북대(1차)-글로벌리더 (공과) 평균5~6등급									
전북대(1차)-글로벌리더 (농업생명) 평균4~7등급									
전북대(2차)-일반 학생(자연)2~6등 급*학과별 상이							전북대(1차)-글로벌리더 (인문,사범) 평균3~5등급		
							전북대(1차)-글로벌리더 (자연과학) 평균3~6등급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1	1등급	송실대(2차)-학생부 우수자(금융)	고려대(2차)-[우선] 일반전형 (인문, 자연)					
			인하대(2차) -[우선]논술우수자					
			홍익대(1차)-교과성 적우수자 (건축)					
	2등급	고려대(세/1차)-교과 성적우수자(또는 2개 영역 3등급)	경희대(국/1차)-[우 선]일반학생(인문, 자 연)	강원대(춘/1차)-내 신성적우수자(수 의예)			강원대(춘/2차)-일 반전형(수의예)	인하대(2차)-발표우수 자(자연일부상이, 건 축)
		경희대(국/2차)-교과 우수자(인문, 자연)	숙명여대(2차)-[우 선]논술우수자(자연)					
		덕성여대(2차)-학생 부우수자(자연)	인하대(2차)-[일반] 논술우수자(자연일 부 상이, 건축)					
		동국대(2차)-학업성 적우수자(수학교육, 경찰행정상이)(자연 은 2개영역 3등급)						
		동국대(2차)-학업성 적우수자(수학교육)* 수(가)등급	홍익대(1차)-교과성 적우수자(자연), 건축 상이					
		송실대(2차)-학생부 우수자(인문, 금융제 외)						
		송실대(2차)-학생부 우수자(자연)(또는 2 개영역 3등급)						
	한국항공대(2차)-학 업성적우수자							
	3등급	가천의과학대(2차)- 학생부우수자 (일부학과 상이)		강원대(춘/1차)-특 정과목성적우수자 (국, 영, 과, 제2외 지원)			가톨릭대(2차)-일 반학생 II(자연), 일 부학과 상이	
전남대(수시)-학생 부성적우수자(경 영대학)								
홍익대(조/2차)-수학 능력우수자(건축공 학, 자율)		충북대(2차)-교과 성적우수자(전자 정보)						
		홍익대(조/1차)-교 과성적우수자(건 축공학, 자율)						

수능최저학력기준		학생부중심	학생부+논술	학생부+면접	논술	적성검사 (학생부+적성)	서류
영역수	기준						
1	4등급	홍익대(조/2차)-수 학능력우수자 (과기,계입)		강원대(춘/1차)-특정과목 성적우수자 (수학지원)			
				전남대(여/수시)-학생부성 적우수자 (경상,수산생명과학)			
				충북대(2차)-교과성적우수 자(자연과학)			
				홍익대(조/1차)-교과성적 우수자(자연,건축 상이)			
5등급	강원대(삼/수시)- 일반전형(응급,간 호,물리치료)		강원대(춘/1차)-내신성적 우수자 (인문,자연)		강원대(춘/2차)- 일반전형 (인문,자연)		
			전남대(여/수시)-학생부성 적우수자(공과,문과일부, 수산해양일부대학)				
백분위 92점	성신여대(2차)- [일반]일반학생 (글로벌의과학)	성신여대(1차)- 일반학생(글로벌 의과학)					
기타				전남대(수시)-학생부성적 우수자(공과,농업생명과 학)3~4등급			
				전남대(수시)-학생부성적 우수자(사범,사회과학)1~ 2영역 3~4등급			
				전남대(수시)-학생부성적 우수자(인문,생활과학)1~ 2영역 4등급			
				전남대(수시)-학생부성적 우수자(자연과학)1~2영역 4~5등급			

※ 수능최저학력기준 미반영 대학

구분	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	면접 중심	전공적성 중심
수도권	서강대 1차: 학교생활우수자	한양대 1차: 한양우수과학인 2차: 글로벌한양	한양대 1차: 미래인재	광운대 1차: 적성우수자 농어촌학생(정원외)
	이화여대 1차: 지역우수인재	이화여대 1차: 일반전형(60%)	중앙대 1차: 학업우수자, 지역우수자	경원대 1차: 일반전형 농어촌학생(정원외)
	한국외대 1차: 미래교사, 리더십 및 사회통합	한국외대 1차: 일반전형 I	서울시립대 2차: 사이언스파이오니아 코스모폴리탄특별	2차: 일반전형
	경희대[국제] 1차: 오토피아지역인재	서울시립대 1차: 전국고교우수인재	건국대 1차: KU자기추천	
	서울시립대 2차: 서울고교우수인재 (학생부우선)	동국대 1차: 일반전형	동국대 1차: Do Dream II	
	동국대 1차: 학교장 추천	성신여대 1차: 일반학생(글로벌의과학 제외)	숙명여대 1차: 자기주도학습우수자 자기추천자 학교장추천리더십 글로벌여성인재	
	건국대(충주) 1차: 농어촌학생(정원외), 기회균형(정원외)	단국대 2차: 논술우수자	건국대(충주) 1차: KU자기추천, KU리더십, 지역인재선발	
	성신여대 1차: 성신리더십우수	인하대 1차: 논술우수자		
인하대 1차: 학생부우수자		단국대 1차: 면접성적우수자 창의적인재 IT·CT, 지역인재		
		성신여대 1차: 글로벌인재1, 성신챌린저		
		광운대 1차: 리더십우수자		
지방 국공립	부산대 수시: 교과우수인재선발			

2011 수시 전형일자 수능 전·후별 구분

대학별 원서접수일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가천의과학대	1차	과학교과우수자	9.8~9.15	
		지역우선선발		
		사회적배려자		
		남학생우선선발		
		기회균형(정원외)		
		농어촌(정원외)		
	2차	학생부우수자		11.19~11.29
가톨릭대	1차	일반학생 I	9.8~9.13	
		논술우수자		
		잠재능력우수자		
		글로벌리더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교육기회균등(정원외)			
2차	일반학생 II		11.19~11.22	
건국대	1차	KU리더십	9.8~9.13	
		KU자기추천		
		KU전공적합		
		KU사랑		
		KU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KU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원외)		
		KU농어촌학생(정원외)		
		논술우수자		
		학생부우수자		
		문예창작특기생		
	국제화			
2차	수능우선학생부		11.19~11.23	
경기대(서울)	1차	일반학생(인문, 자연)	9.9~9.14	
		일반학생(실기)		
		학업우수자		
		다자녀가정		
		공직자자녀		
		농어촌학생(정원외)		
		전문계고교출신자(정원외)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경기대(서울)	1차	경기감성리더	9.9~9.14	
		사회경력자		
		경기글로벌리더		
		사회기여자		
		경기유니콤리더		
	2차	일반학생(인문, 자연)	11.11~11.16	
경기대(수원)	1차	일반학생(인문, 자연)	9.9~9.14	
		일반학생(실기)		
		학업우수자		
		다자녀가정자녀		
		사회기여자		
		경기감성리더		
		디자인비즈(일반학생)		
		경기글로벌리더		
		공직자자녀		
		농어촌학생(정원외)		
		경기유니콤리더		
		디자인비즈(농어촌학생(정원외))		
		2차		
	경상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9.9~9.13
문학특기자전형				
한문특기자				
수학경시대회특기자				
역사특기자				
이야기대회특기자				
개척바이오인재				
국가(독립)유공자본인 및 손자녀				
농어촌학생(정원외)				
러시아어특기자				
영어특기자				
지도력 및 봉사활동 우수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농, 임, 어업후계자자녀				
경원대	1차	일반전형	9.8~9.15	
		리더십		
		어학특기자		
		사회공헌자(손)자녀		
		영프런티어		
		농어촌학생(정원외)		
교육기회균등(정원외)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경원대	2차	일반전형		11.9~11.15
		교과성적우수자		
		G2+N6		
경인교대	수시	글로벌교육리더십	9.14~9.17	
		인천시교육감 추천		
		경기도교육감 추천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전형		
경희대	수시1	일반학생전형	9.8~9.13	
		경인지역학생전형		
		오토피아전형(서울C)		
		네오르네상스전형		
	수시2	특기자전형(외국어, 체육)		
광운대	1차	논술우수자	9.8~9.14	
		적성우수자		
		리더십우수자		
		글로벌리더, 로봏특기자		
	2차	교과성적 우수자		11.19~11.23
국민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Ⅰ)	9.8~9.13	
		논술우수자		
		국제화		
		기능특기자		
		국가(사회)기여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글로벌프런티어		
		북악리더십		
	2차	국제화		11.19~22
		교과성적우수자(Ⅱ)		
		특정과목우수자		
단국대(죽전)	1차	교과성적우수자	9.8~12.7	
		면접성적우수자		
		창의적인재		
		IT,CT인재		
		한문특기자		
		지역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어학특기자		
		국가(독립)유공자의 재(손)녀		
		기회균형선발(정원외)		
		농어촌학생(정원외)		
		2차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동국대	1차	일반전형	9.8~9.13	
		외국어고.국제고출신자		
		Do Dream특성화 I		
		Do Dream특성화 II		
		전공재능우수자(문학재능)		
		중구핵심인재		
		불교계추천(일반)		
		World Wide인재		
		외국어우수자		
		학교장추천		
		리더십		
		전공재능우수자(게임개발재능)		
		사회기여자자녀		
	다문화가정자녀			
기회균형선발(정원외)				
2차	학업성적우수자		11.22~11.25	
명지대	1차	일반전형	9.8~9.10	
	2차	옵티머스 러너	10.4~10.6	
		일반전형		
		일반전형(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사회기여배려		
		어학우수자		
		수학 · 과학우수자		
		크리스찬리더		
	특기자(문예창작학과,바독학과)			
	기회균형/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3차	일반전형		11.20~11.22	
부경대	수시	일반계고교 학업성적우수자	9.9~9.13	
		특정교과 우수자		
		재능우수자		
		부경글로벌인재		
		부경그린인재		
		부경HOPE 인재		
		부경마린인재		
		사회적배려대상자		
농어촌학생				
부산교대	수시		9.9~9.15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부산대	수시	고교생활우수자	9.8~9.13	
		Premier-PNU 전형(인문·사회)		
		Premier-PNU 전형(이공계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학생		
부산대	수시	전문계고교출신자	9.8~9.13	
		저소득층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상명대	1차	학생부주요교과우수자	9.8~9.14	
		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		
		글로벌리더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2차	태권도 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교사교장추천자		
		자기추천자		
서강대		전문가추천자	9.8~9.13	
		지역인재		
		일반전형(전공예약제)		
		학교생활우수자		
		알바트로스국제화		
		글로벌과학인재		
		특기자		
		일반전형		
가톨릭지도자추천				
가톨릭고교장추천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서울교대	수시		9.13~9.15	
서울대	수시	특기자	9.8-9.9	
		지역균형선발	9.29-9.30	
		북한이탈주민(정원외)		
		기회균형선발(정원외)		
서울산업대	수시	일반전형	9.8-9.13	
		영어우수자		
		전공적성우수자		
		특정교과우수자		
		산업체근무(경력)자		
		문학특기자		
		잠재능력우수자		
우수발명(기능)자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서울시립대	1차	전국고교우수인재	9.8~9.13	
		포텐셜마니아		
		베세토니안		
	2차	국가유공자및사회적배려대상자	10.22~10.28	
		코스모폴리탄리더		
		사이언스파이오니아		
3차	서울고교우수인재			
	서울유니버시안			
서울여대	1차	바롬ECO전형	9.9~9.14	
		특기자전형		
		바롬에비지도자전형		
		목회자추천자		
		바롬글로벌컬전형		
	2차	사회기여,배려자	9.9~9.14	
		일반학생(면접형)		
		일반학생(논술형)		
		기회균형(정원외)		
		학교생활우수자		
성균관대	1차	자기추천자		
		영상특기자		
		연기예술특기자		
		체육특기자		
		지역리더육성		
		리더십		
		동양학인재		
		사회봉사		
		나라사랑		
		글로벌리더 I		
2차	과학인재			
	일반전형			
성신여대			추후발표	
세종대	수시	일반학생(학생부우수자)	9.8~9.11	
		일반학생(적성우수자)		
		논술특기자		
		문학특기자		
		과학특기자		
		정보컴퓨터특기자		
		디지털콘텐츠		
		국제화추진(TOEFL)		
		국제화추진(TOEIC)		
		Creative Leadership		
국가유공자의자녀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숙명여대	1차	자기주도학습우수자	9.8~9.14	
		자기추천자-인문역량		
		자기추천자-수학과학역량		
		글로벌여성인재		
		지역핵심인재		
		학교장추천리더십전형		
		외국어우수자		
		사회기여 및 배려자		
	농어촌학생(정원외)			
	2차	논술우수자		11.19~11.23
숭실대			추후발표	
아주대	1차	일반전형1	9.8~9.14	
		학생부우수자1		
		러프다이아몬드		
		커리어로드맵		
		경기도우수인재		
		아주리더십		
		외국어우수자		
		의학,과학영재		
	국가유공자 및 사회기여자			
	2차	학생부우수자2		11.19~11.24
연세대	1차	일반우수자	9.8~9.10	
		조기졸업자		
		글로벌리더		
	2차	언더우드국제대학		
		진리,자유		
		사회기여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연세한마음(정원외)		
울산과학기술대	1차	과학영재 및 글로벌리더	9.9~9.13	
		학교장추천		
		지역고교출신자		
	기회균등			
	2차	학교생활우수자		
이화여대	1차	지역우수인재	9.9~9.13	
		이화글로벌인재		
		일반전형		
		미래과학자		
		국제학부 I		
		재능우수자		
	2차	학업능력우수자		11.22~11.24
		스크랜튼학부 I		
인천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동북아제외)	9.9~9.14	
		교과우수자(동북아국제통상학부)		

대학명	모집시기	전형유형	원서접수일	
			수능이전	수능이후
인천대	1차	체육특기자	9.9~9.14	
		취업자		
		특수목적고출신자		
		전문계고출신자(정원외)		
		외국어우수자(동북아국제통상)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컴퓨터특기자		
	어학특기자			
	인천도서지역(읍,면)지역출신자	11.19~11.22		
	2차		니차세대리더	
지역우수인재				
기회균형(정원외)				
인하대	1차	논술우수자	9.8~9.13	
		차세대핵심과학자		
		차세대국제전문가		
		외국어우수자		
		사회기여자		
	농어촌학생			
	2차	논술우수자		
발표우수자				
중앙대	1차	학업우수자	9.8~9.13	
		과학인재		
		글로벌리더		
		다빈치형인재		
		리더십우수자		
		지역우수자		
		전문계고졸재직자		
		예능우수자(연기)		
	특기자			
	2차	논술우수자		
		학생부우수자		
		어학우수자		
		예능우수자		
진주교대	1차	일반전형	9.8~9.10	
	2차	21c형교직적성자		
한국외대	1차	일반전형 I	9.8~9.13	
		글로벌인재전형		
		U-PEACE 국제전문가전형		
		글로벌이공계 인재전형		
		리더십 및 사회통합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미래교사 전형			
	2차	일반전형 II		



대학별고사 실시일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가천의과 학대	1차	과학교과우수자	10,24			10,28				
		지역우선선발	10,23			10,28				
		사회적배려자	10,24			10,28				
		남학생우선선발	10,23			10,28				
		기회균형(정원 외)				10,28				
		농어촌(정원 외)				10,28				
		전문계(정원 외)				10,28				
	2차	학생부우수자								12,10
가톨릭대	1차	일반학생 I			9,18 ~19	10,4				
		논술우수자		10,9 ~10		11,1 (간호 12,10)				
		잠재능력우수자				11,1				
		글로벌리더	10,23 ~24			11,1				
		가톨릭교회지도자추천	10,23 ~24			11,1				
		교육기회균등(정원 외)	10,23 ~24			11,1				
	2차	일반학생 II							11,27 ~28	12,10
강원대	1차	내신성적우수자					11,24 ~25			12,12
		실사구시(리더십)	10,11							12,12
		수능등급우수자								12,12
		사회보호 및 공익기여자					11,24 ~25			12,12
		특정과목 성적 우수자					11,24 ~25			12,12
		글로벌 우수인재양성					11,24 ~25			12,12
		유수대회 수상자					11,24 ~25			12,12
		농어촌학생(정원 외)					11,24 ~25			12,1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정원 외)					11,24 ~25			12,12
	2차	일반전형							12,4	12,12
	실사구시(지역인재)					10,11 이후		12,4	12,12	
건국대	1차	KU리더십					11,27			12,12
	1차	KU자기추천	10,23 ~24							12,12
	1차	KU전공적합					11,27			12,12
	1차	KU사랑					11,20			12,12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건국대	1차	KU기초생활수급자맞차상 위계층(정원 외)					11,20			12,12
	1차	KU농어촌학생(정원 외)					11,20			12,12
	1차	논술우수자		인:10,2 자:10,3						12,12
	1차	학생부우수자								12,12
	1차	국제화		10,2 10,3						12,12
	1차	문예창작특기생	10,16							12,12
	2차	수능우선학생부								12,12
건국대 (충주)	1차	KU자기추천	11,6			11,12				
		KU리더십	10,30			11,12				
		지역인재선발	10,30			11,12				
		농어촌학생(정원외)				10,26				
		기회균등(정원외)				10,26				
		일반학생	10,9			10,26				
		국가(독립)유공자	10,16			10,26				
경북대	수시	논술능력우수자						11,23		12,12
		KNUGlobal인재 I	10,16							12,12
		글로벌비즈니스리더	10,16							12,12
		영어능력우수자	10,16							12,12
		과학능력우수자	10,16							12,12
		전공단위선발					11,23			12,12
		지역우수인재	10,23							12,12
		리더십우수자	10,16							12,12
		이웃사랑	10,16							12,12
		농어촌학생(일반학생)	10,22							12,12
경북대 (상주)	수시	영어능력우수자	10,16							12,12
		전공단위선발					11,23			12,12
		농어촌학생	10,22							12,12
		이웃사랑	10,16							12,12
경상대	수시	교과성적 우수자					11,26			12,13
		문학특기자전형	10,9							12,13
		국가(독립)유공자본인 및 손자녀					11,27			12,13
		농어촌학생(정원외)							11,21	12,13
		러시아어특기자	10,9							12,13
		영어특기자	10,9				11,26			12,13
		한문특기자	10,9							12,13
수학경시대회특기자	10,9							12,13		
경상대	수시	역사특기자	10,9							12,13
		이야기대회특기자	10,9				11,26			12,13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경원대	1차	일반전형			10,10	10,22				
		리더십	10,2~3			10,22				
		어학특기자	10,2~3			10,22				
		영프린티어	10,2~3			10,22				
		사회공헌재(손)자녀			10,10	10,22				
		농어촌학생(정원외)			10,10	10,22				
		교육기회균등(정원외)	10,2~3			10,22				
	2차	G2+N6					11,26 ~27			12,10
		일반전형							11,28	12,10
경희대	1차	일반학생전형		자:10,2/ 인:10,3		11,12				
		경인지역학생전형		자:10,2/ 인:10,3		11,12				
		오토피아전형		자:10,2/ 인:10,3		11,12				
		네오르네상스전형	10,23,24			11,12				
		특기자전형(외국어,체육)	10,23,24			11,12				
고려대	1차	지역우수인재	10,23 ~ 24							12,12
		세계선도인재	10,16			10,29				
		과학영재	10,9			10,29				
		국제학부	10,9			10,29				
	2차	일반전형						11,27 ~ 28	11,27	12,12
		World KU				10,29				
		사회공헌자	11,6							12,12
		미래로KU(정원외)	11,6							12,12
	사회공헌자	11,6							12,12	
고려대 (세종)	2차	일반전형						11,27	12,10	
국민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I)	10,23 ~ 24			11,12				
		논술우수자		10,17						12,10
		북악리더십	10,23 ~ 24			11,12				
		국제화	10,23 ~ 24			11,12				
		어학특기자	10,23 ~ 24			11,12				
		전산특기자	10,23 ~ 24			11,12				
		기능특기자	10,23 ~ 24			11,12				
		국가(사회)기여자및사회적 배려대상자	10,23 ~ 24			11,12				
		기회균형(정원외)				11,12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국민대	1차	글로벌프런티어				11.12				
		농어촌학생(정원외)				11.12				
	2차	교과성적우수자(II)					12.4 ~12.5			12.10
		특정과목우수자					12.4 ~12.5			12.10
단국대 (죽전)	1차	면접성적우수자								12.12
		창의적인재								12.12
		IT·CT인재								12.12
		사회적배려대상자								12.12
		어학특기자								12.12
	2차	논술우수자								12.12
덕성 여대	1차	일반학생		10.22		11.12				
		글로벌파트너십	10.23			11.12				
	2차	학생부우수자								12.11
		사회기여배려대상								12.11
동국대	1차	일반전형		10.9		11.8				
		불교계추천(일반)	10.31			11.8				
		외국어우수자	10.30			11.8				
		외국어고·국제고출신자	10.30			11.8				
		Do Dream특성화 I	10.23			11.8				
		Do Dream특성화II	10.23			11.8				
		학교장추천	10.30			11.8				
		리더십	10.31			11.8				
		사회기여자녀	10.31			11.8				
		다문화가정자녀	10.31			11.8				
		중구핵심인재	10.23			12.12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0.30			11.8					
	2차	학업성적우수자	추	후	발					
	동국대 (경주)	1차	일반우수자	10.24			10.29			
일반우수자(의학)			10.24	10.3		12.9				
영남지역고교출신자			10.24			10.29				
영남지역고교출신자(의학)			10.24	10.3		12.9				
외국어우수자						10.29				
불교계(일반)						10.29				
불교계(승려)						10.29				
문학특기자						10.29				
리더십						10.29				
기초학문육성						10.29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10.29					
2차	학업성적우수자				12.3					
명지대	1차	일반전형			10.2	10.12				
		옵티머스 러너	9.25			10.12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명지대	2차	일반전형(인문)		10,30		11,15				
		일반전형(자연)	10,30			11,15				
		일반전형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1,15				
		어학우수자, 수학과학우수자, 특기자	10,23			11,15				
	3차	일반전형					12,4			12,10
부산대	수시	고교생활우수자					11,25~11,26			12,11
		Premier-PNU 전형 (인문·사회)					11,27			12,11
		Premier-PNU 전형 (이공계열)					11,27			12,11
		사회적 배려 대상자					11,27			12,11
		농·어촌학생					11,27			12,11
		전문계고교출신자					11,27			12,11
		저소득층학생					11,27			12,11
		특수교육대상자					11,27			12,11
상명대	1차	학생부선택교과우수자		10,2						12,11
		글로벌리더	10,16			10,29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10,2		10,29				
	2차	전문가추천자	11,13							12,11
		자기추천자	11,13							12,11
		교사교장추천자	11,13							12,11
		지역인재	11,13							12,11
상명대 (천안)	수시	일반학생				10,15				
		영어우수자				10,15				
		지역학생우선선발				10,15				
		사회기여자및배려자				10,15				
		농어촌학생(정원외)				10,15				
서강대	1차	일반전형 (전공예약제)	10,30	10,9~10		11,5				
		학교생활우수자	10,30			11,5				
		알바트로스국제화	10,31			11,5				
		글로벌과학인재	10,31			11,5				
		특기자	10,31			11,5				
	2차	일반전형						11,27~28		12,11
		가톨릭지도자추천						11,27~28		12,11
가톨릭교교장추천						11,28			12,11	
서울대	수시	특기자				인,자:11,26 체교:11,26 자전:11,26~27	11,25	인,자:11,26 체교:11,26 자전:11,26~27	12,11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서울대	수시	북한이탈주민(정원외)					12,3			12,11
		지역균형선발					11,27			12,11
		기회균형선발(정원외)					12,4			12,11
서울 시립대	1차	전국고교우수인재		10,8						12,10
		포텐셜마니아								12,10
		베세토니안	10,16							12,10
		국가유공자및사회적배려대상자					12,4			12,10
	2차	코스모폴리탄리더					11,20			11,24
		사이언스파이오니아					11,20			11,24
서울 여대	1차	바롬ECO전형	10,16			10,22				
		특기자전형	10,16			10,22				
		바롬에비지도자전형	10,16			10,22				
		목회자추천자	10,16			10,22				
		바롬글로벌컬전형	10,16			10,22				
		사회기여,배려자	10,16			10,22				
서울 여대	2차	일반학생(면접형)					11,20			12,11
		일반학생(논술형)						11,27		12,11
		기회균형(정원외)					11,20			12,11
성균 관대	1차	학교생활우수자	인:10,16/ 자: 10,17							12,11
		자기추천자	인:10,16/ 자: 10,17			10, 29				
		영상특기자	인:10,16/ 자: 10,17			10, 29				
		연기예술특기자				10, 29				
		체육특기자	인:10,16/ 자: 10,17			10, 29				
		지역리더육성								12,11
		리더십	인:10,16/ 자: 10,17			10, 29				
		동양학인재				10, 29				
		사회봉사	인:10,16/ 자: 10,17			10, 29				
		나라사랑				10, 29				
		글로벌리더 I	인:10,16/ 자: 10,17			10, 29				
		과학인재	인:10,16/ 자: 10,17			10, 29				
		2차	일반전형						인:11,20/ 자:11,21	
	성신여대			추	후	발	표			
세종대	수시	일반학생(학생부우수자)			10,16 ~17					11,30
		일반학생(적성우수자)			10,16 ~17					11,30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세종대	수시	논술특기자	10,9 ~10							11,30
		문학특기자	10,9 ~10							11,30
		과학특기자	10,9 ~10							11,30
		정보컴퓨터특기자	10,9 ~10							11,30
		디지털콘텐츠	10,9 ~10							11,30
		국제화추진(TOEFL)	10,9 ~10							11,30
		국제화추진(TOEIC)	10,9 ~10							11,30
		Creative Leadership	10,9 ~10							11,30
		국가유공자의자녀	10,9 ~10							11,30
숙명여대	1차	자기주도학습우수자	10,30 ~31			11,9				
	1차	자기추천자-인문역량	10,30 ~31			11,9				
	1차	자기추천자-수학과학역량	10,30 ~31			11,9				
	1차	글로벌여성인재	10,30 ~31			11,9				
	1차	지역핵심인재					11,20 ~21			12,12
	1차	학교장추천리더십전형	10,23 ~24			11,9				
	1차	외국어우수자	10,23 ~24			11,9				
	2차	논술우수자						11,28 ~29		12,12
송실대	1차	일반전형	추	후	발	표				
아주대	1차	일반전형1	10,30							12,10 (의학,금융)
	1차	학생부우수자1								12,10
	1차	러프다이아몬드	10,31			11,12				
	1차	커리어로드맵	10,24			11,12				
	1차	경기도우수인재		10,2~3		11,12				
	1차	아주리더십	10,23			11,12				
	1차	외국어우수자				11,12				
	1차	의학,과학영재	10,9	10,2~3 (의학)		11,12				
연세대	1차	과학영재	10,9			10,29				
	1차	국제학부	10,9			10,29				
	1차	세계선도인재	10,16			10,29				
	1차	지역우수인재	10,23-24							12,12
	2차	체육특기자	10,13			10,29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연세대	2차	사회공헌자	11,6							12,12
	2차	미래로 KU	11,6							12,12
	2차	일반전형						11,27~28		12,12
연세대 (세종)	1차	체육 특기자	10,13			10,29				
	1차	교과성적우수자								12,10
	1차	지역고교우수자								12,10
	2차	일반전형						11,27		12,10
울산 과학 기술대	1차	과학영재 및 글로벌리더	10월중							
	1차	학교장추천	10월중							
	1차	지역고교출신자	10월중							
	1차	기회균등	10월중							
	2차	학교생활우수자					11월말			
이화 여대	1차	지역우수인재	10,30							12,12
		이화글로벌인재	10,23							12,12
		일반전형								12,12
		미래과학자	10,23							12,12
		국제학부 I	10,23							12,12
		재능우수자	10,30							12,12
	2차	학업능력우수자								12,12
		스크랜튼학부 I					12,4			12,12
인천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 (동북아제외)	10,23			11,6				
		교과우수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10,23			11,6				
		체육특기자				11,6				
		취업자	10,23			11,6				
		특수목적고출신자	10,23			11,6				
		전문계고교출신자 (정원외)	10,23			11,6				
		교과성적우수자(동북아 국제통상·외국어우수자)	10,23			11,6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10,23			11,6				
		컴퓨터특기자	10,23			11,6				
		어학특기자	10,23			11,6				
		인천도서지역 (읍,면)지역출신자	10,23			11,6				
	2차	니차세대리더					12,4			12,11
		지역우수인재					12,4			12,11
		기회균형(정원 외)					12,4			12,11
인하대		논술우수자		10,17		11,5				
		차세대핵심과학자	10,31			11,5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인하대	1차	차세대국제전문가	10,31			11,5				
		외국어우수자	10,31			11,5				
		사회기여자		10,17		11,5				
		농어촌학생		10,17		11,5				
	2차	논술우수자						11,28		12,11
		발표우수자					11,21			12,11
전남대	수시	학생부성적 우수자					11,25			12,12
		아동복지시설 생활자					11,25			12,12
		복수학위 희망자					11,25			12,12
		검정고시 출신자					11,25			12,12
		특목고 동일계 출신자					11,25			12,12
		특정과목성적 우수자					11,22~24			12,12
		대안학교장 추천자					11,22~24			12,12
		전공특성 우수자					11,22~24			12,12
		전문계고교 출신자 (정원 외)					11,22~24			12,12
		특수교육대상자 (정원 외)					11,22~24			12,12
		독립/국가유공자					11,25			12,12
		리더십					11,22~24			12,12
		농업인 후계자					11,22~24			12,12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정원 외)					11,22~24			12,12
전북대	1차	큰사람					11,22~27			12,10
		글로벌리더					11,22~27			12,10
		지방자치단체장추천					11,22~27			12,10
		농어촌학생(정원 외)					11,22~27			12,10
		기회균형선발(정원 외)					11,22~27			12,10
	2차	일반학생					11,24			12,10
		남학생					11,24			12,10
		국가공헌자					11,24			12,10
중앙대	1차	학업우수자	10,9(자) 10,10(인)			10,29				
		과학인재	10,23			10,29				
		글로벌리더	10,16			10,29				
		다빈치형인재	11,6			11,10				
		리더십우수자	11,7			11,10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중앙대	1차	지역우수자	10,2-10,3			10,13				
		전문계고졸재직자	10,2-10,3			10,13				
		예능우수자(연기)	9,27-10,18			10,29				
		특기자	10,17			10,29				
	2차	논술우수자				12,10		11,20(인) 11,21(자)		12,10
		학생부우수자								12,10
		어학우수자					11,27			12,3
		예능우수자								12,3
충남대	수시	일반전형					12,1			12,10
		검정고시 출신자					인:11,24/ 자:11,26			12,10
		PRISM인재					인:11,24/ 자:11,26			12,10
		전문분야우수자					12,1			12,10
		국가공헌자					12,1			12,10
		선호행및사회봉사자					인:11,24/ 자:11,26			12,10
		사회적배려대상자					인:11,24/ 자:11,26			12,10
		농어촌학생(정원 외)					인:11,24/ 자:11,26			12,10
충북대	1차	우수인재양성					11,22 ~24			12,12
		충북지역후계농업경영인 자녀					11,22 ~24			12,12
	2차	교과성적우수자					11,30		사범: 11,30	12,12
		수능등급우수자								12,12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원 외)					11,30		사범: 11,30	12,12
		농어촌학생(정원 외)					11,30		사범: 11,30	12,12
		국가유공자					11,30		사범: 11,30	12,12
포항 공대	수시	일반학생	10,27 ~30			11,09				
한국 외대	1차	일반전형 I		10,2						11,16
		글로벌인재전형	10,23							11,16
		U-PEACE 국제전문가 전형	10,23							11,16
		글로벌이공계 인재전형	10,30							11,16
		리더십 및 사회통합 전형	10,31							11,16
		자기추천자 전형	10,31							11,16
		미래교사 전형	10,31							11,16
		2차	일반전형 II						11,27	

대학	시기	전형유형	수능시험 이전				수능시험 이후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면접	논술	적성	최종 발표
한국 항공대	1차	일반전형		10.23						12.10
한국 항공대	1차	심층면접	10.20							12.10
		미래항공우주리더	10.20							12.10
		지역고교출신자								12.10
		사회기여자								12.10
	2차	학업성적우수자								12.10
		항공종사자의 자녀								12.10
한양대			추	후	발	표				
홍익대	1차	교과성적우수자	자율전공: 10.23	인:10.10 자:10.9						12.11
		홍익국제화		인:10.10 자:10.9						12.11
		수학,과학우수자		인:10.10 자:10.9						12.11
		사회적 배려대상자	10.23							12.11
홍익대 (조치원)	1차	교과성적우수자	(자율전공) 인:10.24/ 자:10.23							12.11
		홍익국제화	(자율전공) 인:10.24/ 자:10.23							12.11
		수학,과학우수자	(자율전공) 인:10.24/ 자:10.23							12.11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율전공) 인:10.24/ 자:10.23							12.11

※ 위 시행 일자는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11 대입전형 일정

2011 vs 2010학년도 대입 주요 일정

구 분		2011학년도	2010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0. 8. 31(화)	2009. 8. 31(월)	
	원서접수	2010. 9. 8(수) ~ 12. 7(화) (91일)	2009. 9. 9 ~ 12. 8(91일)	
	전형 및 합격자발표	2010. 12. 12(일)까지	2009. 12. 13 까지	
	등록기간	2010. 12. 13(월) ~ 15(수)(3일)	2009. 12. 14 ~ 16(3일)	
수능시험일		2010. 11. 18(목)	2009. 11. 12(목)	
성적통지일		2010. 12. 8(수)	2009. 12. 9(수)	
정시 모집	원서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가나군 : 2010. 12. 17(금) ~ 22(수)(6일) •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0. 12. 18(토) ~ 23(목)(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나, 가나군 : 2009. 12. 18(금) ~ 23(수)(6일) •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9. 12. 19(토) ~ 24(목)(6일)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0.12.03(금)	2009. 12. 4(금)
	전 형 기 간	“가” 군	2010. 12. 27(월) ~ 2011. 1. 10(월) (15일)	2009. 12. 26 (토) ~ 2010. 1. 9 (토) (15일)
		“나” 군	2011. 1. 11(화) ~ 1. 20(목) (10일)	2010. 1. 10(일) ~ 19(화) (10일)
		“다” 군	2011. 1. 21(금) ~ 2. 1(화) (12일)	2010. 1. 20(수) ~ 2. 1(월) (13일)
	합격자 발표		2011. 2. 1(화) 까지	2010. 2. 1까지
	등록기간		2010. 2. 7(월) ~ 9(수)(3일)	2010. 2. 2 ~ 4(3일)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2011. 2. 21(월)까지	2010. 2. 16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11. 2. 22(화)까지	2010. 2. 17
	추가모집		2011. 2. 23(수) ~ 28(월)(6일)	2010. 2. 18 ~ 23(6일)

※ 수능시험 연기로 인한 이후의 세부 일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후 공지 예정



발 간 위 원

* 자문위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 정책 국 장	이 종 수
부산광역시교육청	중 등 교 육 과 장	노 민 구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담당장학관	윤 재 희

* 기획·편집위원 *

대학진학지원센터	소장	곽 우 신
대학진학지원센터	교육연구사	권혁제·김영원

용인고등학교	교감	박만제	동아고등학교	교사	장영주
해운대여자고등학교	교사	한기진	동아고등학교	교사	정병옥
경혜여자고등학교	교사	천복현	동래여자고등학교	교사	황남진
대동고등학교	교사	김재원	부일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강동완
개금고등학교	교사	전화선	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전기범
개성고등학교	교사	김승욱	이사벨고등학교	교사	유경춘
명호고등학교	교사	김현구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강옥화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김선기	부산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장난심
경남고등학교	교사	이영숙	경남고등학교	교사	박원주

2011 수능 D-100 자료집

- 2011 수능 대비 영역별 필수점검 문제 -

발행일 : 2010. 8. 4.

발행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센터

Tel. (051) 866 - 2114, 860 - 6199

인 쇄 : 효민디앤피 Tel. (051) 807 - 5100